



韓國 三才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

•
이상혁
이병렬
간호윤



변영만 (1889-1954)

대법관, 변호사, 반민특위 재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변영태 (1892-1969)

고려대학교 교수,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역임



변영로 (1898-1961)

시인, 영문학자, 독립선언문 영문번역, 성균관대학교 교수

韓國三卍

변영만

山康 卍榮晩

변영태

逸石 卍榮泰

변영로

樹州 卍榮魯

韓國三才

변영만 · 변영태 · 변영로

초판 발행 · 2015년 5월 6일

만든곳 · 부천문화원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지은이 · 이상혁 · 이병렬 · 간호운

편집인 · 구자룡

펴낸곳 · 산과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4-4 (706호)

E-mail : pcamac@naver.com

ISBN 89-90918-90-1 03810

책값 12,000원

韓國三卍

변영만

글 · 이상혁

변영태

글 · 이병렬

변영로

글 · 간호윤

산과들

한국의 얼, 부천의 얼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님을 기리며

시인 · 부천향토문화연구소장 구자룡

중국 송나라 때 소순(蘇洵), 소식(蘇軾, 동파(東坡)), 소철(蘇轍) 등 삼부자를 일컬어 삼소(三蘇)라 했다. 이들은 시인으로, 문장가로 당대에 유명했던 예술 가족이었다.

부천에도 이와 같이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한학자이자 법률가였던 산강 변영만(山康 卞榮晩),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일석 변영태(逸石 卞榮泰), 시인이자 영문학자였던 수주 변영로(樹州 卞榮魯) 등 삼형제이다. 이 분들을 우리는 ‘한국의 삼변(三卞)’이라 부른다.

이 분들은 한결 같이 청렴, 청빈했고, 일제와 맞서 싸우면서 민족애를 발휘하였다. 창씨개명은커녕 일본을 찬양하는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삼변(三卞)은 한국의 얼, 부천의 얼이 되었다.

한국의 격동기였던 근대와 현대를 넘나들며 한 시대를 살았던 선각자이자 풍운아였던 삼변, 그들은 분명 우리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간직해야 할 인물이다.

부천문화원 부설 부천향토문화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분들을 기리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부천이 낳은 이 분들의 정신과 높은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변씨종친회 변창순 님, 국회의원 원혜영 님, 부천시장 김만수 님, 그리고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님께 감사를 드린다.

삼변의 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밀양 변씨 선산에 나란히 있다.

여 백

변영태

글·이병렬

- | | |
|-------------------------|--------|
| 1. 들어가면서 | ...95 |
| 2. 변영태의 생애 | ...97 |
| 3. 교육자·학자로서의 삶 | ...101 |
| 4. 외교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 ...105 |
| 5. 시조 번역과 영시 창작 | ...123 |
| 6. 남는 문제들 - 나오면서 | ...129 |
| 자료 | ...133 |

영시집 《SONGS FROM KOREA》중에서 발췌

변영로

글·간호윤

1. 들어가며	... 189
2. 갈뚝한 수주의 일생	... 197
3. 갈뚝한 인생으로서 수주	... 205
4. 갈뚝한 문인으로서 수주	... 223
5. 갈뚝한 수주 글 독법 讀法	... 245
6. 나가며	... 255
자료	... 259
시집 《조선의 마음》 영인본	



변영만

山康 卞榮晩

변영만은 한말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일찍 중국 대륙에서 전문을 넓히고 세계의 돌아가는 물정을 잘 알면서, 낙후된 한국 법률과 법학의 근대화를 위해 선각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법률가였다. 민족의식이 투철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법률을 포기할까 하다가도 억압받는 민족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한계를 절감해서였는지 법률직을 그만두고 대학교수가 되어 국학 진흥에 헌신하려고 했다. 그러나 탁월한 재능의 법률가는 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변영만은 대법관의 지위에 까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적 변화와 수난 속에서도 이처럼 재능 있는 법률가가 현존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변영만은 그의 초탈한 문인상(文人像)의 법률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괴팍하고, 기인(畸人)같은 산강이었다. 그가 우리나라 국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에 대하여는 한문학자 이기원(李家源)박사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말 법률가로서 국학자로서 한국 학술사에 족적을 남긴 것은 실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된다.

특히 변영만에게는 “우리나라 한문학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문장대가”, “한문 고전을 기반으로 서양의 문학과 사상을 폭넓게 수용한 독특한 정신세계의 개척자”, “식민지 시대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지성”, “조선의 천재”, “회색 괴짜”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 이상혁 '변영만' 본문 중에서



山康卞榮晚



이상혁

韓國三卍
변영만

이상혁

변호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장

1. 변영만의 생애
2. 성장기 [1889~1909, 유년기-판사]
3. 변호사 개업
4. 해외 망명시기 [1913~1919]
5. 귀국 후 변호사 활동 [1919~]
6. 귀국 후 문필 활동과 사회 활동
7. 해방 후 사회활동 (1)
8. 해방 후 사회활동 (2)
9. 맺음말

자료

- (1) 世界三怪物 세계삼괴물
- (2) 傷李婦女氏 상이부안씨
- (3) 施養傳 시새전

여 백

1. 변영만의 생애

(1) 산강山康

1889(고종26)년 6월 23일에 부평도호부에서 아버지 밀양 변씨 정상(下鼎相, 군수 역임), 어머니 진주 강씨(姜氏)의 큰아들로 태어난 변영만은 문인이며, 법률가, 법조인, 한학자, 영문학자, 시인, 문필가이다.

그리고 직업으로 판사, 변호사, 교수직을 가졌다.

자는 곡명(穀明), 호(號)는 산강재(山康齋) 삼청(三清), 요학(遼鶴), 대자재거사(大自在居士), 자민거사(自旻居士), 백민거사(白旻居士), 계황(계篋), 정설(靜雪), 위봉(威鳳), 곡명(曲明) 등 많으나 흔히 그의 고향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산강(山康)으로 불려진다.

(2) 삼변三卞

중국 북송시대 문장가이며 정치가였던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삼부지를 일컬어 삼소(三蘇)라고 했는데 변영만(卞榮晩, 1889~1954), 변영태(卞榮泰), 변영로(卞榮魯) 삼형제도 그와 비견되는 천재성을 가진 명문장이란 의미에서 한국의 3소(三蘇), 변씨삼절(卞氏三絶), 삼변(三卞)으로 불렸다.

국어학자인 이희승은 이들 삼형제를 가리켜 “변문(卞門)에는 별 셋이 있어/ 별마다 뚜렷하여/ 다 같이 별이로되/ 빛은 또한 각각이로다”라고 하였다.

(3) 형제와 가계家系

만형 산강(山康)은 한학자(漢學者)에 영문학자(英文學者), 법률가로서 크게 이름을 떨친 대석학(大碩學)인가 하면, 그 밑의 일석(逸石)은 영문학자로서의 일가(一家)를 이룬 청사(淸吏)의 표본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막내 수주(樹州)는 빼어난 시인이자 천하가 다 아는 주호(酒豪)에 몇진 풍류객(風流客).

이들 3형제는 서울 맹현(孟峴, 지금의 가회동)에서 삼화총리(三和監理) 겸 부윤(府尹)인 변정상과 진주 강씨 사이에서 산강(山康)이 1889년 6월 23일에, 일석(逸石)이 1892년 12월 15일에, 수주(樹州)가 1898년 5월 9일에 태어났다.

부친 변정상은 23세에 과거에 차상(次上, 2등)으로 급제하여 청백리(清白吏)로서 시문(詩文)의 재질을 떨친 인물, 3형제의 혈맥(血脈)을 거슬러 18대에 오르면 고려말 조선왕조 초에 걸친 시문의 대가(大家) 변계량(卞季良)에 이르게 된다. 당당한 '선비 6백년'의 혈통을 이어 3형제의 재사(才士)가 배출된 셈이다.

이와 관련된 수주의 아들 공수(恭壽)씨(한국투자금융 사장) 얘기는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는 전국 각지를 베풀하고 다니셨다는데 지나치게 청렴결백 하셨다고 들었고…. 머리는 할머니가 좋았고, 보학(譜學)에도 밝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代) 세 분의 공통적인 점은 영문학(英文學)에 상당한 실력을 지니셨고 항일(抗日)에 철두철미하셨고, 완강한 비타협적 성격이어서 개성이 강한 세 형제분이 모이면 화제(話題)에 반드시 의견이 상충(相衝)하여 서로 다투시기도 했지요.

흔히 세상에서는 백부(伯父) 님(산강(山康))이 한학(漢學)이나 법률에만 능하신 줄 알고 있지만 이 분도 영문학에 조예가 깊고 특히 산스크리트(梵語(범어))에 능해서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라는 별명을 지니셨지요. 명정(醞酐), 풍류(風流) 면에서는 백부님과 부친(수주(樹州))이 공통되고, 둘째 분(일석(逸石))은 아주 검소 근면하신 생활인이었고…. 생활은 모두가 빈곤하셨지만 멋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로 가족의 사생활에 대하여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저속한 언어나 보통 유행어를 써도 난리가 났지요.

집안에서는 별로 다정하지 않았고 마음은 가난하면서도 이처럼 귀족적인 프라이드를 지니셨달까…. 백부님은 성격이 괴팍하시고 기인형

(奇人型)인 데 비해 둘째 분은 끈고 성실하시고 아버님은 좀 과격하신 성
미였지요.”

이들 형제는 모두가 문학과 어학에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고 천재적인
풍모를 지녀 술한 일화를 낳았고 창씨개명 정책에 저항하여 끝까지 이름
을 바꾸지 않아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삼형제 모두 고향인 부천군 고강리로 내려와 은둔
생활을 하였다.

2. 생장기 1889~1909, 유년기-판사

(1) 출생-유년기-소년기

변영만은 1889년(고종 26) 6월 23일 경기도 부평도호부 하오정면 고리동 313번지(지금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에서 태어났다.(서울 다동(茶洞)이란 설도 있다.)

부친 변정상이 관직에 있던 관계로 변영만 일가는 서울 가회동에 거주하였다. 1906년 호적 대장에는 할머니를 비롯해 변정상 부부와 변영만, 변영태 부부, 변영복(영로)과 하인 2명이 거주하였고, 집의 규모는 초가 13칸이었던 것으로 보아, 풍족한 살림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변영만은 세상에 태어나 3일동안 울지 않았다는 기이한 출생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산강이 네 살 때 어느 날, 그의 조부가 대청에 큰 대자(大字)로 누워 있는 옆에 목침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질색해서 목침을 치우며, “할아

버지가 뭐 개(犬)인가” 하였다 한다. 대학자로서 대성할 기미는 이때부터 엿보였다고 할까.

7, 8세 때 사숙에서 한학에 입문하여 《사서삼경》,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섭렵하여 때로는 2, 3일간 다락방에 숨은 채 독서를 하기도 했다.

(2) 한문 수학(수당과 단제와의 교분)

그는 부친과 가까웠던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 1855~1907)의 문하에서 상당 기간 한학을 배웠다. 이때 같은 문하에 있던 단재 신채호와 10년이 넘는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교분을 나누었고, 변영만의 현실 인식과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세가 되던 해 이철자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상수(尙壽), 손자 호달(鎬達)]

(3) 법관 양성소

17세 되던 1905년에 법관양성소(서울대 법대의 전신)에 입학하였다.

입학시험에서 답안지에 이름을 적는 것을 잊고 나왔는데 그 답안내용이 너무도 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랴부랴 조사하여 합격시켰다는 일화도 있다.

법관양성소에서 구법을 터득하는 공부를 마치고 1906년 1월 6일 자로 제4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였는데, 동기동창은 20명이었다.

(4) 보성전문학교-판사

그는 보다 새로운 법제를 더 공부하고 싶어 1906년 2월에 당시로는 최고의 사립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였다.(법관양성소에서 면직된 다수교관이 보전교수로 출강하였다.)

2년 후인 1908년 1월 29일 우등으로 졸업하고 법관전고시험에 합격하여(1906.12.5. 합격자에는 안병찬(安秉瓚), 홍면희(洪冕熹)도 있었다.) 광주지방재판소 목포지부 판사로 임명되었다.

(5) <세계 삼괴물> 번역, 출간

① 1908년 판사 재직시 미국인 사밀가덕문 원저(美國, 斯密哥德文原著) 한국 변영만 의역(韓國卞榮晩意譯)이란 표제로 《세계삼괴물(世界三怪物)》을 서울 광학서포(廣學書鋪)를 통하여 번역 발행하였다. 영국 출신의 교육자이자 역사가인 스미스 골드윈(Golewin Smith, 1823~1910)의 《연방이나 제국이나》(1902)를 번역했는데, 그 번역에 있어 중국어 번역서인 후관 이욱(候官 李郁)의 《세계삼괴물》(1903)을 함께 참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제는 이 책을 대표적인 금서로 낙인찍었다.

지금도 시의 적절하게 느껴지는 ‘사형 폐지설’을 쓰기도 하였다.(1909)

② 《세계삼괴물》은 19세 법학도이자 청년계몽주의자이던 변영만의 첫 작품이다.

변영만의 반제국주의 관련 저술은 한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열강의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근대전환기 제국주의에 대한 지식 수용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③ 이즈음 변영만은 제국주의 관련 번역서 및 논설 《세계삼괴물》(1908.3)과 《20세기 대참극 제국주의》(1908.8), 〈제국주의의 성질〉(1909.2)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의 원인과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분석은 《세계삼괴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왜 변영만은 1908년에 집중적으로 제국주의 관련 저술을 하였을까? 필자는 감히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여 본다. (《서울법대 100년사》에서 발췌)

㉠ 변영만의 불굴의 항일 저항 정신과 그 실행방법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물론 집안의 가풍과 선대의 정신 그리고 수당 문하에서 가꾼 애국정신에서 찾을 수 있지만, 17세라는 연령대에서 본 현실 인식과 직접 겪은 법관양성소 시절의 시대상황 및 학풍에서 체득한 것이 아닌가 필자는 여기고 있다.

㉡ 1905~1906.1.6.까지의 법관양성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05.12.4.에 법무통첩 및 ‘법관양성소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그 무렵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한국침략에 대한 국민적 저항

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방증해 주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법부령 제5호인 '법관양성소 감독에 관한 규칙'은 그 제1조에서 "소장, 교관 및 학도는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조는 "소장, 교관 및 학도는 서로 결집하여 동맹휴학(천자휴학 擅自休學)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위반하거나 선동하면 상당한 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생동맹휴학의 최초 사례이기도 하였다.)

㉔ 이 같은 감독에 관한 규칙은 이해(1905)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정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영환 등 많은 중신과 지사들이 자결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는 등 국민적 저항이 있었고 그 영향이 법관양성소에도 미쳤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㉕ 1905.12 그 당시 법관양성소 교관 정명섭, 윤태영, 김종호, 고익상, 조세한, 윤광보 등 6명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통감부의 압력으로 곧 해임되었다.

㉖ 변영만이 법관양성소에 재학 중일 때의 교과과정은 법학통론, 민형법, 민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국제법, 상법, 현행법률, 신술, 작문, 외국 율레이었다.(1904.7.30.자 법부령)

그 뒤 1906.4.4. 자 개정 규칙으로 종전의 학과목에 형법대전, 명률, 무원록, 경제학, 재정학, 외국어가 추가되었다.

㉗ 이로 미루어 변영만은 1906.2(광무10년)에 보성전문학교 법률학 전문과(야간부)에 입학한 것은 그 교과과정이나 교관의 면면(고려대 90년 사 66쪽, 67쪽)을 볼 때 그 교과목이나 교수의 대부분이 법관양성소의 그것과 대동소이함에 비추어 앞에 밝힌바와 같은 1905년 하반기의 어수선한 법관양성소의 상황 때문에 무실하였던 학습을 보충하는 뜻이었다고

여겨진다.

㉔ 또 변영만은 1905년에 체결된 강압적인 을사보호조약, 학생동독에 관한 규칙, 법관양성소 교관의 해직사태 등을 직접 목도하였기에 1906~1908.1까지 간의 보성전문학교 야간부 재학 기간을 이용하여 《세계삼괴물》(1908.2), 《20세기 대참극제국주의》(1908.8), 《제국주의의 성질》(1909.2)를 연속 발간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④ 변영만의 《세계삼괴물》은 이기찬(李基燦)의 제사(題辭)와 신채호(申采浩)의 서(序)를 앞에 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론을 쓰고 있다.

㉕ ‘갑(甲) 부족정체(富族政體)’, ‘을(乙) 군비정책(軍備政策)’, ‘병(丙)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번역했고, 결론으로 《세계삼괴물》을 번역하게 된 동기와 견해를 쓰고 있다.

㉖ 부족정치(금권정치), 군비정책, 제국주의 이 세 가지를 괴물이라고 정의하고, 이 삼괴물을 온힘을 다해서 막는 당연한 이유는 이 삼괴물이 해악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㉗ 변영만은 당시의 상황을 “피 비린내 나는 바람이 일고, 피 비가 내리며”, “국가가 망하고 인종이 멸하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급한 현실상황은 제국주의의 강성함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들의 강성함이 지금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멸망의 참화를 피하기 위하여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㉘ 그리고는 부족정치, 군비정책, 제국주의라는 괴물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괴물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있으며 게다가 독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괴물들의 특성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강자 중심의 제국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1900년초의 한국민을 향해 변영만은 '삼괴물'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변영만이 남긴 《세계삼괴물》과 《20세기 참극 제국주의(二十世紀慘劇帝國主義)》 두 권의 책으로 인해 한국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즉 서구를 모방하며 추종하던 당대의 상식에 19세 청년 변영만의 도전으로 신채호를 비롯한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6) 법관 사직

그러나 이듬해(1909) 한국정부의 사법권이 일본 통감부로 이양되자 왜놈의 사양개 노릇은 죽어도 못한다고 법복(法服)을 벗어던지고 상경하였다.

이때 그의 부친 변정상은 나의 아들답다고 크게 칭찬하였다고 한다.

(7) 상경-북상사(北上詞)

산강은 1909년 법복을 벗고 그해 12월에 한성북부 재동 맹헌 14동 1호의 본가로 돌아와 북상사(北上詞)를 지어 그 소회를 밝혔다.

북상사(北上詞)

기유년(1909) 음력 10월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짓다¹

惟弱冠之芳齡兮,	오, 약관의 꽃다운 나이여
邁世代之崎嶇.	기구한 시대를 만났구나.
離南土而北上兮,	남쪽 땅을 떠나 북으로 올라감이어
鬱耿耿其誰儔.	근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 그 뉘와 짝하리오.
蹈東海而不返兮,	동해를 밟고 ² 돌아오지 않으면
其能脫茲汶汶.	이 더러운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乘雲霓而倏舉兮,	구름과 무지개 타고 훌연히 날아오르면
其能忘此悶悶.	이 답답한 심정 잊을 수 있을까?
懷不同於莊生兮,	이내 회포 장자(莊子)와 같지 않거니
恨無術以爲蝶.	한스럽게도 호접몽(胡蝶夢) 이를 슬쩍이 없구나.
緣不深於梵門兮,	이내 인연 불문(佛門)에 깊지가 않아
亦莫誦其貝葉.	불경 또한 외울 수가 없구나.
費思邈之悲壯兮,	비사막(費思邈) ³ 의 비장함이어
摧群雄而昌邦.	군웅(群雄)을 꺾고 나라를 흥기시켰네.
麻志尼之慷慨兮,	마지니(麻志尼) ⁴ 의 강개함이어

1 기유년……짓다: 이 당시 산강은 20세의 나이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해 11월 통감부에서 사법청(司法廳)을 개설하여 사법권이 일체에 이양되자 사직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2 동해를 밟고: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인 노중련(魯仲連)은 진시황이 천하를 차지한다면, 동해를 밟고 바다에 몸을 던져 진시황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3 비사막(費思邈): 비스마르크(Bismarck, Otto Eduard Leopold von, 1815~1898). 프로이센에서 지방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61년 빌헬름 1세의 총리가 된 뒤 철혈정책(鐵血政策)을 시행하여 프로이센을 부강하게 하였다. 1864년과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이어 1870~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독일을 건설하였다. 이후 1871년 통일독일의 총리가 되어 90년까지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당시 유럽에서 독일 공업을 가장 발전된 수준에 올려놓았다.

喚國魂於既亡.	이미 망한 나라에서 국혼(國魂)을 불러 일으켰네.
嗟余生之慚愧兮,	아! 이내 삶의 부끄러움이어
其將終此獨彷徨	장차 끝내 이와 같이 홀로 방황하며 슬퍼할
而悒悒.	것인가?
臨長風而噓唏兮,	긴 바람 맞으며 흐느끼나니
山河悽其若泣.	산하도 구슬피 우는 것 같네.
嗚乎夔之已深兮,	아아! 재앙이 이미 깊었거니
天方怒而赫然.	하늘은 바야흐로 엄하게 노했다.
余小子之愚駭兮,	이 내 몸의 어리석고 우둔함이어
惶戰中而望天.	두려움에 가슴 속 떨며 하늘만 바라보네.
乞上帝之玉座兮,	상제(上帝)의 옥좌 앞에 비옵나니
子雖惡其可殺.	자식이 비록 악한들 죽일 수 있으리이까?
庶悔禍於今日兮,	행여 오늘날에 잘못을 뉘우치게
默啓衷而使活.	묵묵히 속마음을 깨쳐 살아나게 하소서.
天漠漠而不答兮,	아득한 저 하늘은 대답이 없고
惟日色之西流.	해는 서녘으로 기울어 가는구나.
風蕭瑟而波譎兮,	바람은 쓸쓸하고 물결은 일렁이는데
噤無聲而垂頭.	소리 없이 입 다문 채 고개를 떨구네.

※ 중국의 충신 노중련,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이태리의 공화제통일을 주장했던 마치니 등의 실명을 거론하여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자기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자기표명이었다.

4 마치니(麻志尼): 마치니(Mazzini, Giuseppe, 1805~1872). 1831년 자유·독립·통일을 표방하는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하여 공화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창하였다. 나폴레옹 지배체제의 몰락 후 사르데냐 왕국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여 통일공화국을 추구하였으며,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해외로 망명하여 공화제 국가를 만들고자 투쟁하였다. 그의 공화제통일론은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그가 보여준 불굴의 신념과 행동은 국가통일기의 초창기 각국의 청년층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3. 변호사 개업

1910년 10월 1일(22세) 변호사를 개업한 것은 약자를 돕는 일이라는 친구의 권고 때문이다. 그는 서울 중부 황토현 23통 3호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고, 모교인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술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업도 제대로 계속할 수 없어 집어치우게 되었다. 이때의 사정을 정구영(鄭球映)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산강(山康)을 향해 일인(日人) 대선배 판사 요꼬다(橫田俊夫)가 ‘기미’ (군(君), 우리말로 자네)라고 부르자 화가 난 산강은 짐짓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요. 가까운 사이에 부르는 애칭이라고 답하자 선배판사에게 자기도 그렇게 불러 골탕을 먹었지요.”

일제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내포된 일화라 할 것이다.

1910년 2월 안중근 의사의 변호를 위한 한성변호사회의 대표로 선정되었으나 당국의 불허로 좌절되었다.

4. 해외 망명시기 1913~1919

변영만은 1913년 후반 25세의 나이로 이름도 변수중(守中)으로 변성명(變姓名)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망명 이유는 국권피탈후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불만과 중국 문화와 인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1)

원세개(위안스카이, 袁世凱) 정권의 총통부에 얼마간 근무하였는데 그 계기는 총통 원세개와 세교가 있었던 이시영(평양관찰사 역임, 신흥무관 학교 설립자, 광복후 초대부통령 역임)과 동생 변영태(신흥무관학교 출신, 광복후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역임)의 주선 내지 관련성에 연유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2)

1914~1916 중국 원세개 계열의 황종일보사의 서무로 근무하며 기사도 게재하였다.

1915년 5월, 일본과 원세개 정부가 비준한 '21개조 요구'와 관련하여 일본을 비판한 기사를 집필 게재한 바 있다.

이 당시 서구문물의 수용보다 국수주의적 전통을 강조한 중국학자 종빙린(章炳麟)을 접하게 되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1917년 북경 일일신문사로 옮겼다가 1917년 8월 싱가포르로 가서 유럽으로 가려다가 때마침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행을 접고 중국 상해와 북경으로 돌아와 있다가 1919년 7월경 귀국하였다.

(3)

변영만은 북경 체제중 독립운동에 직접 참가한 일은 없지만 북경 체제 기간 중에 만난 사람의 면면을 보면 독립운동에 일정부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1915년의 북경에 거주하고 있던 단재 신채호와 교류했다. 신채호와는 어릴 적 수당 이남규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바 있다.

산강과 단재의 교분에 관한 수주의 회고담을 소개한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는 우리 옆동네인 삼청동에 살았는데 집에 자주 놀러 왔었다. 와서는 형님(산강)과 더불어 골이 깨지도록 글 이야기

아니면 기울어지는 당시의 나라일을 격양된 어조로 밤을 세워 떠들곤 하였다. 하여간 형님과 단재는 더할 나위 없이 친하였고, 그 무렵 두 분의 명성을 누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산강이 지은 《世界三怪物》과 단재의 《을지문덕》, 《이태리건국 3걸전》 등은 안국선의 《禽獸會議錄(금수회의록)》과 백당(白堂)의 《幼年必讀(유년필독)》 등 과 더불어 에누리 없이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렸던 것이다. 모두가 풍자와 사적(史績)과 필수 상식의 책들이었다.”

1916년 말 김구식(임시정부 부주석), 조성환(대한제국 장교 출신), 이종호(보성 전문 설립자 이용익의 손자) 등과 만났다.

1917년 8월경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갔다가 홍명희(소설 임격정 저자, 북한내각 부수상), 전원택과 교유했다.

(4)

사생활이지만 1916년에 6년 연상인 윤정원(윤효정의 딸로 한국과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유럽에서도 수학하였다가 한성 고등여학교 교수도 역임한 흔치않은 인테리였다.)과 일정기간 동거생활을 하였고 서양문화를 현지에서 체득하려고 유럽으로 가려고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5)

1919년(30세) 7월경 귀국

(6)

변영만이 중국에서 보낸 6년 가까운 시간은 적어도 그에게 두 가지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 하나는 국내로 돌아온 뒤에도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문필가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중국 경험은 동양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절충을 도모하게 되었다.

스물다섯에서 서른하나의 시기를 중국에서 보낸 그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보완적임을 뒷날 이렇게 토로하였다.

子當無師而自習英文，由英文而汎讀西籍，脚水反復而不置者，已十年于慈矣。而因以亦得至大之樂於其間焉。東海之聖西海之聖，其心性術志，未當不一，而東海之文西海之文，其聲光神味，未當不可以交相發明也

나는 일찍이 스승이 없이 스스로 영문을 익혔다. 영문을 통해 널리 서양 서적을 읽으면서, 읊조리고 반복하여 그만두지 않은 지가 이미 십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또한 지대한 즐거움을 그 사이에서 얻게 되었다. 대개 동양의 성인과 서양의 성인은 그 심성과 술지(術志)가 일찍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동양의 문장과 서양의 문장은 그 성광(聲光)과 신미(神味)가 일찍이 서로에게 발명될 수 있지 않음이 없다.

-〈사사로운 기록(私記) 중에서〉, 《변영만전집》 상권 568면 중권 338면

5. 귀국 후 변호사 활동 1919~

1919년(31세) 7월경 북경을 떠나 귀국한 뒤의 변호사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1920년(32세) 10월 '북경국제변호사대회'에 허헌(許憲), 정구창(鄭求昌) 박승빈(朴勝彬) 등 30여인과 조선변호사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일본인 변호사들과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② 1922년(34세) 《신천지》, 《신생활》 필화사건 공판에 최진(崔鎭), 박승빈(朴勝彬, 법률가·교육자·국어연구가), 허헌(許憲, 변호사·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일성대학 총장, 북한최고인민위원회의 의장), 김찬영(金瓚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였다.

③ 1927년(39세) 유림단 사건 공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다.

6. 귀국 후 문필 활동과 사회 활동

(1)

1919년 무렵에 귀국하여 한동안 경성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하였고, 한학과, 영문학 연구에 매진하였다. 보성전문학교, 불교전문학교 등에서 한학을 강의하였고 1920년대에 《동명(東明)》, 1930년대에 《동아일보》 등에 글을 발표하였다.

(2)

1900년대 최고의 유림 밑에서 갈고 닦은 변영만의 한문 문장력은 특출했다.

일제 치하에서 법조인으로 일할 맛이 나지 않아 묘지명 등 난삽한 한문

문장을 지어주는 일로 소일하기도 하고 영남의 거유(巨儒)들과 교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는 한문학자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청빈의 녹음〉(동아일보, 1936)에서 그는 마르크스와 아인슈타인을 청림의 위인 사례로 삼기도 했다. 전통 유림층에서는 그의 문장에서는 '서양 냄새' 가 난다고 비아냥거렸으나 변영만은 스스로 셰익스피어, 괴테의 글에서 '신묘한 경지' 가 있음에 반했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3)

그는 어디에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자유주의자의 기질, 그러면서도 민족적 긍지와 책임감을 자신의 존엄에 일치시키고자 했던 선비의식, 동양의 지적 전통을 확고하게 터득한 자로서 서양의 문학과 사상을 자유롭게 섭취하여 지적 융합을 제대로 이루려는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진 위에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길을 걸어갔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세계삼괴물》, 《20세기의 참극 제국주의》 외에도 《단재전》, 《산강재문초(山康齋文鈔)》, 《이상한 동무》(한글소설) 등의 저술이 있다.

(4)

또한 신문 잡지에 발표된 글로는 〈흑문〉(《개벽》39호, 1923.9), 〈동장병린(東章炳麟)〉(《개벽》40호, 1924.10), 〈문학오강(文學五講)〉(《여명》1호, 1925.7), 〈문예납잡담(文藝雜談)〉(《문예월간(文藝月刊)》1호, 1931.11), 〈

시새전(施賽傳)〈《동광(東光)》 1932.9), 〈취 무서워하는 사람〉(《조광(朝光)》 1936.6), 〈손돌(孫覿)의 승천(昇天)〉(《조광》, 1937.10), 〈동키호테와 산초판사〉(《조광》 1937. 10), 〈법의학 대가 롬부로소의 천재론〉(《조광》 1937.4) 등이 있다.

(5)

아래에 산강의 문필 활동의 대략을 추려 보았다.

① 1923년(35세) 성사동인(星社同人; 김찬영(金瓚泳), 진학문(秦學文), 김동성(金東成), 홍명희(洪命憲), 정인보(鄭寅普) 등)과 개성에 놀러감.

이 해 집중적으로 《동명》에 영국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 3편,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작품 2편 등 수필류의 글을 발표함.

② 1924년(36세) 최남선이 창간한 《시대일보》 논설반 담당.

③ 〈傷李婦安氏(상이부안씨)〉

1924년, 변영만은 〈상이부안씨〉라는 전근대적인 문체인 한문산문을 통해 식민지시기 근대 노동계급의 비극적 삶과 죽음을 서술함으로써 근대와 전근대를 넘나드는 문학적 진정성의 경지를 만들어냈다.

근대적 사태를 전근대적 한문을 통해 서술한 것은 전근대 한문학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며 동시대 한글 문학 작품에서도 유사한 경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 변영만의 〈상이부안씨〉는 도시변두리 빈민인 안씨부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 사태와 그런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안팎을 어슬렁거리는 변영만의 산책길이 서로 교직되어 즐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도시의 화려함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애의 광경에서부터 도시 변두리의 황량한 무덤 그리고 빈민촌의 참상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은 근대도시가 떠안고 있는 괴리감과 노동자 안시 부인의 참극은 근대도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全文은 자료집에 수록한다)

④ 1928년(40세) 중앙불교 전문학교 강사

《여명문예선집》(여명사)에 <문학오강(文學五講)> 발표

⑤ 1929년(41세) 석전(石顛) 박한영(朴漢永, 승려시인, 초의선사의 법제자,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의 환갑에 글을 씀.

⑥ 1930년(42세) 가을에 성순영 등과 중국 소주(蘇州), 항주(杭州) 여행

⑦ 1931년(43세) 《동아일보》에 <색안경>(3.24~5.19), 《조선일보》에 <파심어>(5.23~6.24), 연재 시조도 이 해에 집중적으로 발표함.

⑧ 1932년 (44세) 《동광》에 한문소설 <시새전>과 그것을 번역한 국문소설 <이상한 동무> 연재. (<시새전>을 자료로 덧붙인다)

⑨ 1936년 (48세) 부친 이정(彝庭) 변정상(卞鼎相) 서거.

⑩ 1936년 3월18일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의 사십구재를 맞아 자기 집에서 제전(祭奠)을 차림.(아래에 단제를 애도한 글을 실는다.)

<신동아>에 <관생록> 발표.

이후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몇 해 뒤에 서울로 돌아옴.

단재(丹齋)를 애도함 < 1936.2.21. 신채호 별세 >

有報終斯報，
三千海嶽嘖。
翦鴛天醉久，
漫欲叫蒼旻。
(其一)

소식이 있다더니 끝내 이 소식이었던가
삼천리 바다와 산악도 쟁그리네.
전순(翦鴛)⁴⁹의 하늘 취한 지 오래인데
부질없이 푸른 하늘 향해 울부짖고자 하네.

羣雀厖冥晝，
白宵來鶴鳴。
盡情成獨往，
何干斃後名。
(其二)

참새들 어두운 대낮에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하얀 밤에 날아온 학 울고 있더니
정(情)을 다하여 독왕(獨往)⁵⁰을 이룩했으며
어찌 죽은 후 이름이야 상관하랴?

燕館重逢夕，
暫同燈燭光。
何曾疑復合，
從未視加詳。
(其三)

북경(北京) 한 여관에서 다시 만났던 밤
잠시 등촉 불을 함께 하였지.
어찌 일찍이 다시 만날 것을 의심했으랴
그때 자세히 보기조차 하지 못했네.

49 전순(翦鴛): 별자리.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昔者，大帝悅秦穆公而觀之，鑿以鈞天廣樂，帝有醉焉，乃爲金策，錫用此土，而翦諸鴛首。”라 하였음. 여기서 순수(鴛首)는 성좌(星座), 즉 별자리로 중국에서는 남방 하늘에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천제가 진무공(秦穆公)에게 땅을 내려주었다고 하여 진지(秦地, 진나라 지역)를 가리키기도 한다.

50 독왕(獨往): 홀로 자신의 길을 간다는 뜻. 단재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6) 일제말기의 은거

일제 강점기 말기 지방의 사찰과 여동생 집 등을 전전하였으며, 그 후 동생인 변영태와 고향인 부천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보냈다. 그와 홍명희, 최남선(혹은 정인보) 세 사람을 일컬어 ‘경성삼재(京城三才)’라고도 불렀는데, 뒷날 최남선이 변절한 후 길에서 만나도 외면해 버릴 정도로 의절하였다.

시새전施賽傳

변영만이 1931년 저작의 가전체(假傳體) 풍자소설로 작가 문집인 《산강재문초(山康齋文鈔)》에 실려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글로 된 창작소설 《이상한 동무》를 동광(東光)에 연재하였다.

이 작품은 ‘시시덕이 등을 타고 새침덕이 골로 빠진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에서 취재하여 시시덕(施時德)과 새침덕(賽沈德)을 의인화한 이색적인 작품이다.

【줄거리】

시시덕과 새침덕은 서울 태생으로 서로 친하였으나 성격이 서로 달라서 시시덕은 웃지 않은 적이 없고, 명랑하지만 실속을 차릴 줄 모르는 인물이고, 새침덕은 침울하면서 음흉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둘 다 중년에 아내를 잃었는데 시시덕의 아내는 굶어 죽고, 새침덕의

아내는 우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둘은 새로 장가를 들려고 물색하는데 시시덕이 아내감을 정하면 새침덕이 이간질을 하여 가로채어 살다가 내버리곤 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자살한 여인도 있어 이를 안 임금이 진노하여 둘은 함께 도망을 다닌다.

두 사람은 여기 저기 전전하다가 관북지방 어느 고을에 숨어들어 셋집을 내어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새침덕이 혼자 나갔다가 돼짓살 한 덩이와 술 한 병을 가슴에 품고와 둘은 한바탕 배불리 먹어 치우니 이때 그 이웃 집에 은가락지가 없어졌는데 새로 들어온 이들에게 혐의를 갖는다. 결국 새침덕의 짓임이 밝혀져 하옥된다. 시시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재취장가를 들어 자식도 얻고 행습도 고쳐 떠들며 노는 것을 삼가고 말수도 적어졌으며 살림도 윤택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착한이에게 도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새침덕은 옥중에서 몰래 여자죄수와 정을 통하다가 그 여자가 다른 남정내와 사귀는 것을 시기하여 독을 타서 죽이니 마침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

작자는 작품 말미에 <야사씨왈(野史氏曰)……>이라는 찬(讚)을 붙여 남산에 올라 이들이 살던 곳을 바라보면서 20년 전 이들이 노닐던 풍류를 상상하였다 한다.

이 작품은 1931년 작인데 그 내용은 200년 전을 대상으로 삼았고, 조선 후기에 유행되던 전(傳) 양식을 모방하여 지었다.

한문으로 된 시세전이나 특히 한글로 된 이상한 동무를 소리 내어 읊조려 보면 서도타령의 애조(哀調) 가락이 연상되어 사뭇 가슴에 와 닿는다.

7. 해방 후 사회 활동 (1)

- ① 1945년(57세) 8월 해방을 겪고 10월 명륜전문학교 교수로 취임.
- ② 1946년(58세) 3월1일~9월30일 명륜전문학교 교장, 이후 성균관대학 기성회원, 성균관대학교 설립 이후 1950년까지 이 대학 교수로서 한문학을 강의하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출강하기도 하였음.
- ③ 3월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에 관여함.
- ④ 1947년(59세) 한국불교거사림(韓國佛敎居士林) 발기인으로 참여. 이 해 《민중일보》에 <뇌음증계록>(10월 29일~이듬해 1월까지)을 연재함.
- ⑤ 1948년(60세) 12월 21일 민족정신양양전국문화인총결기대회 고문.
- ⑥ 1949년(61세) 환갑을 지내고 진주와 동래온천 일대를 유력함.
- ⑦ 1950년(62세) 5월 24일 반민족행위특별재판위원장(대법원 임시특별부)으로 최남선을 심리하였다.

산강과 육당 사이에는 빼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해방 직후 어느 날, 명륜동 거리에서 육당과 마주친 산강은 못 본 체하기가 뻘뻘해서 “신수 좋군!”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육당이 “덕(德)이 있어서……”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산강이 얼른 “덕은 영국말 덕(dog)하고 통하지!” 육당은 얼굴이 빨개져 휙 달아나고 말았다.

육당이, 일본이 세운 괴뢰 정권인 만주국의 건국대학에 교수로 갔던 것과 우리 겨레를 일본 신화 속에 나오는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아우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등 철저한 부일(附日) 행위를 한 일을 빗대어 ‘德’과 ‘dog’의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해 날카롭게 꾸짖은 것이다.

6·25전쟁 발발 후 부산으로 피난

⑧ 1952년(64세) 대법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⑨ 1953년(65세) 호국역경원(護國譯經院) 발족에 참여

⑩ [별세] 1954년(66세) 환도 후 정릉천 재건축택에서 살다가 12월 18일 별세

24일 고향에서 영결식. 묘소는 부천시 고강동 뒷산 언덕 뒤에 삼형제가 나란히 묻혀 있다.

변영만(산강, 山康) (1889. 6.23.~1954.12.18. 66세)

변영태(일석, 逸石) (1892.12.15.~1969.3.10 78세)

변영로(수주, 樹州) (1899.5.9.~1961.3.14. 64세)

⑪ 1955년 5월 24일 조계사에서 추도회 열림

⑫ 1957년 경남 창원에서 《산강재문초》 1책이 간행됨

육당 최남선이 산강을 애도한 시조 한 수를 신는다.

世紀의 三怪物을 萬人 앞에 끌어내어
앞치고 뒤치어서 肝臟속속 들어내니
一少年 腕頭筆端에 鬼神있다 하니라.

名世의 '施襄傳' 도 나는 똘타 아니호라
華國의 큰 솜씨를 부러본 적 없을망정
구구한 一序戲文字 數에 칠 줄 있으랴.

爲堂이 없어져도 山康 남아있다 하여
天下의 글 받음이 해매는 일 없을테니
이제야 一代虹光을 어디 찾아보리오,

제1연에서 '一少年(일소년)에 鬼神(귀신) 있다' 는 얘기는 변영만이 약관(弱冠)의 나이에 《이십세기삼괴물론(二十世紀之三怪物論)》이란 책을 간행하여 처음 문명(文名)을 날린 것을 말한다고 육당(六堂)은 적었다.

제2연에 대하여는 변영만이 “일찍 ‘새침떼기 골로 빠지고 시시덕이 재를 넘는다’ 는 속언을 의인 소설화하여 세(世)를 조(調)하니 인(人)이 그기(奇)를 일컬었다” 라고 육당은 적고 있다.

제3연에서 육당은 변영만을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와 함께 ‘현대의 대표적 한문작가(漢文作家)라고 적었다.

- 동아일보 1964.12.23

8. 해방 후 사회 활동 (2)

원래 천성이 그러해서였는지, 일제하에서의 법률의 왜곡과 법률가의 수난이 진절머리가 나서였는지, 산강은 해방이 되자 대학으로 들어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산강뿐만 아니라 3형제가 모두 대학교수가 되었다.

산강과 막내 변영로는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되어 국학과 영문학을 가르쳤고, 둘째 변영태는 중앙중학 영어교사에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수로 취임하였다. 산강은 법률가로서 보다 뛰어난 학문적 재능으로 명강의를 하여 인기가 높았다.

변영로의 둘째아들 변공수(卞恭秀: 한국투자금융 부사장)는 백부인 산강에 대해, “큰아버지는 본래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신 분이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 부친도 그분을 학문적으로 존경했지요. 방랑을 하시면서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성균관대에 보낸 당신의 사표(辭表)가 그

렇게 독특한 필치에 명필일 수가 없다고 하시고 손수 요리까지 하시는 미식가(美食家)에, 농담을 하시면 사흘 후에야 깨달아 웃음이 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백부님은 명정(醞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함) 풍류(風流) 면에서는 부친(변영로)과 공통되었습니다.

생활은 곤궁하셨지만 청빈낙도로 일관하셨지요. 또 멋을 존중하는 생활 태도로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저속한 말이나 보통 유행어를 써도 난리가 났지요.

그렇지만 중국 요리의 권위자인 미식가에, 농담을 하시면 사흘 후에야 깨달아 웃음이 나오게 하는 멋진 유모어 감각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생활은 가난해도 속으론 귀족적인 프라이드를 지니셨달까요.

그러나 백부님은 이해 못할 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어린 조카들이 단칸방에 들어가면 먼지가 난다고 몇 시간이고 끄적달씩도 못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시는 결벽증이 있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증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산강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다시 법률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정부 수립 후 반민족(反民族)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 지시에 의해 이 위원회의 활동이 유야무야 되었다. 변영만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정구영(대한변협회장, 공화당 의장)은 산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산강은 법관 선배로 일제하 판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직무 중에까지 맞서는 체질적 항일관(抗日觀)을 지닌 데다 출중한 한학자여서 해방 후 영남의 유생들에게도 거유(巨儒)로 추앙 받아 피난시절에 모비, 정자의 현판을 써 주기에 바빴었다.

정부 수립 후 반민특위 위원장, 대법관을 지낸 산강을 나는 6.25사변 때 공산치하에서 한강을 건너다 만나 깜짝 놀랐었다.

잡히면 당장 죽게 될 판에도 유유히 “애, 소주 좀 사다줘” 하는 부탁을 할 정도로 여유 만만이었다.

9. 맺음말

(1) 법률가

산강 변영만은 한말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일찍 중국 대륙에서 전문을 넓히고 세계의 돌아가는 물정을 잘 알면서, 낙후된 한국 법률과 법학의 근대화를 위해 선각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법률가였다.

민족의식이 투철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법률을 포기할까 하다가도 억압받는 민족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한계를 절감해서였는지 법률직을 그만두고 대학교수가 되어 국학 진흥에 헌신하려고 했다. 그러나 탁월한 재능의 법률가는 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변영만은 대법관의 지위에까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적 변화와 수난 속에서도 이처럼 재능 있는 법률가가 현존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변영만은 그의 초탈한 문인상(文人

像)의 법률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 국학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괴팍하고, 기인(畸人)같은 산강이었다. 그가 우리나라 국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에 대하여는 한문학자 이가원(李家源) 박사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말 법률가로서 국학자로서 한국 학술사에 족적을 남긴 것은 실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변영만에게는 “우리나라 한문학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문장 대가”, “한문 고전을 기반으로 서양의 문학과 사상을 폭넓게 수용한 독특한 정신세계의 개척자”, “식민지 시대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지성”, “조선의 천재”, “회색 괴짜”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3) 한학(漢學)의 삼대천재(三大天才)

산강 변영만과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을 우리나라 근대한학 삼대천재(三大天才)라 일컫기도 한다.

또 일반적으로 서울의 한문학 내지 문장 대가로서 위당과 산강 두 분을 쌍벽으로 꼽고 있는데 그 체질은 상당히 다르다는 평이 있다. 위당은 유명한 중앙시환가의 자제답게 나라의 전고(典故)에 밝고 전통적 예절 관습에 익숙하였던 반면 산강은 서울 외곽 출신으로 일찍 근대 교육-법률 교육을 받았고 또 영문을 통하여 세계의 신지식을 흡수하였기에 옛 양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두 분의 생활과 문학에 그대로 반

영되었다.

김윤식, 유길준, 이광수, 정인보, 최남선에 대한 인물평

그는 한말의 대학자 김윤식(金允植)을 가리켜 일개 시골 훈장밖에 안 되는 위인이라 깎아 내렸고, <서유견문>을 지은 유길준(兪吉濬)은 한낱 기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몰아쳤으며,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 같은 사람도 짝은 텃지만 빼어나지 못한 인물이라 규정지었다. 또 위당(爲堂)을 보고는 그저 면무식(免無識)정도는 한 사람이라고,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은 머리만 컸지 속에는 시시결렁한 잡동사니들만 있다고 했다.

산강으로부터 면무식 운운의 호된 평을 들은 한국의 대학자 위당의 응수가 또한 결작이었다. “나니까 면무식 소리라도 듣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소리도 못 들어.”

김화진의 산강(山康) 평評

그러나 이러한 산강도 실학파의 대가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김화진(金和鎭) 같은 이는 산강이 연암보다 낫다고까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산강을 무척 아낀 그는 산강 1주기를 맞던 날에 “괴물, 너는 하늘로 올라가 있으니 좋을 거다만, 이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볼 데가 없으니 이 죄를 네가 어쩔 테냐?” 하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 박노순(朴魯坤) 씨의 말

그의 학문은 이토록 깊어, 영남(嶺南) 지방의 유생(儒生)들에게 거유(巨儒)로 추앙 받아 6.25 피난 시절에는 각처의 묘비명과 정자의 현판을 써

주기에 바빴었다.

山康의 겨레사랑 - 夢中美人

산강은 1931년에 '겨레의 임'을 그리며 읊은 〈夢中美人〉(조선일보 1931.5.27.)을 1947년 7월(문화2호)에 또다시 그대로 발표하여 그의 겨레에 대한 절절한 심정이 한결 같음을 표명하였다.

夢中衆者

—Three Sonnets Dedicated to the Unknown Lady in a Dreamland³

침침한 초당속이 홀연간 밝노라니
달같은 고은한분 은적없이 오셨어라
그누라 부를길없되 알면알듯 하여라

오백년 지난풍류 기억조차 微塵됐건
가고은 말없은채 兩人心事 兩人知를
두숨결 雷霆인듯이 맞방매질 되거라

垂柳나양 숙이시다 날빛처럼 쳐드실제
곱고도 엄한相好 보는눈을 분쇄할듯
목은罪 일시에생각켜 伏地叩頭 했어라

權一齋評曰, 描夢如畫, 筆參造化.

(4) 집필후기

1. 서울법대동창회는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산강 변영만 (서울법대 : 남상인 법관양성소 4회 졸업생)을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으로 현창한 바가 있다.

1974년 이래 서울법대 동창회 업무(사무처장에서 동창회장)를 담당하였고, 서울법대 100년사를 집필한 연고로 그 선정기를 작성한 바가 있다.

2. 2015년 2월하순에 부천문화원과 산강의 손자 변호달씨로부터 산강의 일생과 그 학문적 업적에 관한 글의 집필의뢰를 받았다.

처음에는 그 책임이 아니고 글 재주가 없어 이를 사양했으나 거듭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맡기로 하였다.

3. 집필을 함에 있어 1980년대에 <서울법대 100년사> 집필 자료로 수집된 산강 변영만 선생에 관한 자료 ①~⑥) 등과 중앙고등학교 한문선생이셨던 백아 김창현 선생과 중앙고등학교 선배인 변공수 선배(수주의 차남), 홍병표(남양홍씨 대종중회장)으로부터 들은 일화를 기초로 한데다 2006년 발간의 <변영만 전집> 상, 중, 하와 <세계삼괴물원본 고찰> (박병주 인하대교수), <상이부안씨>에 나타난 근대적 비극과 문화적진정성 (김진균 성균관대 교수), <1910년대 변영만의 해외 행적> (최기영 서강대 교수)의 각 논문과 서울법대 최종고 교수의 <한국의 법률가>등을 대본으로 삼아 소송서류 작성에 흔히 쓰는 <서보노-트>방식으로 집필하였다.

① 흘러간 성좌 (2) 변영만 편 (1966-임종국, 박노순 저 - 국제문화사 발행)

② <명가의 현장>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 (주간조선 1974.2.3.자)

③ <변문3가춘> (주간경향 2권11호, 3.23)

④ 한국의 명문 <변영태씨의 가보> (박로순)

⑤ 한국인물평전 <한국의 3소> 변영만편 (이병철) (1984.3월호 - 열매)

⑥ 서울법대 100년사, (2004년 필자 집필)

4. 위 논문 및 책자 발표자와 발행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法大人 選定記

卞榮晩 (法官養成所 4回)

산강(山康) 卞榮晩 선생께서는 190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시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내시다 1909년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일본 통감부로 이양되자 단호히 법복을 벗어던지고 변호사로서 독립운동을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시어 입술한 시대에 조국의 광복과 한국인의 권익옹호에 헌신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1921년 10월에는 조선변호사회의 대표로 중국 북경에서 열린 법대평양지역 국제변호사회회의에 참석해 일본인 변호사들과 격문을 털이시는 등 채찍질 항일관(抗日觀)으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셨습니다. 해방 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강단에서 국학을 가르치시며 뛰어난 학문적 재능으로 명강의를 펼치셨고, 정부 수립 전후에 반민족(反民族)행위자처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대법관에도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문집 <산강재시문초(山康齋詩文稿)> 등을 통해 천부적 위트와 독설을 보여주시며 한국 학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높은 지평의 지식인으로 낙후된 한국 법률과 법학의 근대화를 위해 선각자적으로 행동한 시대의 양심이셨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을 염원하신 선생의 강인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참선비로서 삶의 족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선생의 소탈한 삶은 우리 서울법대인의 훌륭한 귀감이기에 '자랑스러운 서울法大人'으로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會
會長 辛 永 茂

■ 자료

(1) 世界三怪物세계삼괴물

미국 시물가덕문 원저

한국 변영만 의역

[광학서포, 1908.3 발행]

제사(題辭) 이기찬

서(序) 신채호

(2) 傷李婦女氏상이부안씨

[갑자 중춘(1923.음2)]

옮긴이 정은진

(3) 施賽傳시새전

[신미 중동(1931)]

옮긴이 손혜리

【편집자 밝힘】

이 자료는 《변영만 전집》(상), (중), (하)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원 편]에서 발췌하였다.

(1)

世界三怪物

美國 斯密哥德文 原著

韓國 卞榮晚 意譯

題辭

天生斯民，有國有治。國體各殊，治道亦異。在昔未開，人心淳良。其塗雖百，要在率常。而自近世，三怪出現。逞凶逞毒，無惡無善。始於泰西，漸於亞東。愚者奪魄，猶流趨風。於乎卞君，是瞿是喟。乃述此書，詳說其怪。本狀莫逃，眞面始露。鑑此應彼，庶無大誤。凡世之人，慎勿忽諸。撮其概意，於是乎書。

隆熙二年 三月一日 李基燦¹

1 하늘이 세상 사람을 낳아
 나라가 있고 다스림이 있게 하였네.
 나라의 체제 각기 다르고
 다스리는 법(法) 또한 같지 않다네.
 옛날 미개(未開)할 적엔
 인심이 순량(淳良)하였네.
 그 길은 비록 갖가지이나
 요점은 상경(常情)을 이끄는 데 있었네.
 그런데 근세(近世)에 들어
 새 괴물이 출현하였네.
 흉악하고 독함을 드러내어
 악(惡)한 이도 선(善)한 이도 가리지 않네.
 태서(泰西)에서 비롯되어
 점점 동쪽 아시아로 퍼져오네
 어리석은 자 혼백을 빼앗겨
 흐름에 미끄러지고 바람에 따라가네.
 아이! 변군(卞君)은
 이를 두려워하고 이를 탄식하여
 이에 이 책을 지어

序

怪哉라, 卞君이여! 夫 西國에 종교·철학 등 書가 亦 多어늘 是는 不問하며 윤리·위생 등 실이 亦 備어늘 是는 不取하고 乃 此 세계 삼괴물 일편을 是究是譯하여 怪筆怪舌로 괴담을 樂道하니 괴재라, 卞君이여! 將全國人人이 惟 怪를 是尙하여 語語怪하며 事事怪하면 卞君이 於心에 始快乎아! 알 否否라. 無險無夷가 산하의 본면이며 無冤無親이 만물의 진상이며 無怪 無不怪가 卞君의 素心이로되 只 是 幻師作幻이 愈出愈怪하여 優者가 登壇에 劣者가 折角하고 강자가 張喙에 약자가 喪軀하여 인의도덕이 백기를 盡豎하고 神佛天龍이 悲悶을 空垂하니 즉 此 이십세기 금일은 전세계 인류의 戰兢臨履할 시대인데 維我 海東 일방에 數千載 閉門頑夢하던 형제는 尙 且 將開未開의 睡眠으로 朦朧一脫하고 괴물의 情態를 전연 不知하여 虎 狼을 狗로 狎하며 虎 蛙蜩을 蛇로 驚하여 彼勇은 太愚하고 此點은 太糊하니 愚 與 悞는 장래 괴물 腹中에 일룰 매장할 자라. 풍운이 참 변하고 白日이 晦黑일새 於是乎 卞君의 舌이 부득불 一怪며 卞君의 筆이 부득불 一怪로다. 禹鼎에 奸을 鑄하며 諸犀로 妖를 燭하여 人人이 怪物를 목격하며 人人이 怪腸을 手探하면 彼怪가 雖怪나 其怪를 莫施하리니 삼괴물 역자의 고심이 斯에 在하며 斯에 在한저! 解頤

그 괴이함을 상세히 말하였네.
본상(本狀)을 빠짐없이 잡아내
진면목이 비로소 드러났네.
이것에서 깨달아 저것에 대응하면
아마 크게 잘못되지 않으리.
못 세상 사람들이여
신중을 기하여 소홀히 넘기지 말라.
그 대강의 뜻을 파악하여
이에 이 책머리에 쓰노라.
용희(隆熙) 2년(1908) 3월 1일 이기찬(李基燦)은 쓴다.

書(我東 稗談)에 載하여 왈 “일 소년이 方夜 獨행터니 일 怪鬼가 突
 至하는데 髮은 丈餘나 披하며 口로 沙石을 토하고 앙? 앙? 앙? 하며
 來噉하는 狀을 作하는데 玉樞를 三復하여도 猶逼하며 星名을 歷數
 하여도 猶逼이라. 소년이 필사로 自分하다가 홀연 一策을 思하고 其
 鬢을 解하여 鬼髮을 效하며 其口에 沙를 含하여 鬼前에 噴하니 鬼
 呵呵笑하며 遂退라.” 하니 噫라! 我가 십년 이전에 解鬢 含沙려면
 괴물이 當初에 不來하였을지며 오년 이전에 解鬢 含沙려면 怪物이
 雖 來나 卽 退하였을지어늘 前車가 既覆에 後轍이 不戒하여 금일이
 有하였도다. 不仁者는 괴물이요 無厭者는 괴물이라. 彼 且 我의 酣睡
 를 乘하여 謝天謝地 不勝之喜로 踞牙張吻하고 耽耽前來하여 一飽에
 思充하나니 어찌 可畏치 아니며 어찌 可懼치 아닌가? 오호 독자여!
 괴물의 怪도 怪타 말며 역자의 好怪도 怪타 말고 爾 亦 惟怪를 是學
 하며 惟怪를 是夢하며 是嘖是效하며 是步是趨하여 此 지구상 黃白
 紅黑 千五萬萬 靈物이 일시 其頭를 扶桑半島에 齊回하고 大驚하여
 왈 “怪哉 怪哉라. 백두산 下가 是 제일 巨怪窟이요 靑邱 민족이 是
 제일 巨怪種이라.” 하여 세계 삼괴물 주인공의 名號를 我國으로 歸케
 함이 如何오?

隆熙 二年 三月一日 무에생²은 叙하노라.

2 무에생: 단재 신재호를 가리킨, 무에생(無甞生)은 그의 별호

세계가 불행하여 괴물이 有하니 是 괴물이 구라파주에서 잉태하고 19세기에 탄생하여 蔓延滋大에 四肆咆哮하매 茶毒이 증생에 遍하고 풍운이 일로 慘淡하는도다. 優者는 其力을 藉하여 도적의 刦殺을 逞하고 劣者는 其衝을 당하여 泡影과 같이 소멸하니 차후로부터 대지상에 장차 무수히 其 재산을 失하며 무수히 其 性命을 亡하고 독립·자유·평등이 다 괴물의 消磨한 바 될지라. 괴물괴물이어! 吾가 驚하며 畏하고 또 怨恨하노라.

怪物은 何를 指함인가? 實 富族政體며 實 軍備政策이며 實 帝國主義가 是라. 三者가 其名은 雖殊하나 其實은 相資相助하며 相生相成하여 其一을 缺하면 其 功用을 顯치 못하니 何者오? 蓋 제국주의가 아니면 富族이 신시장과 신물산을 得키 難하여 자본이 雖 厚하나 이익을 收치 못할지요, 且 軍비정책이 아니면 國家의 威權이 不張하여 해외에 廣大한 상권을 조종치 못할지니 如此하면 어찌 부족정체를 성립하며 또한 어찌 제국주의를 실행하리오? 고로 삼자가 호상 밀접한 관계가 有하고 피차간에 원인결과의 勢가 有한 바로 항상 정치가의 야심과 외교가의 毒手를 從하여 其 功用이 愈益 神明한 바라. 嗚哉 괴물이어! 其 酷烈한 風潮가 또 대서양을 橫渡하여 신대륙을 薰染하는도다.

19세기 이전에 구주에 兩 괴물이 有하니 일왕 常備軍이요 일왕 國敎院이라. 夫 억만 壯少의 人민을 聚集하여 實業을 荒廢하고 전투 살벌로 유일의 事業을 作함은 폭군의 병자하여 其 위세를 肆行하며 평화를 유린하는 바라. 其數가 愈多하면 其弊 愈甚하니 此는 상비 군의 제도가 文明의 장애를 成하는 바요 彼 정부가 一敎를 執持하여 國民을 유일한 崇信에 驅入하고 其 사상을 속박함은 其 常理에 위배 됨이 더욱 심한 바라. 연이나 兵이 散하여 農에 歸하는 制가 立한 후로 상비군이 滅하고 信敎 자유의 權이 有한 후로 國敎원이 廢한지라.

毒根이 既拔에 진화가 日隆터니 噫噫라! 舊怪가 方死에 新怪가 繼生하여 20세기 무대상에 인류를 殄滅하는 비참한 惡劇을 연출하는도다.

(1) 富族政體 (一名 金力政治)

20세기 세계의 대세를 좌우하는 자는 富族이라. 부족의 권력이 日로 증가함을 隨하여 국가사회에 其 영향을 及함이 愈益極烈하나니 其 결과의 유해함은 言을 不待할 바라.

식민지에 物산이 既 豊하고 시장이 又 廣하거늘 更히 제조의 교묘함과 운수의 편리함이 有한즉 부족이 其 자본을 投하여 多대한 이익을 수취하고 其 餘潤을 將하여 母本에 充하며 母本이 日大함을 隨하여 其 餘유이 愈益增加하여 一轉瞬間에 '트러스트'의 設이 有하나니 '트러스트'가 一設하면 세계의 大利가 자본가에 全歸할지요, 且 제이등 이하의 부족을 박멸하여 大지상에 장차 大부족이 아니면 즉 노동자되어 양자의 계급이 懸絶不同할지니 소수의 大부족을 제한 外에는 盡是 奔走不暇하여 근근히 一飽를 謀할 뿐이라. 인류의 전도가 어찌 公포치 아니하리오?

錢財가 근대에 최대세력을 有한지라. 曾前에 某家 歲入의 數가 왕궁에 過하매 영국 議院에서 此를 覈하여 日를 特立하고 其 축적의 과람함을 制제함도 有하였도다. 蓋 前世기 中에는 구주에 교회가 가장 권세를 占하여 其 人심 의 추부함이 日세를 경동하더니 幾時를 不經하여 錢財가 세계에 독보하는도다. 錢財乎여, 爾가 가히 세계의 聖神이 되어 人으로 하여금 승배케할까? 彗星也와 文詞也와 科學也와 工術也가 항상 이루어 共히 社會 中에 도전하매 每每히 승리를 爾에게 讓하여 茫茫大地에 다만 부족의 발호를 見하기에 至하니 人류를 위하여

실로 憂嘆함에 不堪할지로다.

‘錢財가 가히 법률을 造한다’하는 一語는 최근 諺言에 속한 바로 實據가 有한 바라. 가령 면세 一節로 논하여도 부족의 특유한 권리니 일개 護照를 執하여 海關의 상법을 紊亂하되 국민이 此에 如何히 하지 못하고 선거 시에 在하여도 전제가 일대 세력을 成하나니 미국에 서 의원이 매매를 公行하며 심지어 대통령을 선거함에 왕왕 賄賂로 求하는 事가 有하고 且 報紙는 輿情과 밀착한 관계가 有하여 여정이 보지에 발현하며 보지가 또한 여정을 高취하거늘 彼 부족이 언론의 權을 買하여 여정을 이동하는도다. 켈리포니아 동척의 철로회사는 其 權力이 정부에 遠駕하되 其 조종하는 자는 數 부족에 불과한지라. 其 勢燄의 성대함이 어찌 경탄할 바가 아니리오?

혹은 謂하되 生計學이 일로 발달하매 부족의 모리함이 또한 일로 교묘하나니 부족정체는 실로 생계학의 所植한 自然효과라 하나 自然 효과는 반드시 행복될 바 아니라. 吾人이 무력하면 已어니와 만일 유 력할진대 반드시 此를 摧折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부족의 자손은 반드시 驕奢淫佚함에 陷하여 其 품격이 부패하나니 足히 국사를 任치 못할지라. 금일 영국지주가 浪子에 不至한 자는 幸 히 大富가 아닌 소이니 然則 부족의 後昆이 반드시 其 지위를 영원 에 보유치 못할지라. 부족이 어찌 능히 하는 바 有하리오?

부족의 품질은 彼 公화정치와 더욱 不相容할 성질이 有하니 其 방 탕사치한 태도가 顯然히 民政의 정신을 害하며 民政의 도덕을 傷하여 왕가 귀족을 慕仰함에 一言一動이 숭배치 아니하는 바 無하며 혼선 치 아니하는 바 無하고 구라파의 일 高爵을 得함에는 비록 수단금을 擲하여도 不悔하는지라. 미주의 풍속은 敦樸으로 素稱하나 부족이 구 주 貴紳의 榮耀를 애모하여 於是에 舊國을 漸去하고 英倫(영국 런 던) 法巴(프랑스 파리)의 중에 投足하여 其 부호를 현양하며 희망을

경영하여 왕가 귀족의 간에 求廁하고 — 華冠을 得戴하면 悻悻自喜 하나니 噫! 어찌 如此히 비루한가?

(2) 軍備政策

怪哉라! 此 세계여! 富族의 권리가 대지를 조종할 뿐 아니라 군비 정책과 제국주의가 또한 其勢를 正得하고 서방대륙에 진동하여 종전의 평화대책과 大同主義를 일제 파괴하고 전세계를 殺戾 수중에 盡入케 하니 噫, 彼 歐人은 抑獨 何心고? 其或 문명의 정도가 太高하여 야만으로 更退함인가? 기독교가 인자로 천하를 導率하사 吾人의 康樂을 造造함은 세계의 大福이어늘 噫嘻라, 魔心이 항상 천리를 장애하고 兵刃이 항상 평화를 유린하여 無事의 천하가 전벌의 劇場을 遂成하였도다. 구주 국민의 군적에 入하는 자 歲로 其額이 增하여 농공업은 不爲하고 농공업으로 從生한 과실은 坐耗타가 些少 層節이 有하면 卽地에 전쟁을 개시하여 참경을 연출하나니 嗚乎라! 군비정책의 해독이 何時에 可已할까?

蓋 군비는 일국을 保維함에 불가결할 자위수단이라. 군비의 設이 어찌 일일인들 可無하리오? 전쟁이 원래 美事는 아니나 인류의 질서를 정돈하며 사회의 안전을 기도함에 별로 일종 공효가 有하나니 某氏가 嘗云하되 “戰事는 한갓 不虞를 應할 뿐 아니라 또한 가히 민심을 激刺하여 荒惰敗德함에 不至할지니 古 소위 天公의 인류를 도태하는 良機가 戰陣에 在하다 함이 실로 誣言이 아니라.” 하였으니 가히 전쟁의 眞義를 간파한 언론이라 칭할지르다.

모씨가 又 言하되 “戰事는 족히 인류의 복을 造하고 악독을 摧除할지라. 默示記에 세계 말일에 上帝子가 諸 천사를 率하고 橫刀上馬하여 마귀로 더불어 결전하여 其 醜類를 拿獲하고 其 기관을 파괴한

다 하였으니 전쟁이 惡事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니라.

혹은云하되 “구약전서는 일부 전투사이라. 카노온티쉬성에서 某族의 공격을 受하여 全城 남녀에 노소를 물론하고 도륙 殆盡하며 고대 蠻族이 一地를 攻勝함에 반드시 居民을 將하여 火에 投하며 鐵로 截하여 씨세라의 殺과 역악의 斬과 如한 者는 其 慘聲苦狀이 紙上에 躍然한다.” 한지라. 然이나 此를 可히 今日에 行할까? 유대인은 상제를 深信하고 疆圉의 의무를 포기하다가 強鄰의 侵한 바 된지라. 爲國禦侮함은 국민의 천직이니 다만 戰事를 臨할 時에 其 뇌중에 마땅히 세계승평의 희망이 有할지라. 如此하면 庶幾乎 殘暴에 流치 아니하리라.

혹은 又云하되 “기독이 병사를 찬미하여 전쟁을 신성한 事로 認한 바가 嘗有하였다.” 한지라. 然이나 基督의 意는 人으로 하여금 적개의 心이 有케함이요 人으로 하여금 살육을 行케함이 아니라.

人의 성음을 攻하여 其 거민을 殺하며 其 俘虜를 囚하며 其 궁실을 焚하며 其 재화를 약탈하여 彼等으로 하여금 不能自存하며 不能獨立케 한 후에 其心이 始快하고 심하면 其 餘勇을 鼓하여 敵人의 頤를 足蹴하고 凱歌를 奏하니 夫 彼等の 生命을 장해함이 비록 可快하다 할지라도 吾 성질 中에는 일종 잔인을 增하며 一종 驕傲를 增하며 一종 악심을 增하는지라. 其 소득이 어찌 所失을 憤하리오?

테니스가 크라임의 戰을 因하여 자신하는 一설을 作하여 曰 “태평이 速히 폐악을 生하는지라. 此 폐악을 除滅하는 者는 즉 戰事의 力 이라.” 하였으니 일체 전쟁이 皆然함은 아니나 또한 일고의 가치가 有한 一論이로다.

대지상에 國한 者는 其 정부가 전쟁의 준비가 無하면 其 국민은 威武의 정신이 無하여 문약 부패함에 必流할지라. 故로 軍비가 國家의 필요한 제도됨은 言을 不俟할 바나 彼 구주 各國은 軍비로써 토지를

양탈하며 인민을 살육하는 器具를 作하는지라. 어찌 其 本의를 失한 자가 아니리오?

군비정책과 정치상의 자유는 양자가 호상 消長하나니 羅馬人은 兵威가 盛대함과 帝權이 日張함을 인하여 노예에 永淪하고 法國 民政도 또한 君威의 大甚함을 인하여 제삼차의 顛覆이 有하였으니 만일 보뵈올랑거와 셀림덴의 勇往直前함이 아니던들 파리 금일에 專制家의 坐府가 되었으리라.

普魯士는 兵력을 藉하여 諸邦을 연합하고 外侮를 禦하여 일대 제국을 成한 자이라. 연이나 군비정책을 長守하여 其害가 現出하며 德人이 嘗言 曰 “군비정책은 我의 권리를 損奪하며 我의 언론을 箝制하며 我의 법률을 전도하고 노예로 동포를 驅遣하여 죄망에 入케 하다.” 한지라. 정부의 兵권을 張大함이 어찌 자유의 蠹賊이 아니리오?

(3) 帝國主義

천하의 공리에 最背한 자는 異族의 인민을 굴복함에 過할 자가 無하며 圓방의 토지를 점탈함에 過할 자가 無한지라. 蓋 疆역이 既 大하면 政策은 完전함을 필요하고 鉗制는 엄밀함을 필요하여 其 속박을 受하는 자는 宗신에 至하도록 생활의 취미를 상실하거늘 獨夫가 중앙에 坐據하여 生殺予奪의 權을 임의로 조종하고 兵이 多하여 民變을 可壓하며 帑이 足하여 淫佚을 可肆하나니 噫! 此等의 야만행색이 대지에 不絶하도다.

제국은 戰功을 由하여 成하나니 전공은 야만인의 嗜物이라. 야만인 의 同類를 戕害함이 맹호의 群羊을 攫함과 如하도다. 아시아인과 터키인과 몽고인과 韃靼人은 劫殺를 日肆하여 其 야만의 극도에 파괴 이외에는 他事가 無하고 사라센인과 스페인인은 비록 其 殺掠의

慘이 可痛 可恨하나 연이나 補救하는 바가 尙有하여 파피만 都事치 아니하였으며, 彼 알렉산더 及 羅馬王은 皆 文教의 사상이 無하고 一己의 존대만 務爲하며, 拿破崙에 至하여는 其 狼子 야심이 尤極 무공과 戰事를 기호하여 구주를 騷搖하였도다. 雖然이나 이상 諸族 諸人의 열렬한 기세가 而今에 安在哉오? 噫라! 판도의 광대함이 표면상에는 강대할 듯하나 또한 旋踵치 아니하여 쇠망이 相隨할 뿐이로다.

제국주의가 一成하면 何種 정체를 물론하고 왕가가 重權을 必握하니 前으로 아시리아 제국과 後로 나파룬 제국을 觀하면 가히 其 概를 得할지로다. 스페인이 外로 강역을 개척하여 內로 자유를 失하며, 미국이 非律賓을 굴복하여 總領權이 日로 大하니 嗚乎라! 瓦盛頓이 靈이 有하면 반드시 상심할지요 깨푸소가 재생하면 반드시 不樂할지로다.

미국은 구주 각국과 其 政법의 조직이 迥然 不同하거늘 만일 제국주의를 실행하면 민정의 원기가 변동하는 바 必有할지라. 독립포고문을 試讀하라. 18세기 세계상에 異樣의 광채를 放한 자는 是文의 力이다. 평등으로 體를 作하고 박애로 用을 作하여 '人이 人을 觀할치 못한다'하는 一語가 濼濼昭存하거늘 幾時를 未經하여 비울빈 군도를 스페인에서 구입하여 강제로 복종케 하여 其 생기를 摧抑하고 前途를 失絶케 하니 此는 미국이 대세에 被感하여 舊規를 不守함이로다.

미국이 세계 중에 在하여 최대수의 자유민을 有하고 其 국민의 산업이 北極으로 열대에 及하여 土의 생산하는 바 凡 인류에 要用되는 자가 畢備치 아니한 자가 無하며 제조의 貨物이 천하에 布滿하고 미주 전토에 關鍵되어 정치진화의 先聲을 樹하니 其 일거일동이 각국 政법상에 영향이 皆有하거늘 今에 其 주의를 변하여 隨波逐浪에 滔滔同化할진대 장래 인류는 가히 問치 못할지라.

근일 대지상에 이미 평화의 文教를 반대하고 국제의 德義를 蔑棄

하니 其 原委를 추구하면 명백히 다윈씨의 창도한 바 ‘適者가 存’이라 하는 일설에 기인하였도다. 歐人이 강자를 적자라 부회하여 타국을 전멸할지라도 我의 강력 응용으로 아의 독존만 구코자 하니 是는 當당한 인류로 금수의 상대를 學하는 자라, 천하에 斯理가 寧有하리오?

상업상의 야심이 제국주의의 일대 원인을 성하나니 歐洲에 제조가 민첩하고 화물이 충일하매 부득불 신시장을 구하여 기 銷路를 창달할지니 지나 금일에 상업전장을 已成한지라. 彼에 一旗를 樹하면 此에 一港을 開하여 地界를 점탈하고 화물을 운수하여 其 구매를 최촉하고 其 金을 攫去하다가 一朝에 소동이 有하면 戰殺焚燬로 其毒을 사행하도다. 미국은 仁厚의 풍이 尙有하고 제국주의의 독이 未深하여 지나에 대한 행동이 여차함에는 不至하니 是는 실로 可賀할 바라. 彼 南非 一役이 其 일편 정신인즉 상업을 확장하여 기지 광업으로 영인 장악에 盡歸케 함이어늘 吳쓰씨는 왈 “吾 英國旗는 세계의 일대 산업 이라.”하니 우라! 一嘆을 可發할지로다.

오호라! 세계를 敗壞하고 상업이 어찌 영원 발달함을 得하리오? 戰事의 費가 其 所得한 이익과 相償할 뿐이다. 전년에 비올빈 商利가 其 戰費에 較하여 손색이 反有하였으니 是를 觀하면 전비는 국민에 出하고 이익은 商家에 歸하는지라. 상가는 一己의 이익으로 식민정책을 喜行하나 國幣은 손상을 大受하는도다. 아담스미스씨 왈 “買客을 광구하기 위하여 제국을 건립함이 상업국의 便算이라 할지나 기실은 상업국의 편산이 아니요 其國이 상인정체를 必成하여야 편산이라 始稱할지니 피등의 정치가가 피등의 인민을 驅遣하여 其 재력 身血을 豐潤케 하여 피등의 제국을 成하면 피등은 혹 이익이 有하리라.” 하 나라.

아시리아인과 달단인은 전투를 好하여 전투를 言하며 살육을 好하여 살육을 言하되 人의 假借함과 自善을 矯造하는 言文이 毫無하

나今の 제국주의는 其 暴行蠻習이 극점에 도달하여 人性이 殆無하면서 猶且 其過를 文飾하여 曰 “짐가 天을 替하여 道를 行한다.” 하니 오호라! 其亦 險矣로다.

‘特別族’의 사상이 有한 후로 歐人이 輒曰 “앵글로색슨족은 천이 명하여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한 바라.” 하니 如此히 앵족으로 특별한 인종이라 하면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의무가 有하여 凡 일체 征戰平服이 分內事에 皆屬할지라. 연이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其 거민의 심장 枕맡은 셀스족이며 기타 加拿大에도 法蘭西人이 有하며 영국 각 속지의 민족은 더욱 혼잡 不一하고 미국에 至하여도 또한 일족 뿐 아니라 其國에 거하는 자가 육칠족이 有하니 是는 튜튼인이 비록 政권을 握하며 앵글로아이어리쉬족이 비록 강대치 못하나 앵글로색슨족이 어찌 세계 주인翁의 勢가 有하리오?

‘익스펜션’의 一語를 구인이 항상 오용하는지라. 蓋 ‘익스펜션’의 의의는 接壤한 토지를 연합하여 확충하는 바를 指함이요 수천리 外의 地를 併하여 통치함을 칭함이 아니니 진정한 ‘익스펜션’은 同洲接壤에 常在할지라. 彼 미국과 加拿大와 如한 자를 호상 통합하면 토지가 相接할 뿐아니라 民性이 또한 相合하여 其 소산을 各출하여 패익을 共圖할지니 例如 加拿大의 광물 産品을 미국의 제조로 완성하는 등이라. 其 이익이 顧何如哉아?

영국이 拿破崙 交戰한 후로 海군이 구수에 제일되더니 邇來 各國이 武備를 爭興하며 영국이 거의 其 위세를 保維치 못하여 於是에 전심극력한 結果로 愈益히 諸國에 卓冠함을 기도하나 兩軍을 합하면 倅히 相敵할지요 諸軍을 합하면 倅히 催敗할지라. 現今 열강이 海陸 권력을 經紀함에 頗力하니 英人이 만일 毒점을 謀하면 兵戎으로 相見할 뿐이로다.

凡 식민지 중에 토인이 必有하나니 強族의 毒手를 可免치 못할지

라. 식민정책의 제일사업은 野의 동물을 초멸함에 在하고 野의 동물 중 가장 해되는 자는 野人이라. 고로 식민지에 토인은 毒死·殺死·焚死·打死를 遭하고 소위 문명인은 於是乎 其 國旗를 樹하나니 토인이 만약 此를 항거하면 其禍됨이 더욱 忍言치 못할지라. 嗚乎, 慘矣로다!

'엠페이어' 즉 제국과 '엠퍼리' 즉 황제의 兩名詞는 羅馬부터 始한 바라. 羅馬의 제국주의가 세계에 曠絶하여 彼 拿破崙도 兒孫에 불과할지라, 판도가 宏廓하고 통할이 편리하여 제국의 盛軌를 세계에 震耀터니 오호라! 其 餘威遺烈이 渺然無存하고 카사스궁의 유지가 후인의 감회를 야기할 뿐이로다.

前 加拿大 총독 엘긴씨가 일 嘆辭를 嘗發하여 왈 "근대세계는 약육강식하는 일 살벌의 세계라 恬退함이 余와 如한 자는 子存키 難하다." 하니라. (이상은 著大意)

이상에 述한 바는 부족정치·군비정책·제국주의의 대강이라. 此 삼자를 至하여 괴물이라 名함은 無他라 세계에 毒害를 遭하는 소이니 吾人이 此 괴물을 극력 仇視하고 極력 摧絶함은 실로 천부의 양심으로 從生하는 당연한 事이나 今此 腥風血雨의 間에 在하여 고상한 이론만 주장하고 퇴수주의를 自甘함도 역시 不可의 甚한 자이니 何則고? 국가가 망하고 인종이 멸하는 소이라. 오호라! 대세를 試觀하니 其 亦 天矣며 其 亦 天矣로다. 금일을 당하여 국민의 의무가 어찌 중하고 또 難치 아니하리오? 惡의 首는 不願하나 敵의 禦는 甚急하나니 국민이 무실력 무능력하고는 도저히 亡滅의 참화를 면치 못할지라. 오호라! 彼 괴물이 張牙舞爪하고 其毒을 放肆하는지라. 괴물의 何者됨을 知할 필요가 어찌 無하다 謂하리오?

(2)

傷李婦安氏

甲子，仲春（1923）

余雅喜漶漫之，苟無事絆，往往獨自出門，穿巷披闔，茫無方向，惟足是聽，而及其所終，輒不在權儉恒熱之區。蓋如城表郊裔荒塚纍纍古楊蕭蕭之間，卽未必每至，而亦不外乎市末山隈窮屋丐窟，爲狀至慘沮，不堪寓目之境，而見吾雖未嘗決意必臨若地，而其隱望途之出此也，則似已無可如何矣。是心也，吾亦不自知其何心焉。既暮而返，所過燈光之中，多層樓廣院雄嚴輝赫之觀，明女姣童笑罵徙倚之狀，而余則目若望羊，一不辨樓院之何以異於塚楊，而明姣者之何以不同於窮丐也。非有能齊鬼人而一愁權也，感之有如此云爾。歸臥一室之中，淚氣不能去眼，而亦不勝慰滿之意焉。蓋深自信此行爲若不虛然也，如李婦安氏之死，有以發余之哀，無可與比，豈亦此之類也耶。有韓宗親德泉君後人李殷福之妻廣州安氏，以甲子二月某日，坐久病不治，死于京西門外阿峴里勒放橋之其夫家。年止二十六，遺一四歲孔子，殉於孝也。既云病死，曷又曰殉也。殷福之寡母夫人，爲余亡姊夫之嫂，因數往來吾家，故得其詳焉。夫人既喪所天，家勢亦久中落，洗然無所於資活，而殷福又失學，艱於居業，居亦累黜焉。安氏見此，遂奮然備其身於膏臙工廠者，膏臙西語，樹脂所煎成之物也。廠備多取婦女，言其事則至苦不堪爲云。安氏既奮然投身於此，用其所獲之無厚，以養其寡姑，得無至於凍餓，亦既累月矣。而體本緩弱，不任其役，願不止，益嘔心摧腸而爲之，竟致瘵癆，而又莫得

善藥以問之，則浸以綿歷，而遂終不免於折矣。謂之殉，宜也。嗚乎傷哉！方其暝時，其乳兒別室而寢，忽驚起望空，而若微喟者曰：“吾母衣善衣，何適矣。”兒則又久而不善言語，且不依戀其母，見謂者，亦可異矣。乃綴一辭曰：

憑蕪城而四望兮，天與地而相杳。

陽春暖而愁人兮，見高空之飛鷗。

哀安氏之無祿兮，何爲孝而忽拉。

奉雲裳而適帝所兮，豈云冥冥之有答。

公室仁惠而旣斬絕兮，繫士民之所嗚咽。

類有推而隨隕兮，世閱與皇社同其崩塌。

嗟淑女而丁此兮，曾不恥乎傭襍。

亦非其所樂兮，故呻吟而頽嗒。

判所愛而永逝兮，下視塵寰之迢遞。

雖云茲土無樂兮，靈尙少留詔邈邈。

이씨 집의 안씨(安氏) 부인을 애도하며

갑자년(1923) 음력 2월

나는 평소 부질없는 한가로운 걸음을 좋아하여 진실로 얽매이는 일이 없으면, 왕왕 홀로 스스로 문을 나서 거리를 뚫고 마을을 헤치며 아득히 목적지도 없이 오직 발길에 내맡겼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은 번번이 기쁘고 즐거우며 환하고 떠들썩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 대개 성의 바깥, 교외 자락의 황폐한 무덤이 웅기종기 있고, 오래된 백양나무가 쓸쓸한 사이와 같은 곳은 반드시 매양 이른 것은 아니었으나, 또한 장터의 한쪽 끝, 산모퉁이의 곤궁한 집, 거지의 소굴, 그 모습이 지극히 처참하여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내가 비록 일찍이 반드시 이런 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길이 이런 곳으로 가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을 보면, 이미 벌써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 마음은 나 또한 그 어찌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저렇 저물어서 돌아올 때 지나는 등불 사이로 높은 누각과 넓은 집이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광경과 아름다운 여자와 예쁜 사내아이가 웃고 장난치며 옮겨 기대며 바라보는 모습이 많다. 그러나 나는 눈이 마치 먼 곳을 바라보듯, 누각과 집이 어찌해서 무덤과 백양나무와 다르며, 아름다운 여자와 예쁜 사내아이가 어찌해서 곤궁한 이나 거지와 다른지 조금도 구별할 수 없었다. 이는 귀신과 사람을 능히 동등시하고, 근심과 기쁨을 한가지로 여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이 이와 같다고 할 따름이다.

돌아와서 방 한 곳에 누웠는데, 눈물 기운을 눈에서 그치게 할 수 없었으나 또한 위로되고 만족한 느낌을 이길 수 없었으니, 대개 이번

걸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깊이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집의 안씨(安氏) 부인의 죽음과 같은 경우 나의 슬픔을 감발시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대개 또한 아마도 또한 이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조선왕조 중친 덕천군(德泉君)¹의 후예인 이은복(李殷福)의 처 광주(廣州) 안씨는 갑자년(甲子年) 2월 모일에 오랜 병이 낫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울 서대문 밖 아현동(阿峴洞) 굴레방 다리 그의 남편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이는 스물 여섯으로 네 살된 젖먹이 아이 하나를 남겼다. 효(孝)에 순사(殉死)한 것이다. 이미 병으로 죽었다고 하고서 어찌 또한 순사라고 말하는가?

은복의 홀로된 어머니는 나에게 돌아간 자형의 수씨(嫂氏)가 된다. 이로 인하여 자주 우리 집을 왕래했기에 그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있다. 부인(夫人)은 이미 남편을 여의고 가세(家勢) 또한 오랫동안 영락하여 썩은 듯 의지하여 살아갈 곳이 없었으며, 은복 또한 배움을 놓쳐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웠고, 일자리를 얻는다 하여도 자주 거기서 쫓겨났다.

안씨가 이것을 보고, 드디어 분연히 고무공장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풀팔이를 하였다. 고무는 서양말로 나무 진액(津液)을 달여 만든 물건이다. 공장의 일군은 대부분 부녀자를 채용하였는데, 그 일로 말하자면 너무도 힘들어 견딜 수 없다고들 한다. 안씨는 이미 분연히 이곳에 몸을 맡겨 얼마 되지 않는 소득으로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열고 주리지 않게 한 것이 이미 여러 달이었다. 그러나 몸이 본래 유약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도리어 그만두지 않고는 더욱 심혈을 다

1 덕천군(德泉君): 1397-1465. 조선의 2대 임금인 정종대왕의 아들로 이름은 후생(厚生), 시호는 적덕(積德)이다

하고 창자를 쥐어짜며 일하여 마침내 병들게 되었다. 또한 좋은 약을 얻어 치료하지도 못하니, 점점 병이 깊어져서 드디어는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순절이라 말해도 마땅할 것이다.

아! 슬프구나. 막 그녀가 눈을 감으려고 할 때 그의 젖먹이 아이가 만 방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 일어나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나지막이 한숨쉬듯 “울 엄마 좋은 옷을 입고 어디가세요?”라 말했다. 아이는 또한 오래도록 말을 잘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어머니를 의지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 이상하다고 하겠다. 이에 한 편의 말을 엮는다.

憑蕪城而四望兮，	황성(荒城)에 기대여 사방을 바라보니
天與地而相杳，	하늘과 땅이 서로 닿아 있구나.
陽春暖而愁人兮，	봄은 따사로운데 사람을 수심스럽게 함이여
見高空之飛鶴。	높은 하늘에 나는 비둘기를 보네.
哀安氏之無祿兮，	안씨의 복(福) 없음을 애도하노니
何爲孝而忽拉。	어찌 효성스러운 그를 홀연 데리고 갔나?
攀雲裳而適帝所兮，	구름 치마 건고서 상제(上帝)에게 가지만
豈云冥冥之有答。	어찌 아득한 하늘 대답 있을까?
公室仁惠而旣斬絕兮，	왕실 어질고 은혜로운데 이미 끊어졌으니
繫士民之所嗚咽。	아! 선비와 백성들이 함께 오열하는 바이네.
類有推而隨隕兮，	유(類) 대로 따라 넘어지니
世閭與皇社同其崩塌。	문벌 집안과 종묘 사직이 다 같이 무너졌네.
嗟淑女而丁此兮，	아! 숙녀가 이런 시대를 당하여
曾不恥乎傭櫟。	일찍이 품팔이에 잡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네.
亦非其所樂兮，	또한 즐기는 바 아니었으되
故呻吟而頽嗒。	굳이 신음하며 무너져갔네.

判所愛而永逝兮，
下視塵寰之途遠。
雖云茲土無樂兮，
靈尙少留韶邁邈。

사랑하는 이를 뿌리치고 길이 떠나며
먼지긴 세상의 뒤엎힘 내려다보네.
비록 이 땅에 즐거움이 없다 하나
영혼은 잠시나마 머물러 속세를 깨우쳐 주오.

<이상 정은진 옮김>

(3)

施賽傳

辛未，仲冬（1931）

施時德賽沈德，俱京人，其家系皆未詳。兩人者，相善也，遊處多共，飲食或至以一器，而其性情，大相馳也。其里人之常言曰：“日從西升，則施生之口閉矣。”又曰：“賽生笑，則石佛亦笑。”大抵施之為人，寬放而無建藏，喜浪言壯談，奇比怪喻，搖頭轉目，雖以是大蒙訕謬，而猶不自止。賽則終日俛眉觀席而已，不得已而言，亦財通一二句，其音又絕幽細，幾不可聽。以故人咸便賽之簡靜，而致厭施之所為焉。然人於施，概能釋其戒心，而還甚防賽曰：“此子也，必生事。”且合而論之曰：“比諸適山，施君循其脊者也，賽君沒於谷者也。循脊人皆見，沒谷，吁可畏哉！”兩人俱以中身喪配，固皆以天年，傳於外，而其實，施妻餓死，賽妻自投井。賽易服而微窄，大憾，以針密置其妻飯中。妻吞後悟之，此井之由來也。施於凡百無所諱，於針井事，不一口，為友也。亦自秘其妻狀，若深自羞貧然者。既皆餓，皆欲續娶，乃共周流域內外，廣物厥選矣。而凡施之所佳，賽必多方以兩毀沮之，而自委禽焉，已復棄之。如是者，至於四十餘戶，其憤而自殊者，亦往往有之。然而兩人者，無處不共往。於是，主上為之震怒，御營大將，宵不退食，邏騎四布，必欲得此一雙，而顯戮于大市，以快民心。兩人者，遂無枕首之所矣。時，歲比不登，且童謠曰：“羊狐同行，羊豪而狐佯。二八二八，慎爾垣墻矣。”又曰：“高之又高，終不登天，下之又下，終不入泉。”蓋騷然矣。乃用貨，而畫藏

酒肆之窟中，夜行於深山黑林，夔無人烟之地。而至此，雖施君，則亦不能不舍岡脊，而谷是趨。或自失笑，驚宿鳥，而賽低罵曰：“汝狂也。”亦時自微喟曰：“東門之室。”又或曰：“南村蓮堂。”思有所屬也。或俱并日不得一食，遇大虎觸盤蛇，其蹈危瀕死者數數。一夜月極明，共坐巖窟，語故事，始相知。施以十三歲，失寡母，無兄弟，其母嘗言，‘夢仰大松樹如蓋者，而有身。’賽亦遺腹獨子，四歲，母不知所往，因育於其舅。舅常罵，‘此子，後必凶死異鄉。’賽之開口，蓋以此夜，爲最多云。遂轉輾入於關北之一郡，僦屋以居焉。郡距京絕遠，莫有聞知也。賽故携若干貨，不同於施之一洗，至是，亦垂罄矣。於是，共捆屨易粟以活，而施獨多任其勞，賽則善自向壁爲午睡。一日，賽睡起，自語曰：“世稱南男北女，信不虛也。”施拋其藝，急向問賽曰：“君尚有餘勇存婚志乎？吾頭遽欲加白。觀世音菩薩，幸活我也。”賽頰曰：“豈謂吾哉？爲君耳。”施笑曰：“受賜已多，何敢復有所希？且今適閑，願有以卒陳衷曲。吾嘗從君之後，得廣覩佳麗矣，而吾心，恒以爲皆不如吾前妻者，非其貌之謂也。吾前妻，實賢而無祿，其中，有不可以忘之者，又有足追悲者焉。卽如蓮堂之女，吾嘗心誠愛之，不無意焉，既而追念舊者，悲痛不可抑。雖然，既其求之，不可以遁也。吾因陷於進退不得之地，君果察此隱痛與未，吾固不知，而幸君其時，第善爲說詞，以吾爲屠狗之子，謂吾有癩癩之疾，乃拔吾於絆，而君自娶之，得至兩便。此吾至今，尙德君於無已者也。然而君亦不永其愛，旋棄蓮堂，不特此也。於他女，莫不然。夫君前妻，於吾前妻，亦匹耳。然而君能卒掩君前妻於土中，而曾不能以三夕，自安於其後之華几紋席，則世謂君涼德，吾見君，亦能思舊矣。

設使吾而娶君之所娶，寧遂無早晚之別，要其終，亦君而已矣。故吾曹今日之計，飲啖而已，女不可談也。君將痛懲往愆，以救吾不逮，今又出言若是，無所可也。且北地，其風氣勁越，不與南并，苟污一室女，吾曹頭直碎矣。”施故多戲論，至此日，語頗懇摯，時及於咽，賽亦爲色沮，默然俯首而已。婚說遂寢。

一日，賽獨出旋，手一瓮，懷一壺酒而歸。施驚問：“從何？”則賽冷然，而微反唇曰：“吾曹，飲啖而已。”施不復問，然心怪之矣，亦共卒一飽。會，隣家有亡銀環事，求之無踪，羣疑，集於新至，而莫定其一也。則於是，兩人者，同束于官，官熟視兩人面，先問賽沈德曰：“爾之爲耶？”賽鞠躬曰：“不然，吾不爲此也。”“然則施時德耶？”施昂然答曰：“然，我也，非此友也。且吾罪，固不止此。吾嘗私密屠牛者，九十餘頭，汗人妻女者，三百五十家，嘗批季父頰，嘗折一老人脚。”施語至此，賽在傍，囁嚅而曰：“如是，則反不信。”時，施心中忙亂，未暇聞此也。復曰：“嘗放火七處，撲殺二十餘人，投宿逆旅，必味爽而遁，常携毒藥，遇井必納焉，亦嘗謀爲不軌，寫國君之像，而日以習射于北漢之山中者，三年有半。何銀環也？夫日有所不照，風有所不透，驢大鳴……”施語止此，賽切齒曰：“驢則又何事？”施始聞此，然，且續曰：“雙者，以爲驢欠也，七夫十士之女，隣里且以爲貞婦也，縣官報其名，監司請其旌，世固多有此屬。官安能盡知施時德罪哉？今日，天良閃發，盡承宿殃，甘受上刑焉。而無所怨，但願葬在千仞岡頭，以得稍近天光而已。”施身長八尺，眉目濶大，聲如鳴鼓，官爲之茫然者良久，已而，復問賽曰：“施說，是耶？”賽始爲慄，旋定，直視官面而曰：“餘不敢知，惟環事，則無疑。”官早有

所察，乃猛杖賽，而卒執其狀，下獄焉。於是，施知無可如何，且自悔言之太張，痛哭而出，待其友不得。久乃自歸古里，而前之追跡之者，亦既知其中曲折，不罪也。乃始續娶有子，習稍改，慎遊從，節言辭，產亦稍至於潤，人莫不謂善人終有佑也。賽在北獄中，密通囚女，猶京志也。猜其他交，下毒焉，烈於針矣。遂及於絞，而屍棄于谷，成舅言也。

野史氏曰：“余嘗之南山下，觀施賽所謂蓮堂者，堂在蓮池之北，其構固小，而亦幽絕，絕可愛。宅廢，惟此堂存，而欲想像二百年前，二子登游之風流，則死藕無言，悲風徒來，亦杳然矣。其時，堂主曰妙君，以十七歲，嘗拂賽子之枕席者，略有一旬之久，後乃沈池云。夫施子，固不惡，喜與賽子遊，要亦有咎。假使當日，爲邏騎所得，寧有玉石哉？困心歷危，晚乃有以自蓋也，此其幸耳。賽子無譏，今亦其徒不鮮矣。”

시새전(施賽傳)

신미년(1931) 윤력 11월

시시덕(施時德)과 새침덕(賽沈德)은 둘 다 서울 사람으로 그들의 가계는 다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서로 친하여 다니거나 머물 때에 대부분 함께 하였고, 음식을 먹을 땐 간혹 한 그릇에 같이 먹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은 서로 크게 달랐다. 그 마을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면 시시덕의 입이 닫혀지겠지.”라고 하였고, 또 “새침덕이 웃으면 돌부처도 웃겠지.”라고 말하였다. 대체로 시시덕의 사람됨은 제멋대로 굴고 얽매이지 않아 아무런 주장과 담아두는 것이 없이 터무니없는 말과 호언장담을 좋아하고, 기괴(奇怪)한 비유로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굴렸다. 비록 이 때문에 크게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고치지 않았다. 새침덕은 종일토록 눈썹을 꼭 숙이고 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고, 마지못해 말할 경우에 역시 겨우 한 두 마디 통할 뿐이고, 그 목소리 또한 매우 가늘어서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새침덕의 묵묵하고 조용한 것을 편리하게 여기고 시시덕이 하는 짓을 싫어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시덕에겐 대체로 경계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으나, 새침덕에게 도리어 매우 방비하며 말하기를, “이 녀석은 반드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이다.”고 하였다. 또 합하여 그들을 평하기를, “산에 가는 것에 비유하면 시시덕은 등마루를 타는 자요, 새침덕은 골짜기로 나아가 올라가는 자이니, 등마루를 타는 자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지만 골짜기로 나아가 올라가는 자는, 아!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다 중년에 아내를 잃었는데 물론 모두 제 명에 죽었다고만 전해지지만, 사실은 시시덕의 아내는 굶어 죽었고 새침덕의 아내는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진 것이다. 새침덕은 웃을 바뀔 입다가 웃이 약

간 끼이자 매우 기분 나빠하며 바늘을 그 아내의 밥 속에 몰래 넣었다. 아내는 삼킨 뒤에야 깨달았으니 이것이 우물에 몸을 던진 이유였다. 시시덕은 무릇 모든 일에 숨기는 것이 없었으나, 바늘과 우물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 친구를 위함 때문이었다. 또 스스로도 자기 아내가 죽은 진상을 숨겨서, 스스로 가난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듯하다. 둘 다 흠아비 신세가 되자 재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성 안팎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선택 대상을 널리 물색(物色)을 하였다. 그런데 무릇 시시덕이 아름답게 여기는 여자는 세침덕이 반드시 갖은 방법으로 양편을 헐뜯어 방해를 놓고는 제가 스스로 장가들었다가⁹ 얼마 지나 다시 내버리곤 하였다. 이같이 한 것이 사십여 호에 이르렀고 분해서 자살한 여자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때에 임금께서 진노하시고 어영대장(御營大將)¹⁰은 밤이 깊어도 집에 돌아와 밥 먹을 겨를이 없었으며, 순찰병을 사방에 배치하여 반드시 이 둘을 잡아서 큰 저지에서 죽여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자 하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누울 자리조차 없게 되었다.

이때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이런 동요가 나돌았다. “양과 여우 함께 가는데, 양은 건들건들 여우는 거짓쟁이, 이팔청춘 아가씨는 담장을 조심해요.”라고 하였고, 또 “높고 또 높아도 끝내 하늘엔 오르지 못할 것이고 내리고 또 내려도 끝내 구천엔 들어가지 못할 것이네.”라고 하여 대체로 소란스러웠다. 이에 뇌물을 써서 낮에는 주막의 지하 광속

9 스스로 장가들었다가: 원문은 ‘위금(委禽)’인데, ‘금(禽)’은 ‘기러기(雁)’로 옛날 혼례의 납폐(納幣)에 기러기를 보냈기 때문에 장가가는 것을 이른다. 『좌전(左傳)』, 『소원(昭元)』에 “公孫黑又使強委禽焉(〔注〕禽, 雁也, 納採用雁也).”라는 구절이 있다.

10 어영대장(御營大將): 조선왕조 때의 종2품 무관직으로 삼군문(三軍門)의 하나인 어영청(御營廳)의 으뜸가는 벼슬이다. 어영청은 임진왜란 후 서울에 두었던 오군영(五軍營)의 하나로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에 숨고 밤이면 깊은 산 캄캄한 수풀 멀리 인가가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 지경에 이르자 비록 시시덕이라도 산 등마루를 버리고 골짜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혹 스스로 옷음을 참지 못해 잠자는 새를 놀라게 하면, 새침덕은 나지막히 나무라기를, “너 미쳤구나.”라고 하였지만, 때로는 자신도 가는 한숨을 쉬며, “동문의 집[東門之室]”이라 하기도 하고, 또 혹 말하기를, “남촌연당[南村蓮堂]”이라고 하였다. 생각이 가는 곳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때엔 둘 다 며칠동안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할 뿐더러 큰 호랑이나 서리어 있는 뱀과 맞부딪쳐 위협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어느 날 밤 달이 매우 밝아서 함께 바위굴에 앉아 옛 일을 말하면서 비로소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시덕은 열 세 살에 홀어머니를 잃고는 아무 형제도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이 말하기를, “일산처럼 생긴 큰 소나무를 쳐다보는 꿈을 꾸고서 임신을 했지.”라고 하였다. 새침덕도 유복자 외아들로 네 살에 어머니가 간 곳을 모르게 사라져서 외삼촌에게 길러졌다. 외삼촌은 늘 꾸짖어, “이 자식은 뒤에 반드시 타향에서 흉악하게 죽을 거야.”라고 하였다. 새침덕이 입을 연 것은 아마도 이날 밤에 가장 많았을 것이다.

드디어 둘은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함경도의 한 고을에 들어가 집을 빌려 살았다. 그 고을은 서울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 누가 듣고 알 리가 없었다. 새침덕은 원래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어 시시덕이 한꺼번에 털어 없애는 것과는 달랐으나, 이에 이르러 또한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에 함께 신을 짜서 곡식을 바꾸어 살았는데 시시덕만 혼자서 대부분 그 일을 했을 뿐 새침덕은 혼자 벽을 향해 낮잠이나 자기 일쑤였다. 하루는 새침덕이 자다가 일어나 스스로 말하기를, “세상에서 ‘남남북녀(南男北女)’라고 하더니 참으로 빈말이 아니야.”라고 하였다. 시시덕은 하던 일을 버려 두고 급히 새침덕을 향해 묻기를, “자넨 아직

도 남은 용기가 있어서 장가들 생각이 있는가? 내 머리가 갑자기 흰 머리를 더해지는구나, 관세음보살, 다행히 날 좀 살려주게.”라고 하였다. 새침덕은 찌푸리며 말하기를, “어찌 나를 말하는 것이겠는가? 자넨 위할 뿐이네.”라고 하였다. 시시덕은 웃으며, “자네가 베풀어 준 걸 받은 것이 이미 많은데 어찌 감히 다시 바라는 것이 있겠는가? 또 지금은 마침 한가로워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을 털어놓고 싶네. 나는 일찍이 자네의 뒤를 따라 널리 예쁜 여인들을 만나 보았으나, 내 마음에 항상 모두 내 전처만 못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네. 내 전처는 정말 어질면서도 복이 없었으니, 그 중에는 잊을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두고두고 슬퍼할 만한 일도 있다네. 곧 연당의 여자를 두고 말하더라도, 내 일찍이 마음으로 매우 사랑하여 장가들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윽고 옛 아내를 생각하니 비통하여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네. 그렇지만 이미 구한 뒤라 회피할 수도 없었네.

나는 나아가지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 자네가 과연 나의 남모를 고통을 살핀 것인지 아닌지 나로서는 굳이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자네가 그 때에 우선 말을 잘 해서 나를 ‘개백정의 자식[屠狗之子]’이라 하기도 하고 ‘내가 간질병이 있다[吾有癩癩之疾].’고 해서, 마침내 나를 그물 속에서 빼어 내고는 자네가 스스로 장가들어 둘 다에게 편리하도록 하였네. 이것이 내가 지금껏 오히려 자네에게 고맙게 여기는 바일세. 그러나 자네 역시 그 사랑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연당을 버렸으니 이것뿐만이 아니네.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지 않음이 없었네. 자네의 전처는 나의 전처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나 자네는 마침내 자네의 전처를 흙 속에 묻고는 일찍이 사흘 밤도 참지 못하고 연이어 화려한 안석과 수놓은 자리에서 편안히 지냈으니, 세상에서는 자네가 박정하다고 하나, 나는 자네 또한 옛 아내를 생각한다고 보네. 설사 내가 자네의 장가든 곳에 장가들더라도 어찌 빠르고 늦은 차이가

도 남은 용기가 있어서 장가들 생각이 있는가? 내 머리가 갑자기 흰 머리를 더해지는구나, 관세음보살, 다행히 날 좀 살려주게.”라고 하였다. 새침덕은 찌푸리며 말하기를, “어찌 나를 말하는 것이겠는가? 자넨 위할 뿐이네.”라고 하였다. 시시덕은 웃으며, “자네가 베풀어 준 걸 받은 것이 이미 많은데 어찌 감히 다시 바라는 것이 있겠는가? 또 지금은 마침 한가로워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을 털어놓고 싶네. 나는 일찍이 자네의 뒤를 따라 널리 예쁜 여인들을 만나 보았으나, 내 마음엔 항상 모두 내 전처만 못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네. 내 전처는 정말 어질면서도 복이 없었으니, 그 중에는 잊을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두고두고 슬퍼할 만한 일도 있다네. 곧 연당의 여자를 두고 말하더라도, 내 일찍이 마음으로 매우 사랑하여 장가들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윽고 옛 아내를 생각하니 비통하여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네. 그렇지만 이미 구한 뒤라 회피할 수도 없었네.

나는 나아가지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 자네가 과연 나의 남모를 고통을 살핀 것인지 아닌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자네가 그 때에 우선 말을 잘 해서 나를 '개백정의 자식[屠狗之子]'이라 하기도 하고 '내가 간질병이 있다[吾有癩癘之疾].'고 해서, 마침내 나를 그들 속에서 빼어 내고는 자네가 스스로 장가들어 둘 다에게 편리하도록 하였네. 이것이 내가 지금껏 오히려 자네에게 고맙게 여기는 바일세. 그러나 자네 역시 그 사랑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연당을 버렸으니 이것뿐만이 아니네.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지 않음이 없었네. 자네의 전처는 나의 전처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나 자네는 마침내 자네의 전처를 흙 속에 묻고는 일찍이 사흘 밤도 잠지 못하고 연이어 화려한 안석과 수놓은 자리에서 편안히 지냈으니, 세상에서는 자네가 박정하다고 하나, 나는 자네 또한 옛 아내를 생각한다고 보네. 설사 내가 자네의 장가든 곳에 장가들더라도 어찌 빠르고 늦은 차이가

시시덕의 말이 이에 이르자 새침덕은 곁에 있다가 증얼거리기를, “그렇게 말하면 도리어 믿지 않을거야.”라고 말했으나, 이때 시시덕은 마음속이 바쁘고 어지러워 이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고, 다시 계속 말하기를, “언젠가 일곱 군데 불을 놓았고, 스무 명도 넘는 사람을 때려 죽였고, 여관에서 목을 땀 반드시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도망쳤으며, 항상 독약을 갖고 다니면서 우물만 만나면 반드시 넣었습니다. 또한 역적절을 도모하여 임금님의 화상을 그려놓고 날마다 북한산 가운데서 활쏘기를 연습한 지가 삼년하고도 반입니다. 어찌 온가락지뿐이겠습니까? 대저 햇별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고, 바람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나귀가 크게 우는데……”라고 하였다. 시시덕의 말이 이에 그치자 새침덕은 이를 갈며, “나귀는 또 무슨 일이야?”라고 말하였다. 시시덕은 비로소 이 말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머거리는 ‘나귀가 하품한다’고 하며, 일곱 장부와 열 사내와 통한 여자를 이웃 마을에선 장차 ‘정절있는 여인’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수령은 그의 이름을 보고하고 감사는 열녀의 정려문을 청했으니, 세상에는 실로 이런 류의 일이 많습니다. 관아에선들 어떻게 이 시시덕의 죄를 다 알겠습니까? 오늘에야 타고난 제 양심이 반짝하고 발현되었으니 오래된 허물을 다 따져서 달게 극형을 받더라도 원망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천 길 높은 산 위에 물어 주시어 조금이라도 더 하늘의 빛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시덕은 팔척의 키에 눈썹과 눈이 널찍하니 컸으며 목소리는 종을 울리는 듯하였다. 관원은 한참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윽고 다시 새침덕에게 물기를, “시시덕의 말이 옳으냐?”라고 하자, 새침덕은 처음 벌벌 떨었으나, 이내 진정하고 바로 관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른 일은 감히 알 수 없으나, 다만 온가락지 일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관원은 일찍이 눈치챈 바가 있어 이에 새침덕을 호되게 매

절하여 마침내 그의 죄상을 포착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자 시시덕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스스로 말이 너무 과장되었음을 후회하여 통곡하며 나와서, 그 친구를 기다렸으나 될 수 없었다. 한참 뒤에 스스로 옛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 앞서 그의 뒤를 추적하던 자도 역시 이미 그 중간의 곡절을 알고는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았다. (시시덕은) 그제서야 재취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버릇이 조금 고쳐져 놀고 사귀를 삼가고 말을 절제했으며, 살림도 조금씩 윤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에겐 끝내 하늘의 도움이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하였다. 새침덕은 북쪽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물래 여자죄수와 정을 통하였으니, 서울에 있을 때의 생각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 여자가 다른 자와 사귀는 것을 시기하여 독약을 타서 죽였으니, 밥에 바늘을 섞었던 일보다 더욱 가혹한 것이다. 마침내 교수형을 받아서 시신이 골짜기에 버려졌으니, 그 외삼촌의 말대로 된 것이다.

야사씨(野史氏)는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남산 아래에 가서 시시덕과 새침덕이 관계한 이른바 연당(蓮堂)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연당은 연못의 북쪽에 있고, 그 구조는 실로 작았지만 역시 아담하여 매우 좋았다. 집은 허물어졌고 오직 이 당만이 남아있는데, 이백년 전에 두 사람이 이 곳에 올라가 놀던 풍류를 상상해보고자 하였지만, 죽은 연(蓮)은 말이 없고, 서글픈 바람만 한갓되이 불어와 그 또한 아득하였다. '그 때 연당의 주인은 묘군(妙君)이었는데 겨우 열일곱살로, 일찍이 새침덕의 잠자리를 보살핀 지 열흘 쯤 지난 뒤에 연못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대저 시시덕은 원래 악인이 아니었지만 새침덕과 즐겁게 교류하였으니, 요컨대 역시 허물이 있다. 가령 그 때 (둘 다) 순찰병에게 붙잡혔더라면 어떻게 옥석(玉石)의 구별이 있었겠는가? 마음을 괴롭히고 위태로움을 겪은 뒤,

늦게서야 비로소 스스로 허물을 덮을 수가 있었으니, 이것이 그의 다행일 뿐이다. 새침덕만 비난할 것도 없다. 지금도 그와 같은 무리가 드물지 않은 것이다.

<이상 손혜리 옮김>



변영태

逸石 卞榮泰

변영태는 대부분의 삶을 교육자로 살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초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험난한 여정 속에 외교관으로 보여준 업적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뚜렷하게 남아 있다.

애국지사인 이회영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는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회영의 가르침대로 국가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성실과 청렴으로 임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펼쳤다.

여러 외국을 향해 독립된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알렸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전쟁 당사국임에도 전쟁 지원을 나온 연합국을 향해 할 말을 했다. 전쟁 포로와 관련하여 민족적 자존심과 함께 통일을 생각했고,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는 의연하게 맞섰다.

근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회자되고 있는 때에 변영태의 근면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침탈 야욕이 드러난 현재, 외무장관으로서 변영태가 보여준 단호한 의지는 다시 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이병렬, '변영태' 본문 중에서



逸石 卞榮泰



이병렬

韓國三卍
변영태

이병렬

문학박사, 전주교대 초빙교수

1. 들어가면서
2. 변영태의 생애
3. 교육자·학자로서의 삶
4. 외교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5. 시조 번역과 영시 창작
6. 남는 문제들 - 나오면서

자료

- 영시집 《SONGS FROM KOREA》 중에서 발췌

여 백

1. 들어가면서

‘부천 삼변(富川 三卞)’ 나이가 ‘한국의 삼변’이라 일컬어지는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 3형제 중에 변영태(卞榮泰)는 다른 두 형제에 비해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법률가이자 한학자인 형 변영만과 아우인 시인 변영로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겨 그 족적이 분명한 것과 달리 변영태는 한국 현대사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름 앞에는 시인, 영문학자, 교육자, 정치가, 행정가, 외교관 등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는 의미가 된다.

그는 분명 시인이자 영문학자로서 우리 시조를 영역한 책을 저술했으며 대학교수로 영문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 정부 시절 외교관으로 발탁되어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오르기까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5·16 이후 정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방면의 활동은 그의

생애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간 변영태와 관련된 여러 연구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여, '한국의 삼변'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는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간 밝혀지지 않은 생애의 어느 특정 부분을 조사·발굴하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잘 알려진 그의 여러 업적들을 정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핀 후 다시 각 분야별로 정리하며 그 현재적 의미를 규정한다.

2. 변영태의 생애

(1) 출생과 성장

일석(逸石) 변영태는 구한말이던 1892년 12월 15일 아버지 밀양(密陽) 변씨 정상(鼎相)과 어머니 진주 강씨(晉州姜氏) 사이의 둘째아들로 경기도 부평도호부 하오정면 고리동(지금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번지)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현재의 부천시이지만 주로 서울에서 자랐는데, 4세 때부터 천자문을 배울 만큼 천재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재동소학교(齎洞小學校)에 입학하였으며, 12세에 채씨(蔡氏)부인과 혼인하였다. 재동소학교를 졸업하고 교동고등소학교(校洞高等小學校)를 거쳐 계산보통학교(桂山普通學校)로 전학, 15세에 고등소학교 과정을 마치고,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애국지사이자 목사인 전덕기의 상동교회(尙洞教會)에 나가면서 이 회영(李會榮)의 지도를 받게 된다.

그는 보성중학에 다니던 시절, 1908년 1월 창간된 교육학습잡지 <장학보(獎學報)> 제2호(1908.2.20)의 독자 응모 ‘논설’ 부문에 <경쟁(競爭)은 진보(進步)의 모(母)라>는 제하의 손설로 1등은 없는 2등에 당선되는 등 학생 시절부터 이미 그 재능을 발휘하였다.

19세에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만주로 가서, 1912년 만주 통화현(通化縣)의 신흥학교(新興學校)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이어 1916년 북경 부근에 있는 협화대학(協和大學) 1년을 수료하였다.

(2) 약사(略史)

신흥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으며, 1920년 고국에 돌아와 1943년까지 24년 동안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에서 영어교사로 봉직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고려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였고, 1946년에는 민주의원 접흡단비서처(民主議院接洽團秘書處)에서 잠시 영어비서로 근무한 일이 있으며, 다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이어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1949년에는 대통령특사로 정부승인을 교섭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다녀왔다. 1951년에는 국제연합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회의에 참석하였고,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제3대 외무부장관으로 활약하였는데, 유신정부 시절 4년 9개월 간 외무부 장관을 지낸 박동진에 이어 4년 3개월간(1951년 4월 16일 ~ 1955년 7월 28일)의 오랜 시간 외무부장관을 역임했다.

1951년에는 외무부 장관으로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개최된 에카페 회

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6·25 전쟁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있던 한국의 입장을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알렸는데, 이 때 국가의 예산으로 가지고 간 여비를 남겨 올 정도로 성격이 끈고 깨끗하였다고 한다.

한편 1952년부터 1953년까지는 7, 8, 9차 국제연합(UN) 수석대표를 지냈으며, 1953년에 국무총리가 되어 외무부장관직을 겸임(1954년 6월 27일~1954년 11월 28일)하였다. 특히, 1954년에는 제네바정치협상회의에 남한 대표로 참석하여 14개 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56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교수 등을 거치면서 후진양성에 힘을 썼고, 1962년에는 고려대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아 학자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4·19에 의해 제1공화국 붕괴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는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의 군정연장 선언에 반발하여 1963년 3월 22일 윤보선·박순천 등의 재야지도자들과 함께 '민주구국선언대회'를 열어 군정연장봉쇄를 결의하고 가두데모에 나섰기도 했으며 그해 정당인 정민회(正民會)를 창당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1969년 3월 10일 76세를 일기로 서울에서 사망하였는데 장례는 사회장으로 예정되었으나 검소한 장례를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족장으로 치루어졌다. 묘지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다.

그는 철저한 규칙생활로 건강관리를 하였고 공사생활이 청빈한 것으로 유명하다. 변영만(卞榮晩)·변영로(卞榮魯)와 함께 3형제는 일세의 기재(奇才)로서 옛 중국의 당송팔대가이던 소순(蘇洵)·소식(蘇軾)·소철(蘇轍) 3부자에 비쳐 '한국의 3소(三蘇)' 혹은 '한국의 삼변(三卞)'으로 까지 불리고 있다.

저서로는 <외교여록(外交餘錄)>, <논어영역(論語英譯)> 이외에 <My Attitude Toward Ancestor Worship>(1925), <Tales from Korea>(1946), <Song from Korea>(1948), <Korea My Country>(1949) 등이 있다.

이상 간략하게 변영태의 생애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그의 삶을 요약하자면 교육자, 학자, 외교관 그리고 정치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48년에 출간한 <Song from Korea>에 실린 영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학인(시인)으로서의 삶이다. 이제 각 분야별로 그의 족적을 따라가 본다.

3. 교육자 · 학자로서의 삶

19세에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변영태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주한 이회영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서, 1912년에 신흥학교(新興學校)를 제1회로 졸업하였는데, 이러한 이회영과의 인연은 이후 계속하여 교육자 혹은 외교관으로서의 변영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국회의원을 거쳐 국민의 정부에서 안기부장을 역임한 이종찬, 그의 조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선각자적인 삶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데 엮은 책 <동녘에 해가 뜨면>을 저술한 김광한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회영의 말은 비감에 젖어 있었다. 이회영은 자신의 나이가 만만치 않아서였는지 나이 어린 동지들을 슬하에 많이 두었다. 후대를 기약하기 위해서였다.

변영태가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변영태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는 어학에 뛰어나고 판단력이 예민해 이회영이 총애한 사람이었다.

이회영은 만주로 떠나기 전에 변영태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너희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다. 조선의 운명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세대는 나라를 찾는 일이고 너희들은 찾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회영이 특별히 변영태를 지목하여 당부를 한 것은 그만큼 그의 자질을 알아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변영태 또한 이회영의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후진을 양성하는 교사, 교수이자 학자로서 이회영의 유지를 충실히 따른다. 그렇기에 교사 혹은 학자로서의 변영태의 삶은 이회영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흥학교는, 잘 알려져 있듯이, 그 명칭이 신흥중학교를 거쳐 흔히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로 불리는데, 항일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위해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등이 서간도 지역에 설립한 독립군 양성 학교이다. 변영태가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었다는 것은 이회영과의 인연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중요한 지표가 된 것이다.

신흥학교 졸업 후 협화대학에서 1년간 수학한 변영태가 협화대학을 중퇴하고 모교인 신흥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은 것 역시 이회영과의 인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20년 고국에 돌아와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에서 영어교사로 봉직하게 되는 것 또한 ‘후진을 양성’하고자 하는 이회영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따른 변영태의 의지일 것이다. 변영태는 이 중앙고보에서 24년 동안 후진을 양성하는데, 광복 후에는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취임하여 후학양성을 계속한다. 1946년에는 민주

의원 접합단비서처에서 잠시 영어비서로 근무했지만 이내 고려대학교로 돌아온다.

바로 이 시기, 즉 광복 이후부터 외교관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변영태는 우리의 전래동화를 영역한 <Tales From Korea>(1946), 시조를 영역하고 자신의 영시를 묶은 <Song From Korea>(1948) 그리고 <나의 조국, Korea My Country>(1949)를 출간한다.

4년 정도의 시간에 이러한 연구서를 출간한 것은 그만큼 그가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와서는 1960년에 논어를 영역한 <The Analects of Confucius>를 출간하기도 한다. 영문과 교수로서 동양의 고전인 <논어>는 물론 우리의 전래동화와 시조를 영역했다는 것은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오늘날의 노력을 이미 광복 직후에 시도했다는, 선구자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Tales From Korea>는 1940년에 청전(靑田) 이상범의 삽화와 함께 타자본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Horace M. Underwood의 서론과 변영태의 머리말 그리고 32편의 우리 전래동화가 200쪽에 걸쳐 영역되어 실려 있다. 타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총 181쪽으로 국제문화협회에서 1946년에 정식으로 초판이, 1948년에 2판이 각각 출간되었다.

<Songs From Korea>는 1948년 국제문화협회에서 출간되었는데, 우리 고시조 102 수를 영역하고 자신의 영시 32편 그리고 부록으로 고시조 작가의 약력을 덧붙이고 있다.

이 책과 관련하여 숭실대 조규익 교수는 시조 영역의 첫 사례라는 점과 함께 좋은 번역의 출발이었다는 면에서 매우 선구적인 작업이었다고 그

의미를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고시조 영역만이 아니라 <Tales From Korea>에 실린 전래동화 영역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The Analects of Confucius>는 서설과 <논어> 20장(章)을 영역하고 부록으로 한자 원문을 수록한 책으로 1960년 민중서관에서 간행되었다.

이승만에 의해 외교관으로 발탁되어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후에는 다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교수 등을 거치는데, 이러한 그의 업적은 1962년에는 고려대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정점을 찍게 된다.

따라서 변영태는 신흥학교와 중앙고보에서 24년, 고려대에서 4년 그리고 외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1955년부터 정민회를 조직하여 대통령에 출마한 1963년까지 약 12년, 모두 약 40년 동안 교육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다. 그의 전체 생을 통해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후보 등 외교관과 정치인으로 활동한 6~7년을 제외하면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변영태를 평가할 때에 교육자보다는 외교관, 국무총리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비록 교육자로서의 삶이 물리적 시간으로는 길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 속에 그의 업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외교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변영태가 외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1956년에 출간한 <나의 조국>에는 외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가 밝힌 성명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적 과대평가의 위험
2. 통일만이 평화의 토대
3. 휴전 조건
4. 제한된 전쟁에 대한 경고
5. 대일구화조약에 대하여
6. 공산주의자의 간계
7. '맥아더 라인'에 대하여
8. 안보비밀회의에 대하여
9. 공산국가는 중립국이 될 수 없다

10. 세균전에 대한 공산 측 허위선전
11. 소련은 중립국가가 아니다
12. 포로 강제송환을 경고함
13. 적의 비행장 건설에 대하여
14.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15. 소위 '평화'의 표어에 대해서
16. 경제원조에 대해서
17. 한국 어로관리구역에 대해서
18. 일본의 재산권 요구에 대하여
19. 포로 격리에 대해서
20. 휴전회담 유엔 이관(移管) 반대
21. 반공포로 제삼국 이송은 부당
22. 반공포로 석방에 대하여
23.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준에 관하여
24. 포로 인도 이송에 관하여
25. 실향사민(失鄉士民) 반환에 관하여
26. 15개국의 제네바회담 보고서에 관하여
27. 소련정변에 관하여
28. 일본의 대공(對共) 태도에 관하여
29. 중립국 감시위원단에 대하여
30. 일본의 대(對) 북한 태도에 관하여
31. 대만사태에 관하여
32. 동남아 방위기구 가입에 관하여
33. 마조(馬祖), 금문(金門) 방기문제

34. 반동회의
35. 미 대(對) 중공 협상
36. 한일국교 조정
37. 반동회의의 성과
38. 소오(蘇澳) 협정
39. 조지 상원의원 발언에 대하여
40. 4대국 수뇌회담
41. 조지 발언의 한일 관계에의 영향
42. 납인(拉印) 반공포로에 관하여
43. 서독수상 방소
44. 한일국교 조정
45. 우리의 평화적 의도
46. 군축으로 평화
47. 한일관계
48. 소련의 회담 동기

이러한 성명들은 건국 초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서 미국은 물론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이 속한 연합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사실 현재의 상식으로 본다면, 공직자가 그 직위에 있으며 공적으로 행한 문서(성명서)들을 개인적인 저서에 수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을 변영태는 책 앞부분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내용이 해방 후 발생한 가지가지의 문제에 간섭되는 점과 우리 겨레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 점에 있어 현존 및 장래의 동지들의 참고가 됨직도 하여 우리말로 역(譯)하여 간행하는 바이다.

—〈권두언〉에서

서기 1945년 해방 이후로 내가 다소 공적으로 썼거나 말한 바를 이 책에 모음에 동의한다. 여기 인쇄된 언사(言辭)가 간혹 모모 인사의 불쾌를 산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불쾌를 영속화하지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가 소원이다. 전부를 앞이 조금 앞으로 끼쳐진 인상을 말소(抹消)하는 작용을 함으로써다.

신랄 준각 내지 시비조가 섞여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遺憾)되게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시 손질하여 모를 죽이지 않았다. 나의 과거가 나를 휘두를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 과거를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아 이 의사 발로(發露)들이 한국 민족의 기혼(氣魂)을 표현한다는 점에는 아직도 내 의견의 변화를 볼 수 없다.

—〈전언(前言)〉에서

변영태는 책에 수록된, 공직을 수행하며 행한 일(성명)들이 ‘우리 겨레의 주장’ 이고 이는 ‘현존 및 장래 동지들의 참고’가 될 것이라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시 손질하’지 않았다는 것, ‘한국민족의 기혼을 표현’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책에 수록된 성명들에 대한 신뢰를 더한다.

이를 토대로 외교관과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그의 업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다.

(1) 외교의 초석을 다진 외교관

변영태의 <나의 조국>을 주해하여 현대어로 편집한 부천대 명예교수 민충환은 책의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일석(逸石) 변영태는 일찍이 외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치가이다.

그를 이룰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전에 어르신네로부터 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 그는 공직에 있을 적에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하여 편지지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 그는 외국 출장 때 받은 여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은 모두 정부에 반납하였다.

- 그는 생활이 검소하여 늘 무르팍이 나온 바지를 입고 다녔다.

이 같은 일화는 한 인물을 미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어 전해진 면이 없지 않겠지만 그가 청렴결백한 삶을 영위하여 당시 공직자의 사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를 볼 때마다 일석의 올곧은 삶의 행적이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이러한 평가는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 공직자의 윤리 면에서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의 업적, 즉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라는 외교관, 행정가로서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른 수식어를 써야 할 것이다.

앞에서 생애를 기술하며 간략히 소개했듯이 변영태는 1951년 4월 16일부터 1955년 7월 28일까지 대한민국의 제3대 외무부 장관과 1954년 잠시 제5대 국무총리(외무부 장관 겸임)를 역임했다. 해방 직후 그리고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하는 힘든 시기에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그가 이룬 업적은 우선 건국 초기 한 국가의 외교 환경에서 우리 외교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어에 능통했는데, 이것이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는데 보성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영어를 접했고, 중국어는 고학 그리고 중국의 협화대학에서 수학하며 접했다. 이 협화대학을 수석으로 1년 과정을 마쳤으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신흥학교와 중앙고보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또한 해방 직후부터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렇게 볼 때에 영어와 중국어에 능했던 그의 실력을 짐작할 수 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승만 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일에 간여하다가, 1949년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는데, 1949년 1월 27일, 주필리핀 특사에 임명되어 일본 도쿄를 거쳐 마닐라로 부임하는데, 도쿄에서는 이승만의 명을 따라, 맥아더 사령부에 방문하여 대한군원(對韓軍援)과 미군의 계속주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어 필리핀을 방문한 그는 1949년 3월 3일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을 승인하는 서명을 받아내며 필리핀과 국교를 수립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한 달 남짓 후에 외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

다.

사실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의 대외 교섭의 첫시도가 필리핀이었다. 1949년의 필리핀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외교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였으며, 오찬과 만찬의 개념도 없는 상태여서 외교관들은 미국 대사관의 책을 빌려 공부했다고 한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의전과 관련된 의복도 변변치 않아 시내를 돌며 급히 정장을 마련해야 할 정도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 필리핀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승인받아 온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커다란 업적이었다.

변영태는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외무부장관으로서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개최된 에카페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회의에서 그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특히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할 때 가지고 간 여행경비를 남겨서 돌아와 국교에 반환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끈은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된 후, 1954년 1월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에 모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 외상들이 소련의 제안을 기본으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의를 1954년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것이 이른바 제네바 회담인데, 여기에 참석한 변영태는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제네바 회담의 참가국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소련, 영국, 프랑스 등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국가들로 결정되었고, 가장 큰 논제는 한반도의 통일방안, 그리고 선거 방식과 외국 군대의 철수 시기 문제였다. 즉 제네바 회담은 전쟁을 겪으면서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반영한 남과 북의 새로운 통일 방안을 국제무대에 공표하고 검증받는

장이었다.

1954년 4월 26일 개막한 회의에 북측에서는 남일 외무상과 백남운, 기석복 등이 대표자격으로 참가했고 그밖에 장춘산, 전동혁, 김택영, 김명구 등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변영태 외무장관이 단장을 맡고, 이승만의 개인 정치고문인 올리버(Robert t. Oliver)를 고문으로 한 10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4월 27일, 남과 북은 각각 통일 방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발표에 나선 변영태 외무장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수차에 걸쳐 시행된 바와 같은 자유선거를 실시케 하는 것은 ‘유엔’이 착수한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북 지역에서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실시해 북을 남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4개항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남과 북이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1항부터 8항까지는 선거 절차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9. 전한국 입법부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10. 특히 좌기(아래) 각 문제는 전한국 입법부의 결의에 일임한다.
 - ㄱ.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 선거하는 여부
 - ㄴ. 대한민국 현 헌법의 개정 문제
 - ㄷ. 군대의 해산 문제
11. 대한민국 현 헌법은 전한국 입법부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12. 중공군은 선거일 1개월 전에 철퇴를 완료한다.

13. 국제연합군의 한국으로부터의 점차적 철퇴는 선거 전에 개시할 수도 있으나, 통일 한국 정부의 전한국에 대한 효과적 통치가 성취되고 그것을 국제연합이 인증하기 전에 완려하여서는 안된다.

14. 통일된 독립한 민주한국의 영토 보전과 독립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변영태의 제안은 이전까지 이승만 정권의 입장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문구대로만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 해산과 대한민국의 해체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같은 해 11월 변영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네바회담에서 그가 주장한 14개 조항의 진의를 설명했는데, 그가 주장한 14개 조항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했고, 당시 총리를 겸하고 있던 변영태는 16개국의 요구가 강력했다는 것 그리고 외교적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것은 2항(남한에서도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과 10항(전한국 입법부의 결의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헌법이 개정되며 군대를 해산한다)이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라는 문구로 넣어 남한에서는 당시 국회의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고, 대의원 선출과 동시에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미국 안과 전한국 제헌의회를 구성하자는 필리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군대 해산 조항은 인민군 해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없어도 당시 국회의원들은 변영태의 진의를 알고 있었다.

변영태는 제네바회담이 결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기자회견석상에서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다고 선언하여 공산측뿐 아니라 서방측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에도 변영태는 공공연히 유엔 측의 통일 방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10월 24일 유엔기념일 기념사에서서는 시기를 보아 복진하겠다고 천명했으며, 11월에 개최 예정이던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길에는 '평화공존론'을 반박하고, 정치위원회를 하루 앞둔 11월 26일에는 '북한 지역 재보선'을 통한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통일방안이 제네바회담 이전과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네바회담에서 행한 변영태의 주장은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북측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전술적인 것이다. 당시 유엔에 대한 북측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변영태와 16개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북측은 마찬가지로 반대할 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 이후의 전략까지 수립하는 외교 정책, 바로 이것이 변영태가 보여주는 외교였던 것이다.

필리핀과 국교 수립, 한국전쟁 중에 펼친 외국과의 회담과 연설 그리고 제네바회담에서 보여준 변영태의 외교는 이후 우리 외교의 교과서가 된다. 그만큼 건국 초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국익이 되는 외교의 방법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포로 석방

외무부 장관으로서 변영태의 업적 중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휴전협정 그리고 포로 석방과 관련한 그의 의지이다. 특히 포

로 석방과 관련한 일련의 행적들은 그가 얼마나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치달는 1953년에 들어선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그리고 포로를 교환할 중립국 구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변영태는 인도가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의장국이 되자, '공산주의 중정자임이 분명한 인도의 군대를 한국의 뒷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즉, 군사정전위원회의 중립국 구성에 대한 의견에서 '공산권 세계는 단일한 것으로 다른 어떤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는 한 중립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중국이나 소련과 마찬가지로 체코나 폴란드도 중립국이 아니며 또한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감독 아래 공산측에 의한 4개월 간의 설득 제안이나 송환거부자의 운명을 정치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단지 포로를 강제로 송환하려는 노력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북한 포로가 공산당의 명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의 형제'이므로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다른 나라로 이송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과 독립의 침해라고 반대하였다. 이어 그는 1953년 4월 30일, 클라크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 포로의 청원서를 첨부하여 '송환거부 포로를 판문점에서 중립국으로 보내자는 공산측의 주장은 사실상 강제송환이므로 그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송환거부자를 중립국으로 보내자는 인도방안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북한 출신 반공 포로들은 한국의 시민들로 간주됨으로 한국정부는 그들을 처리하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서 석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영태의 주장을 정리하면 외무부장관으로서 그의 인식은 첫째, 북한출신 반공포로들도 우리 민족이라는 것, 둘째, 우리 민족의 미래

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1953년 5월 29일, 한국전쟁의 휴전 후 5개 중립국의 한국 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 한국군을 유엔군 산하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유엔군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변영태의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미래를 보는 혜안이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미 하나의 세력이고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립국들에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간여하기에 중립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공산 세력에게 돌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이이다. 이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영태의 안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 포로들까지도 우리 민족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민족적 자존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3)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근래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변영태 장관 재임시 이루어진 평화선과 일본에 보낸 구상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평화선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1952년 1월 18일 국무원고시 제14호)’이다. 이 평화선은 당초에는 ‘어업 보호 수역’ 선포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검토 심의과정에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으로 확대되었는데, 1차 한일 어업위원회 회담에 참석한 상공부 수산국장 지철근에 의하면 당시 한국 연안에 한국 어선보다

일본 어선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한국 연안에서의 남획을 막고자 중남미에서 유행하던 해양자원보존과 대륙붕 선언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어업보호관할구역'이라는 정책을 만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어로 보호만이 목적이었기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설정한 트롤 어업 금지구역 선을 기준삼아, 되도록 일본의 반발을 막으면서 실리를 거두자는 뜻에서 독도를 '어업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당시 외무부는 독도를 수역 밖에 두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외국에 줄지 모른다는 이유로 독도 밖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시 외무부는 독도를 '어업보호수역' 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어업보호수역' 안을 '변영태안'이라 부른다.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평화선'으로 재탄생되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외교논리를 마련한 것 또한 변영태라 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1954년에 정해졌는데 그해 9월 25일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한 달 뒤인 10월 28일 우리 외교부는 반박 구상서를 작성했는데, 이 때 독도에 대한 우리 외교의 논리가 정해졌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지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가장으로서 허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시초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구해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데도 유사적 영토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변영태는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라는 논리를 펼친다. 한국 측은 구상서에서 '한국은 40년 이상이나 제국적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리가 약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일본에게 환기시키는 바이다. 일본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침략은 차차로 진행되다가 1910년 전 한국의 일본과의 병합으로서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중략)… 시마네 현청이 독도를 자칭하여 그의 관할권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협정의 1년 후이다. 그리하여 독도는 일본 침략의 희생으로 된 최초의 한국 영토였다.' 라고 주장했다. 1954년에는 '과거에 있어 일제 침략의 최초로 희생된 독도를 또다시 점유하려 함은 대일강화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재침하려는 의도의 발로로서 주시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9월 30일자 동아일보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1954년 일본에 보낸 구상서 및 성명은 14년 간 진행된 한일 회담에서도, 현재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한국외교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다. 당시 독도에 대한 입장은 더할 수 없이 명확했다. 한국정부는 1954년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태극기', '한국령' 의 표식을 설치하였고, 당시 독도 주변 수역을 정찰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도 더 이상 독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원칙은 이 시기에 정립되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로 들어간다. 이러한 미소의 대치 상황에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미소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치했고, 한국전쟁의 와중에 미국은 일본을 최후 방어선으로 구상하기까지에 이른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그런 면을 볼 수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입장은, 소련 그리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로 일본을 생각했고, 이는 한일 간의 갈등에 대

하여 일본에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변영태는 외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이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외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1948년 <China Monthly-월간 중국>지 4,5월호에 게재한 <미국은 일제의 재등장을 유치할 것인가>란 영문 기사에서 변영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무엇이 어찌 되는지도 잘 알기 전에 영국의 격려와 미국의 방관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과거 40년 동안 미개 야만인으로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중상 훼방(毀謗)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인의 악독한 선전에 다소라도 감염되지 않은 정치인이나 군인이 미국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해방과 동시에 한국의 국토는 양단되었으며 그 후 2년 반 동안은 소련의 악한 침략과 미국의 의미없는 우유부단(優柔不斷)으로 지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하여 이러한 과오를 계속적으로 범하여 온 세계는 한국을 비평할 권리는 하등 없는 것이다. (중략)

동양평화의 교란은 일본의 한국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만주 및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마침내 일본의 한없는 정복욕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직 입은 교상(咬傷)이 완치되지도 못한 미국이 다시 이 '맹견(猛犬)'을 무애하여 우리의 한국과 중국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 보이도록 만들리라고 누가 꿈인들 꾸었을까? 일본은 현재의 굴욕적 상태에 놓여 있어 변전으로서의 가치 있는 옛날의 영맹성(獍猛性)을 짜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다시 야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에는 진주만의 참화로 절정에 이르렀던 일련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야욕을 간파하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까지 헤아렸기에 변영태는 외무부 장관으로서 단호한 의지를 담아 일본에 구상서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인 조운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변영태는 신생 대한민국의 외교의 정책을 수립하고 기초를 만드는 데에 매진했으며, 격동의 시대에 일본과 국익을 건 '외교전쟁'을 벌였다. 일본에 보낸 구상서에는 변영태의 치밀한 성격, 의지와 신념 그리고 한결 같이 나라를 사랑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외무부 장관을 지낸 김용식 또한 당시 외무부 장관 변영태의 생각을 그의 저서 <새벽의 약속>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 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 영행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변영태의 의지는, 거둬되는 일본의 날조와 독도 침략에 맞서 정부를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으로서 그의 성명에 고스란히 담겨 오늘날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어 있다.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변영태는 5·16 쿠데타 후, 1963년 1월 정치활동의 재개선언에 즈음하여 정치 일선에 나선다. 구자유당계 일부인사와 무소속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그 해 8월 29일에 정민회를 창당하는데, 1963년 3월 18일 변영태의 발의로 윤재근·송중곤·인태식 등이 군사정권의 종식과 민정복귀를 위하여 정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47개 지구당을 확보, 1963년 8월 29일 창당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창당대회에서 변영태를 총재로 추대하고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1961년 8월 12일, 1963년 여름을 정권이양의 시기로 발표하고, 헌법 개정안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군정을 연장하고자 했던 박정희는 민정이양 후 군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1962년 8월 30일 육군대장으로 전역식을 가진 그는 곧바로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이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입후보한다.

야당은 1962년 12월 말에 계엄령이 풀리면서 1963년 새해부터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야당이 난립하게 된다. 변영태만이 아니라 허정, 이범석, 등도 각각 창당을 한다.

결국 야당이 난립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는 통합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통합야당으로 국민의 당을 만들게 되지만 계파 갈등으로 이 또한 실패하고 만다. 결국 야당은 단일 후보를 내세우지 못해 윤보선과 허정이 입후보했고, 자민당은 송요찬이 그리고 정민회를 창당한 변영태도 입후보한다. 군사정권에 의해 송요찬이 구속되고, 허정이 사퇴하여 실제적으로 박정희와 윤보선의 양자대결이 된다. 끝까지 사임을 안한 사람이 변영태였다. 선거 결과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불과 15만여 표 차이로 이겼다. 변영태만 사임했어도 윤보선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서중석은 그의 저서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중앙정보부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변영태한테 편지 작전을 한 걸로 돼 있다. “변영태 선생을 지지하는 사람이 열화와 같이 많습니다. 선생이 사퇴하시면 절대 안됩니다.”라는 식의 편지를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소가 전국 각지로 돼 있었다고 해요. 한 군데서만 보내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변영태는 ‘사퇴하면 안되겠구나, 국민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구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변영태는 1963년 10월의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총 유효투표수의 2%의 득표로 낙선하였고, 같은 해 11월의 제6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 36명, 전국구 후보 5명을 공천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이 정민회는 1967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개최된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개정과 더불어 당의 명칭을 정의당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이미 변영태는 간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변영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쌓은 그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5. 시조 번역과 영시 창작

변영태는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이던 1948년에 유명씨 55명과 무명씨들의 옛 시조작품 총 102편을 골라 영역하고 자신의 영시를 묶어 〈Song From Korea〉를 출간한다. 그는 시조, 현대시, 동화 등 여러 장르들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면서도 귀한 작업이었다.

책의 서문에 따르면 변영태는 무엇보다 시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번역의 의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번역자로서의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시조는 중국의 시와는 구별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 고유의 시가 형식이다. 시조는 영시의 소네트와 거의 유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시가의 구절이 소네트의 반 정도라는 것뿐이며 또한 그 짧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구절도 가지고 있다. 시조는 운율이 그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며 여러 흥겨운 모임에서 즉흥적으로 창작되기도 했다. (중

략)

시조 작가들은 그저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썼고 또한 흥겨운 유희의 일환으로 그것을 불렀으며 이 점이 바로 시조의 시구에 어떤 근엄한 교훈이나 깊은 철학이 내포되지 않음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

서문을 통해 변영태가 무엇보다 시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시조가 중국 시와 구별되는 반면 영국의 소네트와 유사한 규칙성을 갖고 있었다고 본 점은 자신이 시도한 시조영역 작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거나, 시조가 '중국 시와 구별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순수 한국어로 된 시'임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이전에 성행했던 시조의 한역이 시조의 본질상 그다지 탐탁한 일은 아니었음과 시조의 영역이 시대정신에 맞는 일임을 암시하려는 뜻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조를 '본질적으로 노래부르기 위한 장르'로 본 그의 관점은 시조부흥론 시기를 포함하여 당시까지 지식인으로서 '시조가 노래'라는 인식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탁월한 관점이었다. 시조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지식사회에 고착된 오해들 가운데 하나는 '시조가 우리 고유의 시'라는 편견이었다. 전통 시조를 시형의 하나로만 인식하려 했던 당시 지식인들과 달리 변영태는 시조가 노래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옛 시조의 내용이 심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았다. 시조는 하나의 유희적 표현수단이었을 뿐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담론체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영태가 영어 번역에의 의욕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시조의 본질, 특히 언어적 짜임의 규칙성이나 시정신이 한사보다 영시와 통한다고 본 점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변영태는 1935년 10월부터 1936년 1월까지 <동아일보>에 모두 61 수의

옛 시조들과 그에 대한 영역작품들을 연재했고, 〈Song From Korea〉이 출간되기 1년 전인 1947년에 그의 아우인 수주 변영로가 엮은 〈Grove Of Azalea〉에 고시조를 영역하여 참여했다.

〈Grove Of Azalea〉는 1947년 수주가 엮은 영시집으로, 〈애국가〉 영역을 첫머리에 두고 서문에 이어 일곱 시인의 영시들을 수록하고 있다. 사실 〈Grove Of Azalea〉는 수주가 편집(Edited By)한 것이지만, 수주 외에도 Kiusic Kim, J. Kyuang Dunn, Ik Bong Chang, In Soo Lee, Young-tai Pyun(변영태), Young-hill Kang 등의 영시, 영역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수주는 3행의 시조를 영시 Stanza의 기본 구조인 4행으로 바꾼다. 그리고 거기에 각운까지 살려놓는다. 그러니 시조의 모습은 간데 없고 Stanza만 남게 된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년 백발(白髮) 막대로 치러더니
백발(白髮)이 제 묻져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우탁의 〈탄로가〉이다. 3장 6구의 우리 고시조가 수주의 손에 의해 4행의 Stanza로 새롭게 태어나며 2행의 hairs와 4행의 unawares로 각운이 만들어진다.

With stick in one hand and brier in the other,
I Was to check the advancing Grey Hairs,
But the damn Old Age with its soft pad,

By hidden lane sneak'd upon me unawares

이에 비해 변영태는 시조를 소네트로 바꾼다. 그렇기에 6행이 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도 오르면 뭇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Mt. Tai-san is a lofty one
But still it is beneath the sky,
However high, If one climb on
And on, he'll top it certainly,
Who must their idleness confess
Prefer to blame its loftiness

잘 알려진 양사언의 시조를 변영태가 영역해 놓은 것이다. 1행과 3행의 one와 on, 2행과 4행의 sky와 certainly, 5행과 6행의 confess와 loftiness로 각운을 맞추어 3장 6구라는 시조의 기본 형식을 6행으로 영역해 놓았다. 변영태가 3장 6구의 시조를 Stanza 형식의 4행으로 바꾼 데에 비해 변영태는 영시의 Sonnet 형식의 절반을 이용해 6행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다른 한 편을 보자.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You boisterous torrent, why so haste,
So dashing over rocky bed,
And boast your speed and pride thus taste?
All's over when to th' sea you've sped
To turn no more, Then why not stay,
Linger by moonlit hills and play?

황진이의 시조를 변영태가 영역한 것인데, 이 역시 6행이다. haste-bed-taste-sped-stay-play의 배치에서 보듯이 변영태의 영역시에는 각운이 명확하고 명쾌하게 'ababcc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과 연관지어 보았을 때에도 매우 정교하다. 앞부분 네 행은 물의 흐름 곧 움직임을 다루고 있으므로 abab의 반복과 변화를 추구했고, 뒷부분 두 행은 '쉬어감'의 소망을 드러낸 까닭에 각운의 변화를 주지 않고 cc형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각운 못지않게 시 내부의 운율도 약강4보격으로 절묘하게 짜여져 있다.

사실 원작자의 의도를 100%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영태의 영역 시조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작자의 의도를 재현한 경우이다. 직역, 의역, 모방 등 번역의 세 유형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의역이라 한다면, 그것은 원작자의 정신적, 문화적 배경을 숙지해야 하고 양쪽의 언어에 능통해야 함을 의미한다. 변영태의 영역시 가운데 이 범주에 속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번역자가 원작의 이면적 의미까지 분명

히 통찰한 다음 그것을 영미권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그쪽 개념으로 바꾸거나 풀어놓는 방법을 씀으로써 무리 없는 번역이 될 수 있었다.

번역자의 해석적 의도가 반영된 번역 작품들의 경우도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재현한 경우들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번역시에는 원작에 대한 번역자의 해석적 의도가 반영되기 마련이라는 점, 여러 가지 현상이나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여 논리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해석행위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 모든 번역이 해석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번역은 이미 문학작품에 대한 훌륭한 해석’이라는 말도 번역자는 특별한 의도 없이 좋은 해석자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 점에서 변영태의 시조 영역은 원작의 의미를 서구식으로 충실하게 해석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시조 영역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영역을 시도함으로써 후대 인사들에게 시조 영역의 모범을 보인 점에 변영태의 장점이 있다. 그의 시조 영역은 그 분야의 첫 사례라는 점과 함께 좋은 번역의 출발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요인들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으며, 요즈음 고창하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당시에 이미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선구적인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남는 문제들 - 나오면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변영태의 묘 앞에는 그의 묘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

우리들의 생활율

1. 범 민족애에 산다
2. 모든 공직을 모리의 기회가 아니라 봉사의 기회로 삼는다.
3. 높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
4. 배타적이나 모리적이나 기만적인 일체의 당이나 단체에 간여하지 않는다.
5. 법과 질서를 지킨다.
6. 물자를 아끼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근로생활에 정진한다.
7. 보수에 사로잡히지 않는 작위 의욕에서 매사에 창진성과 개선력을

가지고 입한다.

8 생산과 소비에 있어 검약을 위주한다.

9. 국산을 애용함이 동포를 실직에서 구하는 유일의 길임을 명심한다.

10. 민생을 위협하는 모든 형식의 폭리를 금기한다.

묘비 표지 양 옆으로 펼쳐져 새겨놓은 '우리들의 생활율'은 교육자로서 그리고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지자로서의 변영태의 삶의 신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표상이 될 '생활율' 들이다. 항상 민족과 국가를 생각한 삶, 사보다는 공을 더 중히 여긴 생활 그것이 바로 변영태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시작하며 밝혔듯이 이 글은 변영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 아니라, 세미나의 자료집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여러 견해들이 편집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변영태의 삶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는 있었다.

분명 변영태는 대부분의 삶을 교육자로 살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초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험난한 여정 속에 외교관으로 보여준 업적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뚜렷하게 남아 있다.

애국지사인 이회영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는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회영의 가르침대로 국가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성실과 청렴으로 임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펼쳤다.

여러 외국을 향해 독립된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알렸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전쟁 당사국임에도 전쟁지원을 나온 연합국을 향해 할 말을 했다. 전쟁 포로와 관련하여 민족적 자존심과 함께 통일을 생각했고,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는 의연하게 맞섰다.

근래 공식자들의 부정부패가 회자되고 있는 때에 변영태의 근면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침탈 야욕이 드러난 현재, 외무장관으로서 변영태가 보여준 단호한 의지는 다시 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흔히 형 변영만과 아우 변영로 그리고 변영태를 일컬어 '부친의 삼변'이라 한다. 그러나 외무부 장관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주변 강대국을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독립국가의 자존심을 우뚝 세운 변영태의 업적으로 평가한다면, 일개 지방 도시 부친이 아니라 국가적인 인물로 '대한민국의 삼변'이라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만 미흡한 것은 그의 교육자로서의 삶과 그의 저서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그의 업적들이 정부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은 당장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나의 조국>이 현대에 맞게 재출간되어 읽혀야 할 것이고, 건국 초기 그리고 한국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교의 기틀을 다진 그의 행적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분야의 경우 시조영역과 관련하여서는 다소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가 창작한 영시와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 글은 연구 논문이 아니라 세미나 자료집으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자료들을 전제 혹은 일부 발췌 인용하였으나 일일이 인용표기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Daum, Naver 등 검색 사이트,

두산백과,

위키백과,

인명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인물평전5(《월간열매》, 1984.8)

Y.T. Pyun, 〈Song From Korea〉, International Cultural Association of Korea, 1946.

김용식, 〈새벽의 약속〉, 김영사, 1993.6

민중환 편, 〈변영태가 쓴 영시집 - 한국의 시가〉, 지식과교양, 2011.10.

변영태, 〈Tales From Korea〉, 新潮社, 1956.

변영태, 〈나의 조국〉, 자유문화사, 1956.

변영태, 〈英文朝鮮童話集〉, 국제문화협회, 1948.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3.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여록:변영태 장관 회고록〉, 외교안보연구원, 1997.

이병렬, 〈수주 변영로 영시 소고〉, 『수주문학』6집,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산과들, 2009.11.1.

조규익, 〈변영태 영역시조의 아름다움〉, 2011.10.

하영선,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2.

■ 자료

SONGS FROM KOREA

PART II

THE AUTHOR'S OWN POEMS

변영태

민중환 엮음

【편집자 밝힘】

일석 변영태의 영시집 《SONGS FROM KOREA》(PART II, THE AUTHOR'S OWN POEMS) 중에서 발췌 수록한다.

《SONGS FROM KOREA》는 1948년 '서울 국제문화협회'에서 발행되었고, 2011년 민중환 부천대학 교수가 다시 엮어 출간했다.

《PART I》(1권)은 우리 고시조와 민요 등 102수를 영역했고, 《PART II》(2권)는 자작 영시 32편 그리고 부록으로 고시조 작가의 약력을 덧붙이고 있다.

DEDICATION

Angelic pair, 'tis almost winters seven

 Since you so suddenly appeared to light

 My groping way to English verse, my sight

So helped as by a shining light from Heaven,

Your words were words of gold ; your silence even

 Advised far more than talks oft vainly bright.

 These lines may see no light, yet I thought might

Prove a joy 'tween the giver and the given,

May you delight in your tutorial fruit

 And more to mend where mending is required,

Purging it from the taint of baneful root,

 But, if you by repeated faults be tired,

Be patient as the saints of old who mute

 Asked no quick reckoning, deep-faith-inspired,

WRITING

Some calm between tempests;
A pool intervening cataracts
Happy with reflections;
A mooring in a harbour,
A sudden home-coming
After wanderings dreary;
A happy moment
Unmarred by chafes past
Nor with future burdened,
When thought, a dust-free mirror
Seeks its own image;
O Pen and Paper,
Slip, softly slip
Into his hand!

TO THE CANDLE

How soft on thy lone altar dost thou burn,
 Thou ancient soul of fire!
What mortal can thy tireless prayer learn,
 Sweet as angelic choir?
For what celestial bliss dost thou so yearn,
 So tremulous aspire?

How gladly flesh to spirit yields in thee!
 Yet flesh's not worn too soon,
The best of us still lack thy harmony
 And forfeit half their boon,
Thine all-souled flesh, all-fleshed soul let us see,
 And hasten Life's high noon!

No nimbus better fits a saintly head
 Than thine thy sacred flame,
A sage's life still leaves its earthly dead;
 The earth still holds his frame;
His virtue Heavenward soars, devotion-fed;
 His clod falls still untame,

But, Holy Flame, thou art consumed until

No relic's left to mourn;

Only with sweetest memory us dost fill

Of Life not passion-torn,

I ask thee : Whence thy ceaseless, placid zeal?

Of sinless body born?

LOVELESS LOVE ENDED IN LOVE

My wife is a full ignoramus;
She cannot tell her A from B
Yet none for wit and learning famous
Can beat her in heart and making tea,
Before I knew what gamble it was,
Like cocks, us two so set together
Parental edict, (Gain or loss?)
Though young, I full disliked this tether,
But what was there to save a son
From th' arms of maid, an elder by two,
When dad it willed? (You see the fun!)
I married the girl I did not woo.

Free love's as summun bonum held
By all and this they sing and preach,
But hold till you are told, love kneeled,
What I beheld, I you beseech!
I did not sigh away or drone;
A passionate youth seeking an aim,
Manchurian plains I roamed alone

With Bible, heart and manly frame:
Full seven years I spent in the wild,
She often passing my mind's eye,
Then, coming duty-reconciled,
I began loving with a sigh.

The large difference do you mark
Between the love-making of mine
And that of Cunningham or Clark?
Theirs is to draw the stiffest line
Around their object treated not
As a part of their universe—
Nay, she is th' all-eclipsing spot;
Their souls she can as often curse,
Utterly blight as insected grass,
Homage o'er-paid mines their life-root;
Their zeal to please (how tame alas!)
Too often throws both off their foot,

But mine through love of All I found;
It's not through her that I found All,
Mine wasn't a peculiar charm, gem, sound,
Imprisoning me in a magic hall;
Our union rests on the broader law

Of human sufferance, the spring
Of conjugal love saved from the saw
Of Time and Freak, part of the ring
Of Universal Love that lasts.
Methinks all men are husband-able;
All women, wife-able, but each casts
All others but one – how reasonable!

Like two gods with no common way
Of communication 'tween and yet
Under one spiritual sway,
We know each other by a set
Of smiles and gestures, for we lack
The common codes of intellect;
This very poverty calls us back
To the Carpentry of the Architect,
Philosophy, my humour keen,
My English verse and all that sort
Are lost upon my ignorant queen;
I make my heart with hers comport.

THE RIVER-SIDE VILLAGE

The haze-veiled crags that stand in rugged strength
Still the abiding autumn tint imbues,
Whose giant race grim guard the river's length,
Whose lingering snow defies Spring's mild abuse,

The river sapphire-hued, a counterpart
Of cloudless sky, encircles the shaggy foot;
And oft a white-winged sail heightens the art,
That glides as if charmed by some magic lute,

Beyond the crags half seen, half hid, lies spread
A cozy strip of land embosoming such
Hamlet of rural name in books ne'er read,
Protected both from fame and sand-squall's touch,

Could one small cot of this snug place be mine,
The worldly aimless noise I'd fain resign!

JOY

Pluck that flower not;
Let it stay;
Beauty rudely sought
Keeps not ray.

She will droop her head;
Sad new face;
Pretty ways all fled—
Furtive grace!

Touch not, nor profane!
Such pure thing
How can stand a stain?
Die or wing.

Darkness blinds the eye
Of that man
Who'd this law deny,
Dark as tan.

Orchard not my own
Beckons me—
Charm to him unknown,
Owner he.

Nowhere for the head,
Joy the most;
Sleep on feather bed,
Know the cost!

TO SHAKESPEARE

For thee there is no epithet correct;
We label all the great in thought and deed,
But thou, more of a wizard, dost not heed
With weird smile, any name we can select,

Did thorny paths of ours, Dread Intellect,
Even thy nicely balanced feet make bleed?
Dark caves of human hearts where deeds hid breed,
Thou layest bare. But who can thine detect?

Deep? No, thou needst not be, for to such eyes
Nothing is deep. Then penetrating? No!
Superbest Mind! all, rendering secrets, lies:
Genius too broadly human to be so!
For aye thy large voice comes as from the skies;
Thy easy grace and wanton laugh we know,

I NOTICED A SLENDER PLANT

I noticed a slender plant
With a few leaves round and soft
On a sand hill's sloping brow,
The wind made it bow and dance
Against its will, I know,
For When'er the airy motion
Ceased, the blithe stalk returned
To its rightful bearing slender
But noble, resuming the holy
Communion with the sun,
The wind its crown bowed and threw
Against the pointed end
Of a wiry, prickly grass
That hard by spear-like rose
And did not feel the wind,
I almost wept for the plant,
For, though the freedom to move
I have, denied to it,
The wind that blows unseen
Hurls me about as helpless,

I THEN STOOD HALF IN DREAM

I then stood half in dream,
Listening, listening to a garrulous stream,
But I stood not alone;
Lo! you too fair, free, whispered in charming tone:
I seemed to hear your voice,
Your notes of friendship in the tumultuous noise,
Ah! then our talk so grew,
So madly that the vale its sound withdrew,
There was a joy profound,
A loud heart-throb; we twin-souls where so bound!

I shook and felt ashamed;
For this sweet useless dream myself I blamed;
I looked up from the brook
And ran my eyes along the hilly nook
Now painted with bright hues
(Autumn her wealth will nevermore so use!)
Again I saw you, Love!
And we, exulting rambled through the grove,
"Let stern Law take his 9[e]!"

I said "Our hearts shall roam in bond e'er new!"

You sadly, sadly smiled ;

The ocean rolled between relentless, wild.

THE BABY'S FACE

You guileless yet guileful thing!
Mine must be blind eyes
If they see not now
That behind your wandering but strong gaze
Looks out an old wrinkled face
Telling of old woe and sorrow,
Of old frettings, cares, struggles and worries
Your artless smile,
Your artless throws of limbs
And scores of other infantine graces,
(What a thin-scaled armour!)
All vanish for the while.
Is that your old face once worn and flung
In some remotest notch of time,
Or one that these your waxen feathers will soon overtake?
The old cunning fighter, though under a fresh feint!

CHARITY

Smile a genuine smile,
You'll save many a mile.

Try the feeling hand,
You'll find the Heavenly land.

Tend a true need found,
You'll see the world come round.

Have one kind mite thrown,
It will buy you a crown.

THE SMILING EVANGELIST

Behold her smile! Here is a witness o'God!
What charm, what power and what holiness!
Will you withstand and prove a silly cod,
Or yield obedience to this prophetess?

Welcome, you owner of that winning smile!
Around our hearths celestial radiance spread,
To Him, the Source of your smile, reconcile
The world and me ; now Love through you is read.

What panting, yearning pleading! How it prays!
Yet she is innocently unaware;
Singing and speaking, myriad schemes she lays,
But what can match her smile, a blessing fair?

Beauteous preacher, kneel behind closed door
And plead more for the sinning world with Him,
He who is ever mindful of the poor
Will bless your smile, an answer ah! so dim,

What though our hardened sense wonders deny!

What though our weary mind let trinity go!
But what excuse, if we this sign defy,
To this plain autograph of God say no!

Daughter of Truth! Hail, blissful messenger!
Do mind to pray to smile and smile to pray
Be more than all the ritual that's no spur,
And bring us into Love's eternal day.

SOLITUDE

After the day's feverish fray
That must be willy nilly,
Will-harnessed like a warring bay,
Useful yet seeming silly,
What is like thee, O Solitude!
O heal my soul, have gratitude!

I minister oft to doubtful needs
With brave heart but not gladdened;
I oftener see the husks than seeds;
My soul is sweet but saddened,
But here I see an orb, not an arc,
With all I love, light in the dark,

O princely sumptuous-feasting hour!
O hour of holy union!
O supreme hour of Self's free snore!
Complete without communion,
The world needs me not, nor I the world
Like a lone star in its ring whirled,

Should Fate so will that she must send
Among the hosts me girded,
With flame and shout to urge an end,
To fateful actions herded,
O let it be, Spirit of Feud!
But spare me inward solitude!

That day with mighty tasks I'll strain,
Risking the greatest gamble,
Yet, if thy sweet song I retain
As in this easy ramble,
I'll walk through fire and take no harm!
O Soothing Maid, yield me thy charm!

Ere that day come with deafening noise,
Merciless hurl me, fling me,
Tear me from thought and quiet joys
Only this once O bring me
Lone to a grove with starry vault
Or lisp of scented sea of salt!

MAGPIE'S NEW YEAR'S DAY

I never knew the beauty hid
In the phrase "Magpie's New Year's Day"
Till, as a lay's refrain,
Again and still again
I heard my baby poet say
The fair words like a bleating kid,

She heard her mother but once say,
When she was cornered to retreat
From an impossible plan
Though planned as baby can,
(Oh, how the old the young wits beat!)
The magic "Magpie's New Year's Day."

Satisfied with this mythic date
Long ere the debt was satisfied,
"Till Magpie's New Year's Day,
Mamma, my hope must stay."
With rounded eyes grown bright, she cried
Happy as if she gained a state.

Often she climbed her father's knee
With scores of favours for his ay ;
He shook his smiling head,
For they outran her need,
“When comes the Magie's New Year's Day
O won't you get me all?” said she.

A neighbour went away for good,
Taking their baby, mine's close mate,
“Will she be back and play
Next Magpie's New Year's Day?”
Tear-filled, she half' cried at her fate,
But soon returned her peaceful mood.

When'er Mamma was turned to bay,
When'er she saw her faults to mend,
“Then let it be, I pray,
Next Magpie's New Year's Day!”
Thus hopes and sorrows she retained
For the fair Magpie's New Year's Day.

THERE ARE MOMENTS

There're moments when my very breathing is a bore,
And my own limbs, the fiercest rebels that siege my soul,
How to dispose recalcitrant hands forms a sore,
A terrible civil war that checks a wholesome role.

And there are also moments when I was so bold;
I gobble up the earth, sun, stars, and do not feel
Indigestion; I eat the flesh of sages old,
Both great and small, yet no qualm's felt ; all heal my ill,
Then lo! I feel one mighty Stomach carrying all ;
Then I can live in fire, and fear no gallant fall.

NARA

Nara's the soft, sweet heart of all Japan
Full of spruce, noble trees, and meek-eyed deer
That, Nature's moving emissaries there,
Wandering woo the steel fed soul of man,

In these Muse-haunted woods controlled by Pan
Even the Buddhas, that in fanes appear
To meditate, still matchless beauty bear,
Like maiden graces, charm the loose-clogged clan,

No wonder that in dingy Osaka
Damsels as meek, as beautiful and fair
Are oft glimpsed and a vivid fairy land,
Let commerce thrive in modern Nagoya,
But these woods' part shall not be earthly care,
Holily set off for this Samarcand,

BIRDS OF THOUGHT

Birds of thought in beautiful
Plumes, come flocking silently,
Some to mock me into a fool,
Some to stay fore'er with me.

Birds of thought alight and go
On their golden-speckled wings,
Bidding dance to the trilling flow
Of their songs a bird ne'er sings.

Birds of thought alight again,
Seeking in my painting brush
Showing as a perky wren,
Or a singer-souled thrush,

Wonder-filled I sit and stare
Till the louder birds of thought
Cawing vanish in the air,
Leave me free from all they wrought,

Then the brush begins to move,
Sets me dancing all the time
To the rarer notes above,
Gentler birds' entralling chime.

I ONCE SAW JESUS, THE NAZARENE

I once saw Jesus, the Nazarene,
While I cried to the great, heroic Love
Shedding blood on the cross for Sin,
He was still humble, though in Heaven above;
Silently led me to his Father and vanished, lo!

With cross and all,

I found my agonizing soul
Suddenly left before a Majesty,
A nameless purifying Whole
Of Presence; Time, stars, Sun, Moon, Earth and sea,
Like shrivelled skins all hushed and consumed, lo!

Man, I and all,

I can't tell which was I and He,
Only I heard eternal "Yea! Yea! Yea!"
In ecstasy. Who could it be
That thus cried? Ah I did not care that, nay!
To be, to see, to know were one. I cared not, lo!

Reason and all,

When I came to my earthly sense,
I saw the face of Jesus once again,
Ne'er was my worship more intense ;
(Lord, give Thou me so sweet a rest as then!)
I could attend alike to grass and nations so
 Small after all,

MY BABE TALKS WHAT SEEM LIES

My babe talks what seem lies—
Of seen and unseen skies
Of worlds devoid of sighs,

She lisps of fancied toys,
Of visualized joys
That are without alloys,

Also of monstrous fears,
Of what in dream appears,
Unknown to full-grown years.

She such a spirit is;
The sun is than her kiss
No greater masterpiece.

MOON FROM THE TRAIN

The crescent moon, like a fragmentary vision,
Over things that never stayed,
Chased me and whispering urged my decision;
Softly but madly said,
“Come away with me! I’ll laugh with thee!”

She did not seem to know my bounden condition,
That I could not outlive
That uncanny laugh (ah! won’t it mean perdition?)
Soon Dawn the veil did cleave;
“Thou hast passed the test! Now see and rest!”

I’m almost glad, I clung to things of earth then,
Unheeding the whispering moon
That threw the mysterious veil of maddening mirth then,
But the echo returns anon,
“Come away with me! I’ll laugh with thee!”

A VIEW ON LOVE

He is the silliest of man
Who asks his friends which girl to choose,
Where what his heart will know and can
Is all authority, or lose
He must his sweetest Heaven-sent
Gift, and forever life's content.

Why does your heart grow warm and drunk
Before you open a note from her?
(Blank joy unknown to a real monk)
'Tis more than diamond with you, sir,
You do not care quite what is said,
Yet next morn finds it in your bed.

When you two sit so near and shy,
You can be happy with no talk,
But once you part and days pass by,
You was so bold and no more balk
Writing long letters with no end
On slight occasions you pretend.

You know, he must be partially right,
Who once remarked that Love is blind.
Did you not feel your mind grow bright
When in you hand hers lay confined,
Value the Universe again,
And size it truly only then?

At the thought of your darling one
You're tender to a screeching owl,
Manly in trials that otherwise stun,
Generous to all and to none foul.
With such a goddess 'neath your roof,
You feel, you would be quite vice-proof.

You even own that you do see
Some fairer ones, but all you fling
And say, "No! This is cut for me
By God, this lovely gem-like thing!
Without her empty would be life ;
All would be mine, were she my wife!"

ON THE THREATENED BRITISH INTERVENTION
AFTER THE NANKING INCIDENT

The sleeping giant is roused at last,
Following him the hosts of the East,
His slow, sure gait ; his burly cast ;
"Song of East, welcome to the Feast!"
The earth shakes his stentorian voice ;
Advances thus the champion choice,

His yellow armour, helmet, spear,
Escutcheon, and his noble steed,
All one design united bear ;
His battle-cries, too, fiercely bid
"Liberty!" (What sound is so dear!
Ye men white, brown or black, O hear!)

Knights of the West! Knights of the West!
Think well before ye quantlets throw:
Ere rushing to the fearful test,
Mark ye the giant's brooding brow?
For nobler cause ne'er swords were drawn,

And mighty is a thought well sown.

Knights of the West, what do ye find?
A foe! should Faith by Dread be bound,
And nagging Avarice all leave' hind!
A comrade! marching to the sound
Of drums that urge to yon dim shore
You all, despite the surges' roar.

Spare that rash stroke in this dark hour;
Bravely curb your impatient steeds,
When Manhood reigns in fullest power,
Lest you unman these cowardly deeds;
Or should ye blindness ope profess
A soft blow deal; have woe the less.

Knights of the West, if fight ye must,
Keep all the rules of chivalry
Ancient and noble as they are just ;
See your foe armed as well as ye!
And let him pace his charger round
The lists till breathing space is found.

Shun wily tricks, unseemly sleights

That turn a glory into shame,
That spoil the honour of the knights,
That victors vanquished shall proclaim!
For secret machinations foul
He sees, our dreadful Judge of Soul.

Regard him not as friendless, lone ;
Measure him by his righteous cause,
And by his God who ne'er is prone
To father a cause to end in loss.
Fierce men, let drop the part of Cain!
Dread foes, staunch friends Chinese remain.

Hail! gallant, yellow-armoured knight!
From this shore of the Yellow Sea,
I greet thy mighty form of fight,
And how fain would I give thee knee!
Thy birthright with due pluck uphold
For sons whose number is untold.

Dread not the odds thy foes display,
Nor their vain, boasted might of arms ;
Be fearless in this fateful day!
In noble trust that nothing harms

The man who acts the tool of God ;
Thy foes, not thou, shall feel His rod.

O GOD!

O God!

Thy fire is spent ;

Thy tent is rent ;

My back is bent ;

My shattered elements remould ;

Thrill this cold clay with interest bold ;

Fix a new soul of kingly hold!

O God!

Thy work is done;

'Tis all or none—

This smallest son,

Nay, I am spent but Thou ne'er art!

Rather play Thine creative part,

And million other ventures start!

O God!

Yet leave me not

A broken pot

No longer sought!

O lash me, lash my duty-sense,
That in the end, through fight intense,
I reach Thy good pure and immense!

DAY-BREAK AT MA-HA-YUN MONASTERY

Then in the dawning dusk I was alone
With a bright burning, burning star
Beside a stream that dreamless flows,
Beside a stream that timeless flows.

I wondered and released a human moan,
But from my mind I can not bar
The twinkle of that questioning eye,
The twinkle of that answering eye.

DEATH

Behind a screen of earth so thin
Yet deep as death is deep,
My mother lies with settled mien,
Within a moss-grown heap.

In life she led me, and in death
As guide before me goes ;
Now unafraid I'll lie beneath,

My head touching her toes.

I seemed a plant all green with leaves,

With blossoms here and there ;

Now I'm a spreading oak that lives

Alike in earth and air.

How holy is the eternal Love

That binds to mother son ;

That does death's seeming pangs remove,

And make it with life one.

TO THE GOAT LIVING IN A STREET CORNER

How is it, you free-footed goat?

 You have a world in dream,

Turn deaf ear to the noise of man?

 Is it the chattering stream

That used to clean your woolly coat?

Elderly, gentle goat, O say.

 The far-off, ringing cliffs

Where you did freely skip and bleat

 O would they heal your griefs

And all your saintly fears allay?

Your silver bleats are no more known

 Nor your large happy stare,

For no more's all that did you good,

 The bracing mountain air,

The leafy view from crown to crown,

All seasons, changes, rain or shine,

 Cruel words or kindly sighs

Are one to you that dream and dream

With half-closed, blinking eyes,

And think of th' far-off hilly line.

SERMONS TO THE COMMUNIST

The lily, oak and sweet pea equal are
In air and sunlight, if in tallness not,
In quality unique, in kind though far,
In the same pulse of life that has all shot,
A pound of meat would choke to death a child
While a weight-lifting giant surely starve ;
Such equal dealing's something to be smiled,
(Man can be rich in rags by means to salve.)
If others' joys us thrilled as they them do,
Exult then should we everlastingly.
Through pity, love, equality we'll woo,
And in eternal blessings sharers be,
For one more pea, turn up your neighbour's mess,
Be equal just in death and nothingness.

Freedom divested, can man still be man?
He's given the regal will to choose between
Heaven and Hell, and, argue what you can,
Heaven would not be such, were forced he in,
Man is created to ceate (mark this!)

Will-less creators! Monstrous mockery!
Take the free will from man, and God will cease ;
His whole creation will a void blank be.
Who are you gawky darkling quibbling guys
That hold that man is nothing but state all?
Man must do what is told him to with sighs
And what you-guys-pulled "state" thinks his own call!
After this topsyturvy notion hanker ;
You will be on civilization canker.

Whene'er I pass by shops that line the streets
Or those that, where they can, themselves ensconce,
Whether in lanes that seldom ring with beats
Of shoppers' feet or chats and their response,
Or any unfrequented villages,
All decked with nick-nacks, kept so neat and trim,
Alluring one into lust to possess
The things made to his varying taste or whim,
This query creeps uncalled into my mind:
Will you, Commissars, if you to your own
Come, sweep away all these, and power find,
Attend to us with care and fondness known?
Won't you, monopolizing human trust,
Denying Man and Freedom, bring rust, dust?

APOLOGIA FOR E. D.

Why, had an angel babbled half as well,
Would you have nudged her to clearer tell?
Heavenly Beings're usually so dumb ;
What! have this talking angel beat the drum!
Her English grammar rouses your concern?
Yes, I admit her scornful twist and turn,
Current too strong its dams may overbound ;
Seraphic thoughts should have tame channels found!
And then the rhyme! You point the damage done?
With all your wails and cares, I say, be gone!
Ever so fresh, e'er new as morning dew
Fore'er her music will daze me and you,
Fresh now and fresh a thousand years from now,
Maybe a million years hence. You ask how?
The change of language, in the normal course,
Will a far longer time require, perforce,
To overtake her; it is how she'll shine
As racy through all time without a sign
Of going stale. But woe to imitators ;
They'll go to Jericho, rot like potatoes.
A gem the mire encasing glorifies ;

A fault without her worth forgotten dies.

TO EMILY DICKINSON

Thy songs are pearls, and what art thou?

Thy name is Purity!

O virgin singer, let me bow

In reverence to thee.

Raised planes reduce to crouching knolls

The lofty-seeming hills,

Mississippis with stately rolls

To mere meand'ring rills.

A courtier Chaucer is doubtless ;

Worldly looks Shakspeare e'en ;

What's Browning? Country parson, yes,

To thine angelic sh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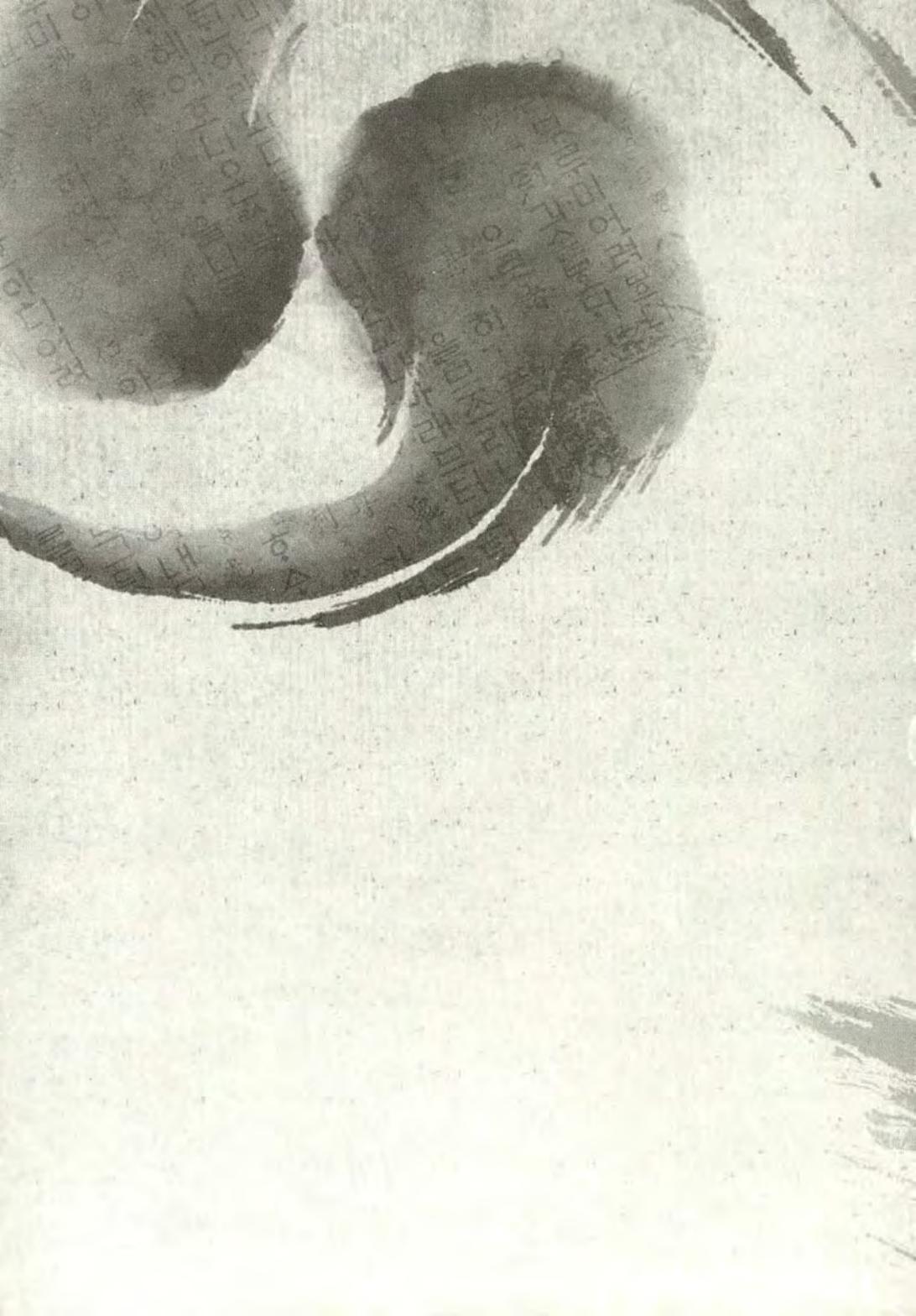
Poet Supremest! Sappho's aid,

High culture, (ah! forsooth)

To thee a hindrance might have made,

A tomb, not door, to truth.

A stained glass but itself displays,
Impeding, marring light,
O Crystal Soul! thee nothing pays
That keeps pure truth from sight.



변영로

樹州 卞榮魯

수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그의 글을 읽으며 참 많은 곳마다 밑줄을 그어 놓았다. 그는 글 쓰는 이로서의 전범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다.

글은 글대로요, 나는 나대로인. '저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의 글쟁이들이 실례받치는 세상이다. 《중용장구》 제 20장에는 학문의 다섯 가지 방법이 보인다. 첫 번째로 박학(博學), 널리 배운다. 두 번째가 심문(審問), 자세히 묻는다. 세 번째가 신사(慎思), 신중하게 생각한다. 네 번째가 명변(明辯), 명백하게 분별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독행(篤行),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행동함이다.

수주의 삶과 글이 저러하였다. 저러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갈(渴)'이다. 이 늘 모자라는 갈한 마음가짐이 수주의 문학을 고전에서 현대를 잇대었다. 한국의 현대문학사 기술에 수주 변영로의 진폭(振幅)을 넉넉히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간호윤 '변영태' 본문 중에서



樹州 卞榮魯



간호윤

한국서
변영로

간호윤

문학박사, 인하대 · 서울교대 강사

1. 들어가며
2. 갈(渴)한 수주의 일생
3. 갈(渴)한 인생으로서 수주
4. 갈(渴)한 문인으로서 수주
5. 갈(渴)한 수주 글 독법(讀法)
6. 나가며

자료

- 《조선의 마음》 영인본에서 발췌

여 백

1. 들어가며

시(詩)도, 금전도, 명예도, ...삶도, ...심지어 한국 문학사에서조차 그 이름 석 자를 찾기 어려운, 한 마디로 모두 갈(渴)한 문인 수주는 늘 '님'을 그렸다. 그의 글에서 님은 '님', '벗' '그대', '당신', '너', '동무' ... 등으로 변주되어 나타났지만 늘 수주에게 곁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주에게 님은 늘 다가가면 멀어지는, 아니 근원적인 님의 부재였다.

님이시여

님이시여,
왜 나를 보고 외면을 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요!

남이시여,
웨 당신의 눈이 웃으십닛가?
당신의 설음을 내가 아는데요.

남이시여,
웨 새삼스러이 우십닛가?
당신의 깃뵤을 내가 아는데요.

남이시여,
웨 어대로 가시렵니까?
변치안는 당신임을 내가 믿는데요!

1924년, 《조선의 마음》에 실린 시이다. 수주에게 남은 ‘조국’ 이었고 ‘정의’ 였고 ‘진실’이 였고 늘 믿음의 대상이고, 그레 수주는 이 남의 꿈을 꾸었다. 수주가 꾸는 꿈은 일반적인 꿈의 견해와는 달랐다. 수주에게 꿈을 우리 생애 없어서는 안 될 ‘생의 완결 조건’ 이었다.

수주는 “꿈을 소극적인 의미로 다만 인생고의 유일한 진통제—즉 팽팽이 키는 괴로운 생의 아름다운 느낌으로만 알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꿈이란 꽃에 대한 향기와 새에 대한 노래만큼이나 우리 생애 얻지 못할 즉 없어가지고는 우리의 생애 완전할 수 없는—요소인 것이다. … 그러므로 무슨 사상이고 무슨 일이고 간에 그것이 본질상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영봉 위에 도는 고운 남(嵐:아지랑이)같이 크고 깊고 넓은 꿈의 골에서 피어나오는 것이다.”¹⁾라고 하였다.

수주에게 있어 꿈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주는 적극적인 삶

의 요소인 셈이다.

나의 꿈은

나의 꿈은 흔히

꽃 없는 잎[葉]으로만 꾸며져라!

그리하여 나는 해매이노라

그 꽃을 찾으러,

아- 붉은 그 꽃을 찾으러-

1921년, 《신천지》²⁾에 실린 시이다. 수주의 꽃은 꽃이 없이 잎으로만 꾸며졌다. 그래 수주는 꿈을 꾸다. 꽃을 찾으러 그것도 '붉은 한 송이 꽃'을 찾으러. 수주는 이때 24세의 조선 젊은이, 아니 1919년 3·1운동도 실패한 일제강점기의 초라한 젊은 지식인일 뿐이었다. 제아무리 천재니 기재니 하여도, 터럭만큼도 용쓸 수 없게 만든 질곡의 시대였다. 그런 질곡의 시대에 수주는 이 동토(凍土)의 툰드라인 조선 땅에 '조선의 마음'으로 '붉은 꽃'을 피우려 꿈을 꾸었다.

수주에게 '그 붉은 꽃을 찾으러 다니는 꿈'을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

1. 〈꿈과 현대인〉,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성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284쪽.

2. 이 집지에는 〈꿈만은 나에게〉라는 또 다른 꿈에 대한 시도 실려 있다. 전문은 이렇다.

진주(眞珠)는 상아(象牙)같이 흰 목에 걸어주고/ 장미(薔薇)는 그의 화원(花園)에 피게 하여라.// 또 향연(香煙)은 신감(神龕)에 어리우게 하고/ 사랑은 청춘(靑春)에게 맡기어라.// 그러나, 그러나, 아 신이여/ 그 모든 것의 꿈만은 내게 주소서.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208쪽.

까? 그것은 수주에게 있어 님이요, 조선이 아니고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다.

아래는 1924년 1월 《폐허이후(廢墟以後)》에 실린 <생시에 못뵈을 님을>이다.

생시에 못 뵈을 님을 꿈에나 별가 하여
꿈 가는 푸른 고개 넘기는 넘었으나
꿈조차 흔들리우고 흔들리어
그립던 그대 가까울 듯 멀어라.

아, 미끄럽지 않은 곳에 미끄러져
그대와 나 사이엔 만 리가 격했어라.
다시 못 뵈을 그대의 고운 얼굴
사라지는 옛 꿈보다도 희미하여라.

이 시에서 님은 '그대'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그대와 나 사이엔 만 리가 격했어라."라는 구절처럼 꿈속에서조차 님은 수주와 만나지 못하는 거리감을 둔다.

1939년 10월, 《문장》에 실린 <실제(失題)>이다.

꿈 팔아 외롭 사서
산(山)골에 사팠더니
못 새 그 음성 흥을 내고
가진 꽃 그 모습 자아내니

이슬 풀 그 옷자락 그림다네.

꿈 팔아 외롭 사서
바닷가 사췄더니
물결의 수(數)없는 발 물려들때
하늘과 먼 돛과 모래밭은
서로 짝짓 갖은 추억(追憶) 들추인다

꿈과 외롭 사이 태어나서
외롭과 꿈 사이 숨지나니
별이 하늘에 박힌듯이
달이 허공에 달리듯이
꿈과 외롭의 두 틈 사이
잡자코 말없이 살으리라.

마지막 구에서 수주는 “꿈과 외롭의 두 틈 사이 잡자코 말없이 살으리라.”고 하였다. 수주가 ‘꿈과 외롭의 두 틈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롭이 현실이라면 꿈은 지향하는 곳이다. 당시가 일제의 막바지 발호의 시기였다. 수주에게 꿈은 결코 오지 않을 꿈인지도 모른다. 물론 20세부터 꿈속에서 찾아 헤매던 ‘붉은 그 꽃’은 아직도 보기가 요원하다.

그렇기에 제목조차도 잃어버린 ‘실제(失題)’라 지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미로의 현실과 꿈에도 그리는 조국의 해방 사이에서 서성이는 수주의 마음을 담아내었다. 물론 해방된 조국 또한 그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나라는 신탁통치에, 남북으로 나뉘고, 정치꾼과 이념, 그리고 전

쟁이 이어졌다.

수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시에는 한평생 이러한 부재를 좇은 것에 대한 상념의 일단이 보인다.

오 고달픈 심장이여
너는 길이길이 쉬어라!

나를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크나큰 명상도 사라졌나니

수주는 고달픈 심장을 멈출 때까지 ‘크나큰 명상’을 찾아 헤맸음을 알 수 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수주의 ‘크나큰 명상’은 바로 수주가 청년시절부터 그토록 꿈에서 찾던 ‘붉은 그 꽃’이다. ‘붉은 그 꽃’은 바로 수주의 ‘님’이었다.

그때 수주는 평생 부재(不在)하는 ‘붉은 그 꽃’을 꿈속에서 찾아 헤맨 갈(渴)한 시인이었다. 그는 스스로 자평(自評)하기를 “생(生)의 대분류(大奔流·거세게 내달리듯 빠르고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가 없고 정신의 대비약이 결여되었으며 ‘덕성의 원천 이 고갈’³⁾되었다고 갈(渴)의 원천을 기술하였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수주의 삶이 지나치게 맑으며 그 정신이 지극히 명료하다. 늘 갈증에 시달린 수주의 문제는 조선의 부재, 즉 ‘님의 근원적인 부재’에서 찾아야한다.

따라서 수주의 글쓰기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답경지삼(答京之三)>에서 그 일단을 유추할 수 있다.

3. <나의 자평(自評)>, 변영로 지음, 민중한 역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28쪽

그대가 태사공의 《사기》를 읽었다 하나, 그 글만 읽었지 그 마음은 읽지 못했는가 보구려. 어찌서 그러나하면, ... 아이들이 나비 잡는 것을 보면 사마천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오. 앞다리는 반쯤 구부리고 뒷다리는 비스듬히 추켜든 채 손가락을 벌리고 다가서서 막 잡았는가 싶었는데 나비는 날아가 버립니다. 사방을 돌아보매 아무도 없어 겸연쩍어 씩 웃다가 장차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이것이 사마천의 글 지을 때라오.

태사공 사마천은 궁형(宮刑)을 받고 《사기》를 지었다. 궁형은 사형 다음가는 중형으로 생식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형벌이다. 생식기는 인간 본연의 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모진 형벌이었다. 이런 극단적 형벌을 받고 사마천은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옳으나 그러나(是也非也)’를 외치면서 중국의 역사를 써내려갔으니 이것이 바로 중국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史記)》이다. 궁형으로 불알이 썩어가면서 글을 썼다는 저 사마천의 ‘발분저서설(發憤著書說)’, 그가 ‘시야비야’를 외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확연히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조선 후기를 지조 하나로 살아낸 연암 박지원은 이 혹독하기 짝이 없는 ‘발분저서설’을 그의 글을 짓는 동기로 끌어들었다.

연암은 “아이들이 나비 잡는 것을 보면 사마천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오. 앞다리는 반쯤 구부리고 뒷다리는 비스듬히 추켜든 채 손가락을 벌리고 다가서서 막 잡았는가 싶었는데 나비는 날아가 버립니다. 사방을 돌아보매 아무도 없어 겸연쩍어 씩 웃다가 장차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이것이 사마천의 글 지을 때라오”라고 하였다.

나비를 잡았으면 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세상이

다. 마음을 도스르고 온 힘을 다하여, 이제는 득의의 웃음을 지으려는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결코 나비를 잡지 못하는 사마천의 '부끄러운 듯 성난 듯한 마음(將羞將怒)'이 그려져 있다. 글 쓰는 이로써 연암은 사마천의 저 '장수장노(將羞將怒)'를 든다. 이 말은 시대에 영합하는 글을 통해 출세와 영달은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그래 벼슬 못한 선비로서 세상에 대한 여문 소리를 내는데서 오는 '부끄러운 듯 성난 듯한 마음'을 글 쓰는 이로써 마음에 담겠다는 뜻이다. 연암 선생은 '글재주를 통한 조선후기의 권력과의 환전(換錢)'을 이렇게 차갑게 거절했다.

수주의 글 세계는 조선후기를 글로써 버터낸 강개한 문인 연암 박지원의 저 글과 다를 바 없다. 이제부터 수주의 가량없는 문학 세계를 '갈(渴)'한 자로 되질해 보겠다.

2. 갈^渴한 수주의 일생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는 1898년 5월 9일 지금의 서울 중구 가회동에서 태어나 1961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밀양 변씨(密陽卞氏)인 정상(鼎相), 어머니는 진주 강씨(晉州姜氏)였다. 수주가 태어날 무렵 정상은 군수직을 떠나 서울 가회동에서 살았다. 수주(樹州)는 아호(雅號)이고 초명은 영복(榮福)이었다. 그는 주로 수주라는 아호를 즐겨 썼으며 변영로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영복이란 이름은 22세인 1920년 7월 《학지광》 20호에 〈주의적(主義的) 생활〉이란 글을 발표하며 필명으로 사용하였다.⁴⁾

수주는 1904년 서울 재동보통학교를 입학하여 계동보통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고 1910년 중앙고보의 전신인 중앙학교에 입학하였다. 1912년, 겨우 14살짜리 수주는 체조선생과 마찰을 일으켜 자퇴하고 유유히 만주

4 수주는 영로란 이름이 좋았는지 나이 60세 때인 1958년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 개명하였다.

안동현으로 유람을 떠난다. 이 체조선생과 마찰은 사실 마찰 수준이 아니었으니, 체조선생에게 불량학생이라는 지목을 받자 이에 분개한 수주가 주먹질을 해서였다. 이 일로 수주는 중앙학교 3년으로 퇴학을 당하였다. 수주는 이 해에 반평생 반려자인 첫 부인 평창이씨(平昌李氏) 흥순(興順)과 혼인하였다.

1915년, 18살이 된 수주는 마음을 다잡고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영어반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쳤다. 법관을 지낸 한학자요 영문학자인 만형 변영만(卞榮晩, 1889~1954)과 영문학자로 국무총리를 지낸 중형 변영태(卞榮泰, 1892~1969)와 버금가는 천재임을 증명한 셈이다. 그래, 사람들은 일세의 재주꾼인 이들을 옛 중국의 당송팔대가이던 소순(蘇洵)·소식(蘇軾)·소철(蘇轍) 3부자에 비겨 한국의 3소(三蘇)라고 불렀다.

수주는 1918년 21세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및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를 역임하였다. 이 해에 수주는 《청춘》에 영시 〈Cosmos〉를 발표하여 조선 문단의 총아로 등장하였다. 1919년 기미독립만세가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렸다. ‘조선혼’의 작가다운 첫 발걸음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에 《폐허(廢墟)》5), 1921년에는 《장미촌(薔薇村)》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신민공론(新民公論)》 주필을 지내었다. 또 《폐허》 제2호에 평문 〈메텔링크와 에이츠의 신비사상〉, 《신천지(新天地)》에 논문 〈종교의 오의(奧義)〉, 시 〈꿈밖은 나에게〉·〈나의 꿈은〉 등 5편을 발표하면서 수주라는 이름을 조선 문단에 각인 시켰다. 1922년에도 수주는 《개벽》26·27호에 발자크의 《사막 안에 정열》을 번역하여 신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신생활(新生活)》에 그의 대표작인 〈눈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1921년과

1922년이 그의 문단활동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해였고 수주라는 이름을 조선 문단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두 해였다.

수주는 1923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로 부임하였다. 1924년 27세 이던 해, 우리 문학사의 금자탑이자 수주의 처녀시집 《조선의 마음》이 평문관에서 발행하여 햇별을 찍었다. 이 시집에는 〈버러지도 싫다하올 이 몸이〉를 비롯한 28편의 시와 만필류 8편이 수록되었다. 따지자면 산문이 8편이나 수록되었으니 정확히 시집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내용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이 시집은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발행과 동시에 곧 총독 부에 의하여 압수되어 폐기처분되었기 때문이다. 김용성이 수주는 “세인이 말하듯 한갓 기인(奇人)이라기보다는 일제하의 험난한 형극의 길을 이기고 나가야하는 명예를 진 지조 있는 지성인”⁶⁾으로 정리했듯이 강개한 지사시인(志士詩人)의 첫 시집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25년 이후 1930년까지, 수주라는 아호로 ‘조선일보’ 등에 시와 산문을 발표하였다. 아마도 이때가 수주의 삶 중에서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던 듯하다.

5. 《폐허(廢墟)》(폐허사, 1920.7) 동인은 수주와 오상순, 남궁벽, 황석우, 김억, 염상섭, 이익상, 민태원 등이었다. ‘제호’는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옛것은 멀하고 시대는 변하였다. 내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라는 시구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우리가 황량낙막한 조선의 예원(藝苑)을 개척하여 거기다 무엇을 건설하고 부활하고 이식하여 백화난민한 화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세계 예원의 내용, 외관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조선 문단의 세계화까지 꿈꿨다.

이 《폐허》 동인을 우리 문학사에서 퇴폐적 낭만주의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1919년 31운동의 실패와 일제강점기, 근·현대의 혼란이라는 길항 속에서 고민하는 식민지 청년 지식인들의 고뇌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수주 같은 경우는 어느 작품에서도 퇴폐성을 찾아볼만한 글이 없다.

6. 구자룡 엮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44쪽.(이 글은 김용성, 〈수주 변영로〉, 《한국문학사탐방》, 국민서관, 1973, 94~101쪽을 재수록한 것이다.)

1931년 수주는 보따리를 싸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산호세대학으로 수학하러 떠난다.⁷⁾ 그의 성정으로 보자면 유리벽(流離癖)인지도 모를 유학이었다. 귀국한 수주는 193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고 《신가정(新家庭)》 주간을 지낸다. 1934년 37세인 해, 수주는 첫 부인과 사별하게 된다. 사별하던 해, 수주는 <오비튜아리>(동아일보, 1934)에서 “그가 나와 결혼한 뒤로 1분의 낙이 있었다면 나머지 9분은 고초였었다. …《삼국지》를 다시 쓰고 《트로이 병화》는 다시 뜯어고칠지언정 나의 불민(不敏)으로 그를 고초(苦楚)시킨 것은 적을 길이 바이었다. 가엾은 나의 아내여!”⁸⁾라고 고백하였다. 일제하 조선을 살아가는 조선의 지식인이요, 천재 수주를 남편으로 둔 이씨 부인의 고초를 넉넉히 짐작케 하는 글줄이다. 이씨 부인은 수주와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다.⁹⁾

하지만 수주는 다음 해 양창희(梁昌熈)와 두 번째 혼인을 한다. 양씨 부인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출신으로 진주에서 일신여고 교사를 지내던 신식 여성이었다. 수주가 이전 교수를 지낸 것으로 미루어 두 사람

7. 이때 벗이었던 흥난파와 함께 도미를 하였다.

8. <오비튜아리>,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38쪽.

9. 수주가 첫 부인을 그리며 쓴 시 <간 아내에게>, 시조형식으로 쓴 이 시에서 수주는 기억에 남은 부인을 붙잡고 외락 이는 슬픔을 적어내려 갔다.

지나간 20여년 하루같이 살아오다/ 가는 곳 다른 양 허황히도 나누이니/ 생신 채 꿈만 같아야 어리둥절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뉘우침이 반년언데/ 슬픔은 알다가도 춤해질 때 있건마는/ 뉘우침은 고집스레도 처절 출만 압니다.// 철모른 어려부터 만나 지내 그랬던지/ 남다른 그 무엇을 감감히도 모를러니/ 오늘엔 이 어인 일로 이렇도록 슬플까.// 연락도 없는 일이 갖은 추억 자아내어/ 되불는 불갈이도 외락이는 그 슬픔야/ 쇠어진 마음이어니 아니 녹고 어이리.// 몸 굳어 가려져던 기억마저 실어가고/ 애꿎은 몸만은 뿌리쳐듯 가면서도/ 무슨 일 쫓은 옷같이 기억만은 감기노.// 못 소리 가운데에 괴곡함이 떨어지어/ 귀만은 시끄러나 마음홀로 호젓하고나/ 눈감고 있던 날 음성 들어볼까 합니다.// 고요한 불빛이나 감은 눈에 흔들린다/ 꿈도 아니지만 생시 또한 채는 아닌/ 희미한 그 길이나마 걸어보면 아떠료.

<간 아내에게>,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113~114쪽.

은 사제지간이었다. 수주는 이 양씨 부인과 남은 반평생을 살며 3남 1녀를 둔다. 훗날 양씨 부인은 남편 수주를 “토끼꼬리만큼씩 쓰는 시(詩), 일반사람이 해석하기 꽤 까다로운 쥐꼬리만한 글 좀 쓴다구? 나라가 있으면 정승감이라구? 강태공이 시절 낚듯이 주정뱅이 시인의 아내 노릇을 충실히 하라구?”라고 남편을 회억하였다. 하지만 수주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마지막 읊조린 말이 “양창희, 양창희…”였다 하니, ‘두 사람의 마음이야(兩人心事) 두 사람만 알 것(兩人知)’이다. 이 글을 쓰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기에, 있는 사실만 적바림하고 넘어간다.

1936년, ‘동아일보’는 조선마라톤의 영웅 손기정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다. 수주는 당시 ‘동아일보’에 근무하며 《신가정》 주간을 지내던 그는 표지에 손기정의 다리만 게재해버린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를 떠나게 된다.

이후 수주는 글도 거의 쓰지 못하고 지내다 42세가 되던 1939년 ‘흥업구락부사건’¹⁰⁾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107일간 옥고를 치른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변절에 변절을 거듭하던 시기 수주는 1년에 겨우 한두 편의 시를 발표하며 영어(畵圖) 아닌 영어의 몸

10)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는 1925년에 결성된 기독교계의 항일민족주의운동 단체였고 수주는 이 단체 회원이었다. 이 모임은 1924년 10월 하와이의 이승만을 방문한 YMCA 총무 신홍우가 동지회의 연장 단체를 국내에 조직하기로 합의한 후, 귀국하여 이상재·윤치호·유억겸·안재홍 등의 동의를 얻어 1925년 3월 흥업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수주가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왔으나 실상 그가 이승만을 존경했다는 글은 찾을 수 없다.

이 흥업구락부는 3년경부터 내부 분열에 휩싸이며 쇠퇴하게 되었고 1934년경에 이르러서는 일부 회원들이 일제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회원 간의 결속력이 와해되었다. 시나브로 흥업구락부는 친목도모 수준의 명맥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뿐, 사실상의 활동정지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1938년 난데없이 이 단체의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발생하였고, 흥업구락부는 마침내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후 회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하여 민족말살정책의 보조세력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윤치호·신홍우·유억겸·정춘수 등이 변절을 하였다.

으로 일제 말을 건네낸다. 그 몇 편의 시가 바로 <실제(失題)>와 <사벽송(四壁頌)> 등이다.

1945년 해방 되던 해, 수주의 나이 이미 50을 바라보는 48세였다. 그러나 '나라가 있으면 정승감' 이라던 수주는 1946년에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 자리가 고작이었다. 1950년에 해군사관학교 영어교관으로 부임, 1953년에 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이사장에 취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초대 위원장, 영문일간지 'korean Republic' 을 주재하여 발간, 1955년에는 제27차 비엔나국제펜클럽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이 해에 이른바 '선성모욕사건' 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수 자리를 박탈당한다. 광복 후 수주는 주로 교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글을 쓰는 한편 대 내외에 한국문단을 알리는 일에 힘썼다.

1960년, 어느덧 환갑을 지낸 63세인 수주는 《사상계》 78호에 그의 마지막 작품인 <장미촌>을 발표하고 다음 해, 64세로 갈(渴)한 문인으로서의 생을 마감하였다.

수주는 창작 활동 초기부터 과작(寡作)의 시인이었다. 저서로 수필집 《명정사십년(醜酉四十年)》(1953) · 《수주시문선(樹州詩文選)》(1959) · 한국 최초의 영문시집인 《진달래동산(Grove of Azalea)》(1948)을 편집¹¹⁾하였다. 통계로 보면 한 해에 5, 6편 정도를 발표하였을 뿐이니, 양씨 부인이 지적했듯이 '토끼꼬리만큼씩 쓰는 시(詩)' 였다. 과작인 수주의 시 작품들은 가락이 부드럽고 말씨가 정서적이며, 작품 기저에는 항상 세상과 불화¹²⁾, 그리고 민족혼¹³⁾이 들어있다. 천재의 삶치고는 참으로 갈(渴)한

11) 제호는 이승만이 썼으며, 변영태(5대 국무총리), 김규식(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경연(본명 전경무, 재미 독립 운동가), 장익봉(성균관 대학교 교수), 이인수(고대 교수), 강용홍(재미 작가), 그리고 변영로 순으로 되어있다. 변영태, 강용홍, 수주는 우리 고시조를 번역해 실은 것이 흥미롭다.

일생이니, 문단의 후배이자 《장미촌》의 동인인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는 “수주의 인품은 형산(荊山)의 옥이요, 수주의 인격은 호젓한 유곡(幽谷)속에 홀로 핀 난초”¹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선편 논고(論考)들을 보면 그의 시세계를 크게 3기로 나누고 있다.

1기는 시집 《조선의 마음》이 발간되기까지이다. 길 잃은 민족시인으로 서의 의식이 표출된 시기이다. 이 무렵의 대표작으로 <눈(眼)>, <논개>(개제: <그 마음 흘러라>) 등이 보인다. 이 시기부터 수주는 그리운 대상인 님과 영원히 화합하지 못한다.

2기는 그 뒤부터 광복까지의 시기이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인식에서 오는 절망감 속에서도 선비적 절개와 지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잘 드러

12 수주의 울공고 순수한 성격은 세상과 불화하였다. 그는 오직 시와 만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화롭게 가꾸고자 하였다. <무제>에는 이러한 수주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이 시에서 수주는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여 ‘제호미’에 잠긴다고 하였다. 제호미는 불교 용어이다. 우유를 정제하는 과정을 5단계의 맛으로 나누어 각각을 유미(乳味)·낙미(酪味)·생수미(生?味)·숙수미(熟?味)·제호미(醍?味)라고 한다. 이 중에서 제호미가 최고의 맛으로 정하여 불가의 열반에 비유한다. 이 시에서 ‘제호미’는 수주의 시세계이니, 시를 자신의 열반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무제1>

나의 입은 거북마냥/ 담배 연기 안개를 피워/ 일체의 잡음과 부조리와/ 일체의 중압과 불어의(不如意)/ 가슴 깊이 안은채// 나와 나 아닌 것의 위치와 거리의 간극(間隙)을/ 자유로 도회(鎗海)하고 조 절하여/ 하나의 조화의 세계를 창조하여/ 그 제호미(醍?味)에 잠긴다.

13 수주는 평생을 조국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해방 후에도 수주의 관심은 조국이었다. <불멸의 함성>이란 시는 38년 전 31운동을 회고하며 지은 시이다.

<불멸의 함성>-38년 전 그날의 회억(回憶)

1/ 기미년 이달 이날 기록된 그 외우침/ 이저(耳抵)에 쟁연(鏗然)탈까 굉연(轟然)탈까 가시잖네/ 눈 감고 다시 듣자니 가슴 무여 지노라// 2/ 봉화 든 제 없이 통문 든 제 없이/ 근역(楹域) 삼천리 방방 곡곡 같은 함성/ 그 입은 삼천만이나 소린 하나이터니// 3/ 오늘엔 남북양단(南北兩斷) 소리도 가지 가지/ 기미년 그 불사혼(不死魂) 어느 곳에 찾아보리/ 잿더미 불고 또 불어 불씨 살려 볼거나

14 변영로, 《명정사십년》, 서울신문사, 1963, 1쪽.

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실제(失題)>·<사벽송(四壁頌)> 등을 들 수 있다.

3기는 광복부터 사망까지이다. <똥은 되었건만>과 같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적 시를 주로 썼지만 삶은 여전히 갈(渴)하였다.

수주는 평생 두 개의 직업을 가졌다. 시인 겸 만필가인 문학인이 하나요, 영문학 교수이며, 번역가인 영문학자가 둘이었다.

1948년에 서울시문화상(문학부분)을 수상하였다.

1961년 인후암으로 별세하여 현재 경기도 오정구 고강동 313번지 선산에 묻혔다. 이후 1998년 수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묘소 앞에 기념비를 세웠고 1999년 부천시에서 '수주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¹⁵⁾

15 수주의 작품과 가계(家系) 및 연보는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부록'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갈(渴)한 인생으로서 수주

“갈(渴)한 자가 나의 삶을 상징도 하고 대변도 할 것이다.”¹⁶⁾

‘목마를 갈(渴)’ 갈한 시인 변영로(卞榮魯, 1898~1961)로가 자신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호를 수주(樹州)로 한 것에 <나의 아호 나의 이명>에서 다섯 가지의 변을 붙였다. ‘향(響)이 속되지 않기에, 별 의미가 없기에, 호로 나올만한 글자가 없기에, 나무같이 신선하고 골같이 넓이가 있고 싶어서, 출생치 않은 고향 부천의 옛 지명’¹⁷⁾이 그가 수주라는 호를 쓰는 이유라 하였다.

그의 말대로 수주는 성격이 초조하니 만큼 마음의 발로가 발하여 글로 승화시켰다. 이유는 당대의 근원적인 갈(渴)때문이었다. 근원적인 갈(渴)은 ‘님의 부재’이다. 그의 1924년, 첫 시집 《조선의 마음》에 실린 <눈

16 구자룡 엮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37쪽.(이 글은 이어령 편, 《새 자료조사를 통한한국작가 전기연구》 상, 동화출판공사, 1975, 177~193쪽을 재수록한 것이다.)

17. <나의 아호 나의 이명>(동아일보, 1934.4.5)

(眼)에서 그 같은 마음을 읽어 본다.

눈[眼]

아릿다운 그대
그대의 눈씨는 실버들 가지
엇지나 실이 나뭇기는지
나의 갈 길 일었세라

길 일흔 나, 길 일흔 나,
들로 별로 허매이다가
혹시 그대 밋등에 브듯거든
길 일헛다 차저온 줄 아소¹⁸⁾

“길 잃은 나, 길 잃은 나”, 수주는 길을 잃었다. 그것은 망국의 지식인으로 살았기에 느끼는 ‘그대’라고 지칭된 ‘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수주에게 ‘님’은 망국의 조국이요, 그리움의 대상이요, 애인이었다. 바로 이 님의 부재가 수주의 갈(渴)의 수원지(水源池)였다.

18 구자룡 역음, 《시집》 조선의 마음, 수주 변영로 시집 발간 90주년 기념, 산과들, 2014, 30-31쪽(영인)

방랑의 노래

바다에 계신 그대를
더음로 찾아 다녔어라

그래 더을인가 하고 가보니
그대는 그곳에도 안 계셔라

역시 《조선의 마음》에 실린 시이다. '바다에 있는 그대' 를 '들' 에 가서 찾는다. 그랬다. 수주의 님은 그에게 곁을 허락지 못하였다. 이미 수주의 님은 제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갈증의 근원이었다.

하지만 수주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盜泉)의 물은 마시지 않았다. 수주는 아무리 궁해도 불의(不義)는 저지르지도 정의를 멀리하지도 않는다. 갈불음도천수(渴不飲盜泉水)¹⁹ 일진저! 아마도 이는 수주에게 걸 맞는 말일 듯하다.

단순히 수주를 그의 아들들에 빗대어 “철수(장남)는 비현실적인 것, 공수(3남)는 고집쟁이이며 욕박지르는 것, 갑수(4남)는 술 먹는 것, 문수(5남)는 모양내는 것”²⁰이라고 폄하할 수도 없다. 수주의 삶은 '저 하늘엔 별, 내 마음엔 도덕률의 엄격한 준행' 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갈한 수주는

19. 이 말은 《설원(設苑)》에서 유래하였다. 그 유래는 이렇다. 공자(孔子)가 길을 건다가 목이 말랐다. 마침 옆에 샘물이 있어 마시려 하다가 샘물 이름이 도천이라는 말을 듣고 마시지 않았다. 도천이란 '도적의 샘물' 이기에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군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

20. 구자룡 역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28쪽.(이 글은 이어령 면 《새 자료조사를 통한 한국작가 전기연구》 상, 동화출판공사, 1975, 177~183쪽을 재수록한 것이다.)

독서마저도 갈하게 하였다. 40년 독서량이 겨우 '기백 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속에서 그의 글이 과작인 이유도 간취할 수 있다.

“나는 독서 40년에 만지거나 들추어 본 서적은 기천 기만 권으로 산(算)할 것이나 참으로 애독, 숙독, 탐독한 서책은 기백 권에 불과하리라. 한우충동(汗牛充棟)이니 오거서적(五車書籍)이란 나에게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일종 중원식(中原式)인 부사(浮辭: 헛된 말)한 수허(修虛: 헛된 수사)인 것이다. …갈(渴)이 심하여 심천(深泉) 대정(大井)을 음서(飲書)하였다는 과장도 있을까? 나는 누구의 저서이고 개권(開卷) 후 한 페이지, 많아서 2,3페이지만 훑어보면 가독(可讀), 불가독의 판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대개는 그 내용까지도 감득(感得)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말하자면 일종의 섬독(閃讀)이요, 일종의 감독(感讀)이며 일종의 후독(嗅讀)이었다.”²¹⁾

(1) 모럴리스트

“같은 말이나 도덕가라면 더욱 쑥스런 말인 듯하여 외래어인 모럴리스트란 말로 대응하는 바 나는 모럴리스트로 자인한다. …나는 거의 배냇병신의 모럴리스트임을 되풀이하여 말하려 한다. …나는 모럴리스트, 뜯어고칠 수 없는 수 없는 모럴리스트임을 신명 앞에서까지라도 외칠 용기와

21 <독서 사견(私見)>,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93~194쪽.

자신이 있다. …불결, 불순, 부정, 불의를 대할 때면 거의 본능적-모든 이론을 초월하여-으로 혐기(嫌忌)를 질리는 듯이 느끼는 까닭이다.”²²⁾

수주는 자신을 ‘모럴리스트(도덕주의자)’라고 하였다. 수주가 생각하는 모럴은 단순한 위선적 도덕군자(moral monger: 道德行商)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모럴은 불결, 불순, 부정, 불의에 대한 혐오(嫌惡: hatred)였다. 그렇기에 자신을 모럴리스트라 자임하는 수주다. 이어지는 글에서 수주는 세 가지를 자신과 뇌맹(牢盟: 굳게 맹서)하였다고 한다. 그 세 가지는 “사람이나 세상을 속이지 않을 것, 헤로리아스 왕적(王的) 권력 앞에 살로 춤은 아니 출 것,²³⁾ 앞뒤를 재어 못나게 비켜서거나 곧은 길 버리고 뺑뺑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저 하늘엔 별, 내 마음엔 도덕률을 준행’ 하겠다는 다짐이고 이를 실천하였으니 도덕군자라고 자임하는 그누가 또 저러한 글을 쓸 수 있던가.

그는 <천경 오십>²⁴⁾에서 나이 오십에 이르는 사회는 “불가추급(不可

21 <독서 사건(私見)>,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93~194쪽.

22 <돌, 도덕행상>,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14쪽.

23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다. ‘헤로리아스’는 헤로디아로 헤롯왕의 제수이자 아내였다. ‘살로’는 살로메로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헤로디아가 헤롯왕과 혼인한 것을 두고 요한 이 비난을 하자 헤롯은 감옥에 넣어버리고 죽일 공리를 하던 차에 연회가 베풀어졌다. 이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춤을 췄다. 그러자 헤롯은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한다. 이에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 해야 하는가를 묻게 되고,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잘못된 만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헤롯은 그 청을 들어주게 되고, 딸 살로메의 손에는 세례요한의 잘린 목이 소반에 담겨 주어진다. 수주는 여기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수주의 인용처럼 살로메가 잘라낸 복리를 탐하여 헤로디아의 권력 앞에 굴복하여 춤을 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4 <천경 오십>,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19쪽.

追及)에의 끝도 밑도 없는 갈구”라고 하였다. 이미 나이 오십에 자신의 갈한 마음을 잃어 낸 것이다. 그의 갈한 삶에서 그의 말대로 승리의 환희를 맛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모더니스트 수수였기에 벗조차도 같하였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가 좋아하는 문인들을 찾아보면 월남 이상재, 단재 신채호, 유억겸(俞億兼, 1895~1947)²⁵⁾, 공초 오상순, 그리고 해외에선 빅토로 위고 정도가 고작이다. 수주가 적어 놓은 위고의 일화를 보면 수주의 벗을 대하는 성품을 알 수 있다.

- 나폴레옹 3세 밑에 들어가기 싫다고 ‘보나파르트 군’이라고 평생 부른 점.

- 영국 귀족이 위고의 작품 중, ‘툼짐 잭’이라는 영국 귀족 이름이 채 신머리없다며 재판(再版) 때 바꾸어 달라고 하자 ‘그대는 영국인이지만 나는 빅토로 위고이다’ 라며 바꾸지 않은 점.

25. 어릴 때부터 벗으로 ‘부지런함’과 ‘청빈’을 기렸다.

〈근(勤)의 인(人) 유억겸〉,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역음, 위의 책, 199~198쪽 참조

유억겸은 《서유견문》의 저자인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막내아우이다. 개화혁명가요, 친일파이기도 한 유길준은 합방을 거부하고 일제가 준 남작도 거절했지만 은사금은 받았다. 친일과 반일의 줄타기를 한 그와는 달리 동생인 성준, 만겸, 억겸은 모두 친일파가 되었다.

유억겸(俞億兼, 1895~1947)은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5대 교장을 지냈다. 그는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 이후 친일의 길로 들어섰다. 일제말기 친일단체를 대표하였던 단체가 임전보국단이었는데, 유억겸은 이 단체의 이사였고 형 유만겸은 평의원이었다. 그는 연희전문 의 부교장으로서 자신의 학생을 전장으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수주가 이를 알면서도 유억겸에 대해 글을 쓴 것은 아마도 유억겸의 상가에 가서 본 쓸쓸함과 문상 온 사람들에게 식사조차 제공치 못할 정도의 ‘청빈’을 기려서인 듯하다. 실상 수주는 자신은 평생 지조를 지켰지만 일제치하의 최남선, 이광수, 모윤숙 등 휘절문인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

－. 백파이프를 벽파이프로 오기하였다는 지적에 '내가 벽파이프로 썼으면 그것이 맞다' 라고 맞선 점.

－. 보불전쟁 때 프로이센 황제에게 '당신은 황제이나 난 대 시인인 즉, 동등하니 우리 둘의 결투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 라고 한 점²⁶⁾

수주의 글이 갈(渴)하기에 단순한 일화로 볼 수 없다. 수주의 성품과 위고의 일화가 적실히 이어지기에 말이다.

(2) 이혼환주 以魂換酒

“나의 반 넘은 일생을 오도한 최대 최악의 꼬투리는 유·소년부터의 난데없는 오기와 불길 없는 생막감(生莫感)으로 여타인(與他人) 무리지지 않으려는 상서롭지 못한 유리벽(流離僻)과 성배(聖杯)나 찾으러 가는 고대 기사와 같이 만인 병진하는 횡한 탄도(坦道)를 버리고 길 없는 길을 찾고 주楫(舟楫)없는 강하(江河)를 건너려는 맹랑스런 모험—줄여서 말하면 불가추급(不可追及)에의 밀도 끝도 없는 갈구…그러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호언(豪言)일는지 모르지만 난 이제까지 비굴한 타협이나 값싼 추종을 한 적이 없었다.”²⁷⁾

수주가 오십 당년을 맞아 쓴 <천경 오십>이다. 그는 이 글에서 “호롱하

26. <위고의 자대증(自大症)>,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009, 183쪽.

27. <천경(賤庚) 오십>,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9쪽.

롱 덧없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부끄러운 나이 오십"이라는 썼지만 어디 수주의 삶이 그렇던가. 수주는 결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하여가(何如歌)' 류의 삶-, 남의 눈비음을 맞추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 비록 수주의 삶이 '맹랑스런 모험'으로 인한 '끝도 없는 갈구' 일지라도 그는 '비굴한 타협이나 값싼 추종'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수주의 '다른 이들과 무리지지 않으려는 상서롭지 못한 유리벽(流離癖)'도 단순한 '치우칠 벽(癖)'으로 볼 수 없다.

'조선의 서얼(庶孽)'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백화보서(百花譜序)>에서 수주의 저 '벽(癖)'을 "사람이 벽(癖)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일 뿐이다. 무릇 벽이란 글자는 질병이 따르고 치우침이 따르니 병이 편벽된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홀로 나아가는 정신세계를 갖추고 전문적 기예를 익히는 자는 왕왕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고집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조선의 서얼', 사람이기조차 죄송한 서얼 박제가에게 있어 벽은 고집으로 세상을 버터내는 저 이의 아픈 마음이다. 이 마음은 세상과 단호히 맞서는 마음의 결기요, 단연코 제 삶을 얼레빗질 않겠다는 불끈 쥔 두 손등으로 솟는 새파란 힘줄이다. 그래야 저 잘난 양반들 한구석에서나마 이 세상을 살아내지 않았겠는가.

저 시절, 조선의 서얼로 살아가는 이의 마음을 어렵잡아 보는 저 글에서 수주의 벽도 읽을 수 있다. 일제 말, 모두들 친일의 길을 걸을 때, 수주가 버틴 삶인 <사벽송(四壁頌)>의 '담 벽(壁)'도 바로 이 '벽(癖)'과 동일어이다.

사벽송(四壁頌)

밖에 비가 오는지도 모른다
또는 바람마저 부는지도 모른다
단 한간인 내 방(房)에 벽(壁)안만은
천심(千尋) 물속 같이 고요킬래.

남의 곡식 먹는 참새같이
나면서 가난한 나인 바에
이 누리안 의지할 곳 어테인가
이 누리안 고마울 것 무엇인가
초라한 채 몸 담은 이 네 벽(壁) 뿐을.

바람만 뚫지 않고
비만 스미지 않는다면.
아아 이 네 벽(壁)의 '수호(守護)' 없든들
내 이제 어테를 해매었을고
생각만 하여도 놀라웁고너.

네 벽이 나를 지키이매
내 또한 네 벽(壁)을 길이 지키리라.
촌보(寸步)라도 네 벽(壁)을 내어디디면
그 네 벽(壁) 밖은 수토(殊土)요 이향(異鄉)이리.

이 시는 1943년 7월, 《춘추(春秋)》에 실린 시이다. 저 '네 백'이 바로 지조를 지키기 위해, 가난을 숨처럼 삼키면서도 수주를 지킨 것이요,²⁸⁾ 오늘날 일제 강점기 지조를 지킨 몇 안 되는 시인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수주의 술주정 또한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된다. 술과 관련된 수주의 행동을 술꾼으로서 주사(酒邪)로만 볼 수 없어서다.

다시 위 <천경 오십>에 이어지는 글이다.

“이백(李白)이나 베를렌의 시재(詩才)는 없이 주신(酒神)의 사도(使徒) 됨에는 그네들에게 소호(小毫)도 낙후되지 않을 정도로 배작(盃酌)과 사권지도 벌써 삼십여 년-전의고주(典衣沽酒: 옷을 전당 잡히어 술을 삼)는 커녕 이혼환주(以魂換酒: 혼을 팔아 술을 삼)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자책 자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명정(酩酊: 만취)에 침취(沈醉: 몹시 취함)한다고 순간적인 망각은 몰라도 자위가 되거나 겁화(劫火)가 꺼질 리도 없을뿐더러 부시(不?), 생활을 방랑케 하고 누를 주위에 끼치는 과오를 저지르는 곡절은 약지박 행으로나 들릴까 변해(辯解: 말로 풀어 밝힘)할 말을 찾을 길이 없다.”²⁹⁾

김병익씨는 수주의 “통음은 울분을 곧이곧대로 풀 수 없었던 압제 속 지식인의 가장 절절한 카타르시스의 한 방편”³⁰⁾이라고 하였다. 직확한 표현이다.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라고 음주사회를 토혈(吐血)했던 현진건의 《술 권한

28. 수주의 가난에 대해서는 변천수, <멋쟁이 아버지 변영로>,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구 물결 허드슨 강으로 흘렀네》, 콤란 출판사, 2006 참조.

29. <천경(賤庚) 오십>, 변영로 지음, 민중한 엮음, 위의 책, 20쪽.

30. 김병익, 《한국 문단사》, 일지사, 1973, 59쪽.

는 사회)나 수주의 《명정 사십년》이나 다를 바 없다. 수주가 '전의고주'와 '이혼환주' 한 짓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수주는 딱히 변해할 말이 없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한들 순간적인 망각일 뿐, 위로가 되거나 속에 있는 울화가 꺼질 리도 없다'라는 문장에서 수주의 마음을 읽는 것이 무에 어려운가.

“옛날 나르시스란 미소년이 제 얼굴에 반해가지고 에코란 곱살스러운 산간 소저(小姐)의 사랑을 본체만체하여 에코는 곡간(谷間)에 그 애처로운 소리만을 남기고 민사(悶死)하였던 것이다. 슬프다. 세상이 나에게서 나르시스요, 나는 성 다른 에코런가!”³¹⁾

수주는 '세상인 나르시스에게 버림받은 에코가 자신'이라는 슬픈 독백이다. 수주에게 있어 술은 삶의 목적이 아닌, 세상을 살아내는 수단일 뿐이었다. 수주는 결코 옷을 전당 잡히어 술을 사 마실지언정, 혼을 팔아 술을 사 마시지도 않았으며 결코 '명정에 침취' 치도 않았다.³²⁾

31. 〈말하는 병어리〉,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49쪽.

32. 일석 이희승은 수주의 비문에 그의 명정을 이렇게 적바림했다.

“거의 일생을 술로 더불어 시종하였으니 남달리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로서는 삼십육 년 간 가혹한 왜정의 질곡 속에서 생생한 본 정신을 가지고는 비분강개의 나머지 실진(失真·실성)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탓으로 호리(壺裡)든가, 《명정사십년》이란 그의 저서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일석은 수주의 술 세계를 질곡의 시대에서 찾고 있다.

(3) 전통 중시

수주는 전통을 중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무도 시류에 쫓고 따르기만 하는데 급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대한의 노력과 시간을 짜아 내어 동서의 고전과 친하여져야 할 것이다. 고사(古槎) 등진 매화 없듯이 고전 저버린 신문학이나 신예술이 있을 수 없다. 유명한 독일의 작가 토마스만도 고문화에 뿌리박지 않은 신문화는 없다고 말하였다.

‘고(古) 없는 ‘신(新)은 다시 말하면 전통 없는 것은 모두가 거품이요, 헛꽃이요, 거짓 새벽[曙]이다.’³³⁾

수주는 고(古)를 숭상하거나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시류를 좇기에 급급한 세상을 나무란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는 ‘고전 저버린 신문학이나 신예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였다. 수주의 글에서 고어투의 한문이나 고유어가 빈번히 보이는 것도, 해박한 지식으로 고전을 두루 인용하는 것은 모두 이에 연유한다.

〈보시오 하시오 마시오〉에서는 “남의 글 알고 남의 일 알면서 내 글은 모르고 내 일은 모르면서 어떠타 할는지 생각해 보시오, 분명코 지묘한 우리의 언문 모르면 못 쓰고 안 해선 안 되니 뜨거운 맘으로 공부를 하시오.”³⁴⁾라고 하였다.

33 <독서 사건(私見)>,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009, 194쪽.

34. <보시오 하시오 마시오>,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009, 291쪽.

〈유사 노동자〉 같은 글에서는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한 것을 “땃개비 속같이 마음이 텅” 비었다며 꾸짖는다. 또 〈삼중역적(三重譯的) 문예〉에서는 우리 문단이 일본 영향권 안에 있다며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의타(依他)치 않는 우리 민족적 사상과 감정 이상을 표현하는 자립적 문학의 필요를 인식” 하라고 촉구하며 참괴육니(慙愧怱泥:매우 부끄럽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끄러워한다.

임화는 《신문학사》에서 최남선과 이광수를 운운하며 저 시절을 ‘서구적 문학의 이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또한 많은 문인들이 서구작품을 전적으로 사숙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실상 수주도 영문학을 전공했고 영시 번역도 하였다. 하지만 수주는 저들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을 강조하는 문학세계를 추구하였다.

수주가 지향하는 전통은 바로 우리의 민족자존에 대한 주체성 촉구이다. 〈오직 하나인 진리〉에는 수주의 이러한 의식이 노정되어 있다. 수주에게 오직 하나인 진리는 바로 ‘제 나라, 제 겨레’인 민족이라는 전통이었다.

오직 하나인 진리

갈피 알 길 없는 이 누리에
 자신 있게 말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단 하나 서슴지 않고 외칠 것은
 제 나라를 잊고 제 겨레와 등을 짐은
 죽되 두 벌 죽음을 죽음이어니

수(壽)가 다하여 죽으면 몸이 죽음이요
살아선 그 심혼(心魂)의 죽음을 뜻함이라.

어느 사람 들었는대 어느 뉘 보았는대
제 나라 제 겨레에 불의불충(不義不忠)하고서야
남에겐들 참되리란 그 소리를? 그 모습을?
제 겨레의 이반자(離反者)는 세계의 이반자며
제 나라의 반역자(叛逆者)는 인류의 반역자라
둘 아닌 진리 인광(刃光) 같이 번뜩인다!
그네의 눈엔 조요(照耀)하는 양광(陽光) 밤그늘 같을게요
꽃의 향기도 시와(屍臥)인냥 코에 맡칠지라
가엾이도 그릇된 생각 찬입김 불어내매
꽃은 시들고 노래는 그치고 눈물마저 말랐거니
제 아버지 미웁다 머나먼 곳 쫓을게매
제 자식 먹을 것 이쉬워 남의 아들 줄거나!³⁵⁾

(4) 선성모욕(先聖侮辱)

갈(渴)한 수주를 삶을 이해하는 한 사건이 있다. 바로 '선성모욕'이다.
이른바 성인을 모욕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성인이란 공자와 맹자요, 또

35. <오직 하나인 진리>,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134~135쪽.

36. <불혹(不惑)과 부동심(不動心)>,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심문영위원회, 2009, 282쪽.

욕이란 공자 불혹과 맹자의 부동심을 두고 한 말이니 이렇다.

“‘위대한 위선자’인 공자의 40 불혹(不惑)과 ‘절세의 데마고기’인 맹자의 40 부동심(不動心)은 치둔(癡鈍), 열약(劣弱)한 우리 후생(後生)에게는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이요, 극복할 수 없는 난행(難行)이며, 반등(攀登)할 수 없는 (도덕적) 고봉(高峰)이다.”³⁶⁾

이 글을 두고 수주는 전국 유림대회(儒林大會)의 성토를 받게 되었다. 결국 수주는 두 해 남긴 60이요, 교편생활 40년간 초기록을 짓는 ‘필화’로 인한 파면을 당하고 만다. 바로 수주가 10년을 봉직한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시켜버린 것이다. 학교 측의 논리는 간단하였다. 유교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대학에서 성현(聖賢)을 모욕하였으니 교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수주는 파면당한 지 4일 만에 <독서 문맹>이란 칼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담담히 써 내려갔다. 수주의 호한한 글 줄기를 따라가자면 이렇다.

“파면한 죄목은 어마어마하게도 ‘선성모욕(先聖侮辱)’이다. 도대체로 무엇이 선성모욕이란 말인가? 공자를 ‘위대한 위선자’라하고 맹자를 ‘절세의 데마고기’이란 화액초래(禍厄招來)의 부적의(不適宜)한 형용사가 선성모욕의 무엄한 불손(不遜)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구차한 강변 같기도 하지만?학문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학원에서 더욱이 교수에게 비록 선성일지라도 그의 인격이나 사상에 비판 내지 검토가 가해질 자유가 부여되는 것이다.”³⁷⁾

37. <독서 문맹(文盲)>,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72쪽.

수주는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학이기에 선성일지라도 인격이나 사상에 비판 내지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글은 선성모욕이 아닌 풍자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잇는다.

“독서한 문맹(文盲)인 ‘문(文)’의 의미는 포착치 못하고 ‘자(字)’에만 시안(視眼)이 교착된 고루막심(高魯막심)의 유생들이 아니고는 “선성모욕에 대하여 유도(儒道)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본교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음” 운운할 자는 보천지하(普天之下)에 1인도 없을 것이다. …시비곡직(是非曲直)은 다만 사회 여론의 재단(裁斷)에 일임하며 끝으로 하루바삐 고루 천견(淺見)한 유생의 계몽이 있어 학원의 광명이 도래될 것을 비는 바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회 있고 필요 있으면 다시 쓰려한다.”³⁸⁾

수주의 말대로 이 일이야말로 고루막심한 유생들, 즉 성균관 대학을 임의 자행하던 이들의 짓임은 모두 아는 바이기에 더 철회는 쓰지 않는다.³⁹⁾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수주의 대항 자세이다. 수주는 글로써 자신의 웅변하였고 글로써 자신의 파면을 변론하겠다는 당당함이다.⁴⁰⁾

마지막에 수주는 기회 있고 필요 있으면 다시 쓴다고 하였지만 이후 글은 찾을 수 없다. 수주는 다시 야인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 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아니 애초부터 수주에게 편안한 삶이란 언간생심이었을 지도 모른다.

38. 위의글

39. <독서 문맹(文盲)>을 읽어보면 수주는 학내문제에서 학교 측과 대항하는 입장을 알 수 있다.

40. 이를 두고 부천에 사는 법무사 박병환(朴炳煥 · 65 · 원미구 상동)씨가 1965년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변영로를 복권해 달라며 최근 성균관대총장 앞으로 청원서를 보냈다.

사후 결과는 알 수 없다.

수주는 여럿이 아닌, 혼자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포도(鋪道)를 걸으며>(새벽, 1956.9)는 나이 60줄의 작품이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 길을 걷는다.

포도鋪道를 걸으며

다져 놓은 거리 걸으면서
넓고 푸른 그 풀밭과
종알거리는 시냇물이
그지없이 그리웁다.

가로수 가지가지에
기이한 새 날으는 듯
어디선지 모르며도
시슴 노루 뛰노는 듯.

오고가는 수없는 얼굴
아침저녁 지나치건만
낮설고 붙임성 없어
그 얼굴 찾고 찾고

얼떨결 허투 보고서
반가움에 가슴 뛰다도

낮밥에 못 잇는 그 아니매
쓸쓸히 걷던 길 걸을뿐.

혼자일 때 외로움은
추억으로나 벗 삼긴만
못사람 틈 외로움은
그지없이 서운코나.

저 난 고향 살면서도
나그넨 양 서투를 뿐
먹고 자긴 제집이나
울고 우네 아닌 성하여.

5연의 “혼자일 때 외로움은 추억으로나 벗 삼긴만 못사람 틈 외로움은 그지없이 서운코나.”라는 구절은 수주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그렇기에 수주는 “저 난 고향 살면서도 나그넨 양 서투를 뿐”이라고까지 한다. 이 절절한 외로움, 고독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님의 부재’로부터 시작한 존재론적인 문제가 발원지였다.

4. 갈^渴한 문인으로서 변영로

“영국 문단에 일찍이 오스카 와일드가 있었고 또 버나드 쇼가 있었는데, 수주는 이 두 사람을 한데 합친 듯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다방을 순례하며 담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술을 좋아해도 거리에서 귀염 받는 신사였다.”

수주의 부음을 접하고 문우(文友)였던 정인섭(鄭寅燮)씨는 이렇게 애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갈^渴한 문인 수주를 과연 저렇게 평할 수 있을까?

갈^渴한 문인, 수주는 이러한 시인이었다.

“시(詩)는 짓는 것이 아니고 발(發)하는 것이어야 하며
눈물 가태야 하고 한숨 가태야 하며
때로는 애소(哀訴)요 때로는 노호(怒號)이어야 한다.” - 樹洲

《한국시인전집》1권(학우사, 1955)에 실린 글이다. 가슴 저 밑에서 우러 나온 글, 그래 그 글은 한숨과 가래요, 슬픔이요, 성남인 글이다. 글의 외 피가 삶의 외피가 이야기와 술을 잘하는 귀염성 있는 신사라하여 글의 내 연을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가 살아왔던 일제와 해방,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호 길항 속에서 부단히 자신과 조국을 생각한 수주였다. 늘 힘겨운 조국과 그 조국을 바라보는 자신이기에 그의 시는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작품 또한 그러하였다.

그는 갈한 마음, 갈한 붓질로 생전 4편의 시집(영시집 2편 포함)과 2편의 수필집을 출간하며 합쳐야 300여 편 정도밖에 남기지 않는다. 21살부터 문학계에 발을 들였으니 40여년 문단 생활치고는 너무 박한 편이다. 그 중, 시는 번역시까지 포함하여 150여 편, 《명정 사십년》에 실린 72편, 《수주 수상록》⁴¹⁾에 실린 기행문 2편을 합친 수필류가 70여 편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작품을 헤아려보면 갈(渴)한 문인 수주는 시인이기도 하였지만 외려만 필가가 더 어울릴법하다. 작품의 양으로 본다면 수필류가 적지 않아서다.

수주의 수필을 수주식으로 칭한다면 만문(漫文)이다. 그는 만문가도 ‘문예 대권속의 일원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다. 수주는 만문의 특색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만문의 ‘특색 없는 특색’은 ‘교묘한 반어와 역설’, ‘분방 자재한 상화(想華)’, ‘경쾌한 해학’, ‘세련된 취미’, ‘정확한 식견’, ‘중후치 않은 풍자와 계시’ 등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착지는 같더라도 인생을 ‘형극

41. 이 책은 1964년에 이상로가 편수하였다.

(荊棘) 많은 진리의 직로(直路)로 안내치 않고 우회는 할망정 ‘꽃피고 새우는 반진리(半眞理)의 셋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고” 42)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수주의 수필은 만문일시 적실하다. 그렇지만 그는 ‘꽃피고 새우는 반진리(半眞理)의 셋길’이라고 만필을 다른 문학에 비하여 한 손 접는 듯이 하였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위 글에 이어 수주는 만문가의 자격으로 ‘지식은 풍부하고 언어는 능하고 기국(器局)은 커야 하며 안광은 형형(炯炯)’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주는 글을 예사로이 짓지 않았다.

“남이 십 행 쓸 것이면 일 행으로 줄이고 남이 백 행 쓸 것이면 십 행으로 오그리는 것이 나의 고질이라면 고질이겠다.”…내 또한 명색이 문필에 종사한 지 어언 30여 년간 시(詩) 기(幾) 10편 빼놓고 이 책에 수록된 단문 만필(漫筆)이 나의 문예적 수확의 거의 총화다. -영문으로 쓴 것, 명정기(醞酒記) 등등도 있지만” 43)

문인으로서 수주가 자신을 정리한 말이다. 수주는 《폐허이후》에 실린 〈겨자씨 몇알〉에서 “말은 큰 말보다 작은 말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적으면 적을수록 듣는 힘이 날카로우니까.”라며 과작을 하고 시와 만필 300여 편을 겨우 써냈다. 그는 만필(漫筆)이 나의 문예적 수확의 거의 총화라고 자신의 《수주 수상록(樹州隨想錄)》44)을 들었다. 그런 그의 만필

42. 〈천경 오십〉,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93-98쪽 참조.

43. 〈단문의 문예적 가치〉,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009, 159쪽.

44. 이 책은 1954년 11월 서울신문사에서 출간한 책이다.

들은 '남이 십 행 쓸 것이면 일 행으로 줄이고 남이 백 행 쓸 것이면 십 행으로 오그리는 것' 이라고 하였다.

수주의 글이 과작(寡作)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은 들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수주가 영문학을 전공해서인지 시와 산문을 가리지 않고 외래어와 외국어들을 즐겨 사용했다. 문제는 이 수입종 언어들에 평지돌출 격으로 끼어들은 것이 종종 목격되는 데 있다.⁴⁵⁾

(1) 꽃 같은 글

“꽃 같은 글을 쓰고 싶다. 바람 같은 글을 쓰고 싶다. 뇌정(雷霆)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소군거리는 듯, 웃는 듯, 우는 듯한 글을 쓰고 싶다. 하다 못하여 짓[呖]는 듯한 글이라도 쓰고 싶다. 범용한 내용, 속악한 표현으로야 수레[車]를 채도록 쓴들 무슨 소용이라? 되풀이하여 말하는 듯하나 나는 무슨 까닭이 있는 글을 쓰고 싶다.”⁴⁶⁾

수주는 꽃 같은 글을 쓰고 싶어 했다. 그것은 까닭이 있는 글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다.

〈조선의 마음〉이란 시는 이러한 수주의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다.

45. '나서라, 데이프로우펀디스' (《바람은 배일 수 없듯이》), '조선의 '에올너쓰'야.' "만약(萬竅)의 여신 찾아기던 '퍼수쓰' 같이(《조선의 천재여 신계(神啓) 같이 오너라》) 등 같은 글이 자주 눈에 띈다.

46. <독필(獨筆) 곤작(困作)의 비애>(동아일보, 1934.3.9)

'조선 마음' 을 어대가차즐까?
 '조선 마음' 을 어대가차즐까?
 굴 속을 엿볼가, 바다 맛을 뒤져볼가?
 뽀뽀한 버들가지틈을 헛쳐볼가?
 아득한 하늘가나 바라다볼가?
 아, '조선의 마음' 을 어대가서 차져볼가?
 '조선의 마음' 은 지향할수없는마음, 설흔마음!

- (조선의 마음)(1924.8.47)

이 시는 그의 처녀 시집인 《조선의 마음》 허두에 실린 〈서대신에〉이다. 일제치하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수주의 마음이다. 이 시집은 출판되자 곧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고 총독부에 의해 압수당하였다. 수주는 조선의 마음을 '지향할 수 없는 마음, 설흔 마음!' 이라고 하였다.

지향할 수 없고, 서러운 마음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 조건 없이 조선을 생각하여 일어난 마음이기에 단순한 애상으로 볼 수 없다. 꽃 같은 글은 이 마음에서 나왔다.

〈돈키호테의 무후〉에서도 수주는 돈키호테가 '불의와 싸우러 나선 송고한 백치' 이기에 돈키호테를 흉내라도 내고 싶다며 이렇게 외친다. "지혜를 믿어 무엇하고 역량을 헤아려 무엇하며 결과 여하를 따져서 무엇하리? 불의를 간과할 것인가? 악을 악대로 방치할 것인가? 싸울 것은 싸워야한다. 싸울 것을 안 싸우면 비겁이다. 정신적인 자멸이다."48)라고 하였다.

47. 구지룡 역음, 《(시집) 조선의 마음》, 수주 변영로 시집 발간 90주년 기념, 산과들, 2014, 12쪽(영인)

48. 〈돈키호테의 무후(無後)〉(동아일보, 1934.3.14)

비록 이 글 마지막 문장이 “슬프다. 퐁키호테의 무후(無後)함이여”라고 하였지만, 저 바다 건너 퐁키호테의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주의 정신만은 결코 무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어의 조탁(彫琢)에 대한 수주의 관심도 ‘꽃 같은 글’과 연결된다.

“우리는 우리말의미를 지켜야한다.

이것저것 뒤섞이지 않은 순정(純正)한 말을 고르고 골라서 똑똑한 발음으로 고저(高低) 알맞추어 아리따게 말하는 버릇을 기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의 공기는 명량하여질까. ...심한 경우는 우리 문화의 총파멸을 재래(齎來)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운동이나 산업운동도 초미(焦眉)의 일이지만 자구어 정화운동도 낙후되어서는 아니 될 크나큰 일인바 이 면에 깊은 유의와 관심을 가진 문화인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명리(名利)’라는 고열병에 걸린 위정자 사이비 문화인배에게는 너무나 ‘보상적은 노력’으로 우리말의미는 영장(永葬)되고 말 것인가.”⁴⁹⁾

이은상이 수주를 ‘언어의 시인’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수주의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저토록 깊었다. 그의 시에 흔히 보이는 ‘눈찌’, ‘시루다’, ‘자릿하다’, — 등 헤어릴 수 없는 우리말 어휘가 이를 증명한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김기진은 “변영로 씨-이 사람은 가장 말을 선택하여 쓰는 사람이다. 누구던지 이 사람의 시작(詩作)에 대한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신경이 전부 ‘언어(言語)’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가장 묘한 맛이 있는 고훈 말이

49. (이동어 정화(淨化) 제의,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91쪽.

다.”⁵⁰) 주요한도 ‘변수주의 시작(詩作) 태도는 일자(一字) 일획(一劃)을 은(銀)장식처럼 새기고 깎는 듯하다.’ 라고 하였다.

수주의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말에까지 미쳤다. 수주는 비 떨어지는 언어를 정화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아예 ‘사이비 문화인배’ 라고 극한 용어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주는 아동들의 언어 파괴가 우리 문화의 총파멸을 초래한다는 극단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였다.

“갖은 유행어가 그야말로 유행한다. 의미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종류조차 불소(不少)하다. ‘공갈’ 이니 ‘네쓰’ 니 등등은 무뢰 소년지배의 천 열(賤劣)한 구문(口吻)인지라 들추어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소위 ‘사모(師母)’ 이란 전대미문의 신술어(新術語)는 그 일반성, 즉 보편성이나 그 영향력으로 보아 단연 ‘툭’ 적 우위가 확보되고…글자 풀이 하여보면 사모님이란 스승의 마나님일시 분명한데, …”⁵¹)

오늘날 사모님은 대한민국 여인의 반은 듣는다. 수주가 신술어라 지적한 것이 현재에 보편적인 명칭으로 아예 자리 잡아 버렸다. 수주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글의 끝에 수주는 자신의 제자에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며, 형세가 변하였으니 도리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수주의 너스레를 너스레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주는 문인들의 마음은 순결한 감정과 지조여야 한다고 말한다.

50. 구자룡 엮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73쪽.(이 글은 김기진〈현 시단의 시인〉, 《개벽》4월호, 1925, 5~6쪽을 재수록한 것이다.)

51. 〈사모님 이의(異議)〉,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250~251쪽.

“자고로 불순한 감정에서는 좋은 시가 나오지 않으며 불결한 지조에서는 아름다운 사상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고금을 물론하고 세계적 대문학은 장려(壯麗)한 비애나 신성한 분노나 유현한 철리적 신비감에서 나온 것이다.”⁵²⁾

〈자기의 그림자〉는 수주의 1기 작품으로 위에서 수주가 말한 ‘순결한 감정과 지조’에서 얻어낸 ‘유현한 철리적 신비감’으로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자기의 그림자

낮에 길을 걷노라니
나보다 반절이나 작은 이
자꾸자꾸 나를 따릅니다
나는 몹시도 놀랐습니다

밤에 길을 걷노라니
나보다 곱이나 키 큰 사람
나의 길을 앞섭니다
나는 소스라치게도 놀랐습니다.

52 〈글 쓰는 벗에게 고하노라〉, 변영로 지음, 민중헌 엮음, 위의 책, 2009, 277쪽.

밤 깊어 자리에 누웠으려니
나 혼자 누웠건만
어쩐지 혼자인 양 싶지 않아
살피니 나는 나에게 놀랐습니다.

안 놀랄 데 놀라고 나니
없는 잘못 있는 것 같이
아릇하게도 마음키여
이내 가슴 풀잎같이 떨립니다.⁵³⁾

‘풀잎같이 떨리는 마음’이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여 나오는 수주의 신비적 시세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상은 순결한 감정과 지조가 생산해 낸 결과물이고 수주가 쓰고자하는 ‘꽃 같은 글’이다.

문인으로서 순결한 감정과 지조를 지녔다면 수주는 이제 개성 있는 글을 쓰라고 한다. 수주는 꽃 같은 글은 바로 이 개성에서 나온다고 한다.

“과거에는 어쩌든지 현재에는 어떠하든지, 적어도 장래의 문예는 말의 구사법이든지 글의 착상이라든지 결구라든지 형식을 절대로 자유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의 절대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여야 한단 말이다.

무슨 풍(글 쓰는)에 감염되지도 말고 무슨 이즘(주의)에 잡히지도 말고 또는 무슨 파, 무슨 유(流)에 질식이 되지도 말고 오직 자기 식, 자기 풍,

53 <자기의 그림자>, 민중환 역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179쪽.

자기 유의 문예를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진정한 문학이 산출될 것이다.

개성 표현이 없는 문학은 인생비평도 아니고 인생표현도 아닌 단지 인생말살, 인생 00인 것뿐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 글 쓰시는 벗님들께 ‘개성을 표현하는 문예가가 되십시오’ 하며 아래와 같은 신조를 써 둔다.”⁵⁴⁾

수주는 글에 개성을 넣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조를 써넣었다.

“1. 개성을 표현하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개성을 표현하지 말고 진연히 영감에 의할 것.

2. 작품의 양을 보지 말고 성질에 유의할 것.

3. 무의미한 조화 균제보다 의미 있는 부조화 불균제를 차라리 취할 것.

4. 무엇이든 영감 없는 것을 씀은 큰 죄악인 것. 다작하지 말 것.”⁵⁵⁾

수주는 개성적인 글을 쓰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러 실험적인 글쓰기를 하였다. 예를 들자면 <천사의 반역>은 시적상상력의 세계를 소설형식으로 한껏 풀어 본 실험시였다.

“어여쁜 숙경(淑卿)이는 요란한 날갯소리에 깊이 들었던 잠을 깨었다. 깨어보니 방안은 이상한 빛으로 휘황한데 자기 옆에는 웬 날개가 돌힌 소년과 와 있음을 깨달았다. <중략>

54. 위의 글.

55. <글 쓰는 벗에게 고하노라>,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009, 277쪽.

아-아리따운 인간의 처녀여-나는 천계의 '영원'을 누림보다 '그대와
의 한 찰나'를 원하노라-연지 바른 입 맞추고 향기로운 가슴에 잠들고자
하노라-

〈중략〉

별안간 사방에서 이상스러운 섬광이 빛나며 일만 천사의 발소리와 날
개 치는 소리가 노도같이 선풍같이 일어나더니 그 어린 천사는 간곳없이
사라졌다. 아마 천계의 반역자도 신의 격노에 축한 바 되었음이겠다.

숙경이는 설움과 서운함을 못 잊어 소리를 쳐 우는 바람에 잠을 정말
깨었다. 깨어보니 장미색의 아침별이 창살에 비추었더라.”⁵⁶⁾

이 시는 1921년 7월 4일 '조선일보'에 실렸다. 숙경(淑卿)이라는 처녀
가 꿈속에서 소년 천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깨는 내용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처녀는 시인이고 소년 천사는 시마(詩魔)나 시상(詩想)
으로 보인다. 시상과 시인의 마음, 그 어느 접점에서 시가 발한다는 데 착
안하여 지은 시이다.

수주는 이러한 담화체인 투르게네프의 〈개〉, 〈두 고봉과의 대화〉를 번
역하기도 하였다. 이 시들은 모두 수주의 글쓰기 신조대로 개성이 한껏
넘친다.

56 〈천사의 반역(叛逆)〉,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225~227쪽.

(2) 선배는 설편이

수주는 '까닭이 있는 글'을 쓰고 싶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제척 선후배 관념>이라는 글이다. 수주를 찾아온 한 청년이 아내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쓴 내용이다.

“네, 저도 중앙고보 출신인데 공수(恭壽) 군(미국 유학 간 필자의 2자)의 선배올시다. …라는 것이다. 필자는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꼈다. 우스운 것은 그 청년의 친진스러움이고, 분노를 느낀 것은 그야말로 소위 선배 놈들의 악습과 병균이 전염되고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교도(矯刀) 직입(直入)으로 말하자면 선후배 관념의 본점 본포(本鋪)는 일본이니만큼 선후배 관념처럼 일제 잔재의 표상적인 것은 드물 것이다. …요약하여 말하면 선배는 설편이의 역어(譯語)인 것이다. 이 설편이 관념을 제거하거나 근절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정신적 부흥이나 문화적 향상은 기대난일 뿐만 아니라 무망(無望)일 것이다.”⁵⁷⁾

수주의 선배론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연고주의⁵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주는 이를 근절하지 않는 한 정신과 문

57. <제척(除斥) 선후배 관념>,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역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7쪽.

58. 실제로 수주는 어느 집안 어느 유파를 통한 득세를 피한 적도, 심지어는 제자까지도 없었다. 그가 활동했던 <폐허>나 <장미촌> 역시 한 사람의 동인일 뿐 수주는 직당을 하여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늘 고독한 문예의 길을 혼자 걸을 뿐이었다. 남북한 문학사 어디에서도 수주 변영로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남북한 문학사를 기술한 그 누구와도 수주는 어울리지 않은 갈(隔)한 문인이었다.

화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위대모 망론〉은 이러한 수주의 의식이 어떠한 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위대모(魏大模, Whittimore, N. C.)는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신성학교의 1대, 3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독교문서 총무도 역임한 인물이었다. 우리로 보자면 친조선적인 인사였거늘 수주는 이 글에서 그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다. 위대모가 ‘배에서 내리며 산을 보니 흰옷을 입 사람들이 많아 공동묘지를 연상시킨다’고 써 놓은 글을 ‘조솔(粗率: 거칠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관찰이며 구기(口氣: 말투)가 속악’하다며 이렇게 통박한다.

“...조선 중에도 특히 서울에서는 사람을 평할 때 꼭 ‘그 이가 어디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 중에도 서울에는 평안도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라 하였으니 관찰인가? 들은 말 뇌임인가? ‘그 이가 어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악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느 나라 어느 곳 사람이고 사람에게 대한 모든 궁금을 풀려는 때 발하는 말이니 서울 사람만의 버릇이 아닌 채 그것은 그렇다 시인하고라도 서울 사람이 평안도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가엾이도 부정확한 인상을 어디서 받았는가?”⁵⁹⁾

사실, 수주가 위대모를 공격한 이 글은 여러모로 생각할 바가 많다. 우선 위대모의 지적이 틀리냐? 이 말이다. 우리의 지방색이야 정도전⁶⁰⁾ 이후 지금까지도 버젓이 살아있는 ‘지방색’이기 때문이다. 이를 넉넉히 감안한다면, 수주가 이를 몰라서 위대모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지방색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말의

59. 〈위대모(魏大模)의 망론(妄論)〉,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009, 69쪽.

옳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임을 읽어야한다.

그렇기에 수주의 여러 글에서는 우리 민족성을 바라보는 비애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천부의 청명(聽明)과 생래의 재혜(才慧)를 제각기 지니고 차지한 우수종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으로 보면 천하무류로, 다시 말하면 세계의 필적할 자 거의 없으리라. 그 기민성, 그 임기(응변성), 그 호도성(糊塗性), 그 뇌동성, 그 도피벽 등등 다채 다양한 지능은 지구상 어느 곳에 내세우더라도 일대 일은커녕 일대 십백할 정도임이 무의(無疑)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친화력, 관용심, 양보성, 은인성(隱忍性), 희생성 등의 지능 대신 덕성에 가까운 것은 불[吹]며 찾으려도 없는 것이다. 이 상서럽지 못한 총명으로 해서 우리는 ‘헤어지면 흥’ 하고 이 가탄할 부덕으로 해서 ‘몽치면 망’ 한다고 내 간에는 풍자삼아 말하였던 것이다.”⁶¹⁾

‘민족주의자 수주의 말인가?’ 의이할 정도로 우리의 지능과 덕성 없음을 풍자한 글이다.

60. 삼봉 정도전은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거울 속에 비친 미인),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바람 앞에 하늘거리는 가는 버드나무), 경상도는 송죽대절(松竹大節: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굳은 절개), 강원도는 암하노불(巖下老佛: 바위 아래 늙은 부처), 황해도는 춘파투석(春波投石: 봄 물결에 던져진 돌맹이), 평안도는 산림맹호(山林猛虎: 산속 숲에 사는 거친 호랑이),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라고 했다가 태조 이성계의 얼굴이 벌게지므로 고쳐서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라고 지역인 평을 하였다. 이는 이후 지방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61. <신춘(新春) 방언(放言)>,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43쪽.

비록 수주는 ‘신춘 방언’이라 하여 ‘봄맞이 함부로 지껄인 말’ 정도로 제목을 달아 놓았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인 즉은 한 친구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라는 말을 외대자 “합하면 망하고 따로 따르는 흥한다(Singly we stand, United we fall)”라고 수주가 한 마디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수주는 우리 민족에게 지능도 덕성도 없다한다. 수주는 ‘친화력, 관용심, 양보성, 은인성(隱忍性), 희생성 등등’은 우리 민족에게 없는 덕성이기에 ‘뭉치면 망’이라한 것이요, 우수성으로 내놓은 ‘기민성, 임기(응변성), 호도성(糊塗性), 뇌동성, 도피벽’도 다채 다양한 지능이 아닌 ‘상서롭지 못한 총명’으로 규정하고 ‘헤어지면 흥’이라 풍자한 것이다.

수주는 위 글 뒤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는 독자에게 맡긴다’ 하며 ‘이 꼴로 나가다가는 개인과 가족은 있을지언정 국가와 민족은 없다’는 애상언(哀傷言)을 첨부하였다.

수주의 글은 이렇듯 사회의 비리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수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를 방수포(防水布), 방화포(防火布)에 빗대어 ‘방수포(防羞布)’를 두르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즈음 사회의 각계각층을 둘러보자. 어느 관청이고, 어느 회사, 은행이고, 어느 교회고, 어느 학원이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유루(遺漏) 없이 외국감 아닌 방수포를 감고 두르고 다니지를 아니 하는가. 그네들에게는 이 방수포가 일개의 용의(戎衣)요 갑주(甲?)이다.”⁶²⁾

부끄러움을 막는 방수포를 용의와 갑주처럼 두른 이들에 대한 수주의

62 <방수포제(防羞布製의 용의(戎衣)),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글, 267쪽.

폭언이다. 이런 이족수(二足獸) 인간들의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문제 이런마는 수주의 글은 이러한 불구의 사회를 지나치지 않는다. 물론 이 글이 조선의 마음으로 평생을 버틴 수주의 글이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애상(哀傷)을 읽어야한다.

수주 글은 당대의 정치꾼들에 대해서도 일갈하였다. <외곶과 한쪽으로>에서는 “불에 놀래인 광구(狂狗)같이 적포(赤布)에 성난 투우(鬪牛)같이 사육에 눈 어둔 정치 이족수(政治二足獸)들 가로 달리고 세로 땀박질하며 서로 물고 닿는 대로 받는 바람 꿈도 못 꾸던 재액 뒤를 잇고녀”⁶³라고 까지 독한 시로 나무라고 있다.

그렇기에 수주는 당시의 정치인들의 당(黨)을 ‘기괴한 거물’로 보았다.

“자가(自家), 자당(自黨) 말이 나온 바에 끝으로 당(黨)이란 ‘선악 양간을 겸유한 기괴한 거물’에 대해서 일언하러 한다. —포장(包藏) 사심 사육하고 방편 상으로 구성된 성군작당(成群作黨)식의 당일진댄 그 화액의 피 묻은 손 가가호호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재연 비극의 일보 전임을 명기(銘記)하자.”⁶⁴

성군작당을 하여 당을 만듭을 비판하고 이 당이 끝내 피 묻은 손을 국민들에 뺨을 짓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 수주는 자주, 자립을 외치자고 주문한다.

63 <외곶과 한쪽으로>,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130쪽.

64 <재연(再演) 비극의 일보 전>,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04쪽.

“자신이나 자파, 혹 자당(自黨)의 이해나 득실이 천량(天良:타고난 양심)을 죽이고 의식 무의식 간에 간판을 그려쳐 그네들 과업의 괴로운 대가는 애꿎게도 민중이 치르는 것이다. —노선 말이 났으니 ‘노선’, ‘노선’ 하고 거의 투어(套語)나 화두식(話頭式)으로 조음모송(朝吟暮誦)하다 시피 하니 어떤 게 진직(眞直)한 노선이며 어떤 게 정상의 노선인가. —방황하는 동포들이여, 폐간(肺肝)에 명기(銘記)하자! 죄이고 우이고 찬이고 반이고 간에 냉혹한 자성과 가열한 자율과 불요(不撓)의 기백과 지고한 이념으로 우리의 손으로 타개치 않으면 다른 도로는 절무(絶無)하리라 하는 것도 아울러 명기하자. 방황하는 우리 겨레여!”⁶⁵⁾

수주는 당대의 시대상에서 결코 돌아앉지 않았다. 문인으로서 세태의 호오를 분명히 하였으며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었다. 그렇기에 임시변통의 좌우합작에 분명히 반기를 들었다. 문장은 단호했고 결의는 투쟁적이었다.

“구차한 일시 도말식(塗抹式) 합작보다는 각자 진지(陣地)에 서서 정정당당히 자웅(雌雄)을 결할 것이다. 대독전 대일전에는 구화(?和:협상)가 있지만 사상전 이념전에는 구화가 없다. 투쟁이 있을 뿐이다.”⁶⁶⁾

수주는 반공의식이 투철하였다. 공산군을 사군(蛇軍), 정탐꾼을 사정(蛇偵)이라 할 정도로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물론 이는 글을 쓰는 문인으로 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주는 남북은 한

65. 〈찬·빈을 넘어서〉,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역음, 위의 책, 106-108쪽.

66. 〈이념전(理念戰)에는 구화(?和)가 없다〉,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역음, 위의 책, 113쪽.

민족이기에 남북통일을 강렬히 염원하였고 북진통일까지 바랐다.⁶⁷⁾

수주는 정치인상을 따로 그렸다. 다음 글에는 수주의 정치인상이 소상히 그려져 있다. 그것은 ‘승고한 고집’이 있는 정치인이었다.

“정치는 미봉(彌縫)의 소산이 아니다. 대정견(大定見)이 있어야 하고 대이상(大理想)이 있어야 하며 제호와 같이 ‘승고한 고집’이 있어야 한다. 불연이면 모든 것은 토병(土?)이요, 유사(流砂)며, 가일(假日, 幼陽)이다.”⁶⁸⁾

하지만 수주는 결단코 비애만으로 그치지지는 않았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판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다. 수주의 이러한 마음이 담긴 시가 〈날이 새입니다〉이다. 이 시는 1922년 9월 《동명(東明)》에 실린 시로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려는 수주의 마음이 보인다.

날이 새입니다. 동이 고요히 트입니다.

고운 새벽빛이 ‘세계의 계시’ 같이 흔들립니다.

67. 〈각성의 광복절〉,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200~201쪽 참조. 이 시는 ‘서울신문’(1957.8.16)에 실렸다. 이해를 위해 2·4·5연만 인용한다.

〈각성의 광복절〉

3./ 국경일(國慶日) 오늘인지 다시금 헤아릴 것/ 원수의 괴뢰 남침 그 전인가 그 뒤가를/ 남만을 영년(永年) 믿고서 고침안면(高枕安眠)할거나/ ...// 4./ 열 넘은 광복 ‘돌’을 또 한번 맞이하자/ 느느니 통분(痛忿)이요 쌓이느니 한사(恨事)뿐을/ 언제나 민족의 정기(正氣) 깨 들러 하느니// 5./ 막을 건 허튼소리 지될 건 우리 결의(決意)/ 5두혈(五斗血)* 마시고서 튼 과업 이르과져/ 다음해 8·15까진 북진통일 바라노라.

*《수주 변영로 시전집》을 엮은 민중환은 ‘5두혈’을 양계초가 안중근 의사의 쾌거를 기려 지은 시 ‘음혈우두대사필(飲血五斗大事畢) 광곡일성산월고(狂哭一聲山月高)’의 차용이라고 밝혔다.

68. 〈승고한 고집〉,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60쪽.

벗이여, 당신 이마에는 어제 밤의 우수가 쓰여 있습니다.
계슴츠레한 두 눈초리에는 그저도 눈물이 젖습니다.

벗이여,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이리 오십시오.
자릿하게도 산산한 새벽이슬이 내리는 이 곳으로요.

'슬픔' 은 옛 것이요, '기쁨' 은 길이 새롭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이리 와서 '밝는 큰 날' 의 해 맞이하세요.

날이 새입니다. 동이 고요히 트입니다. 고운 새벽빛이 '세계의 기쁨'
같이 출렁거립니다.

그를 민족시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도 찾는다. 그렇다면 그는 명
정 40년으로도 못 푼 그의 같은 삶을 마침으로써 해갈(解渴)이 되었을까?
그는 끝내 갈한 시인이었다. 그의 말마따나 그는 “오예(五稜) 불결한 2족
수(二足獸)사회에서 민사(悶死)치 않는다면 그것은 끝없이 연장되는 ‘클
라이맥스 없는 비극’ ”⁶⁹⁾이라고 까지 하였으니까 말이다.

(3) 호평회(互貶, 혹은 自貶會)

수주는 문인들을 불구로 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것이기도, 그
렇지 않기도 하다.

69. <섭세(涉世) 2제(二題)>,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44쪽

“문인의 오활(迂闊), 곡색(曲塞), 편파(偏頗), 빈혈, 사무적 무능을 말하
였지만 그보다 한층 더 불구적이고 불건전한 것은 ‘필요를 지나는 다감’
과 ‘우치(愚癡)에 가까운 자존(自尊)’ ‘턱없는 자기 신뢰증’ 이 몇 예외 뺀
문인 기질의 통성일 것이다.”⁷⁰⁾

수주는 우리 문인들을 불구적 인간으로 보았다. ‘필요를 지나는 다감’
과 ‘우치(愚癡)에 가까운 자존(自尊)’ ‘턱없는 자기 신뢰증’ 을 소유한 이
들이다. 따라서 혼자면 자찬(自讚)이요, 모이면 값싼 호찬(互讚)만 하는
것을 경멸하였다. 그 이유는 양심이 있어야할 문사들이나 “공정하고 현
명한 자평(自貶)”과 “인색한 감정이나 불순한 주장이나 누열(陋劣)한 사
협(私嫌)에 끌리지 않는 정도로 호평(互貶)”을 하면 서로의 글이 계발될
것이기에 ‘호평회(互貶, 혹은 自貶會)’ 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특히 수주는 “말은 다채(多彩)하여야하겠지만 글은 더욱 그러하다.”⁷¹⁾
며 문체가 다양하지 못한 당대의 글을 ‘외구멍 피리’ 로 비유하였다. 또
한 <추수(追隨) 유화(有禍)>에서는 외국문학을 추수하여 모방하거나 변
역에 경도된 문단계를 “잔반(殘飯: 먹다 남은 찌꺼기 밥), 냉갱(冷羹: 차디
찬 국)”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참경(慘境)⁷²⁾으로까지 비유한다. 또한 같
은 글에서 수주는 “조선을 배경삼고 조선인의 생활을 그렸다는 것이 조
선 같지도 않고 조선인의 생활 같지도 않은 치졸한 작품이 비일비재 아니
냐?” 라고 하였다. 이 글줄로 유추하자면 수주가 바라는 글은 조선을 배
경삼고 조선인의 생활을 그린 글임을 알 수 있다.

70. <자찬(自讚)·호찬회(互讚會)>,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167쪽.

71. <외구멍 피리>,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167쪽.

72. <추수(追隨) 유화(有禍)>,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167쪽.

그러나 수주의 문단에 대한 비판은 문인의 임무가 커서였다. 수주는 우리 문단의 큰 별이 없음을 안타가워하며 이렇게 말한다.

“큰 별이 없는 이상에는 우리 문인은 각자 ‘큰 별이 되어야 하겠다’는 호대(浩大)한 기개와 자신을 가지고 용매(勇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문인의 임(任)이 이다지 크고 무서운 이상에는 무엇보다 자중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귀한 자녀를 낳으면 태교를 잘하여야 할 것처럼 우리 조선 민족의 대문학을 산(産)하려함에 어찌 큰 치성을 아니 드리라? 어찌 값싼 부명(浮名)에 끌려 일본의 값이 없는 문장 제조가가 될 것인가? 어찌 예술적 양심이 마비하여 남 외항을 표절하고 모방함을 주저 없이 하여 민중을 기만하려는 야비한(자기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한) 위조문학을 쓸 것인가?”⁷³⁾

수주는 “‘조그마한 감정’을 없애고 깊은 이해와 큰 동정으로 ‘시와 청춘과 눈물과 불(화염)과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고 연장”하자고 호소한다.

(4) 아동문예

수주의 글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아동문예에 대한 관심이다. 아동문학이 우리의 문예에게 틀을 잡은 것이 불과 일십년 전이기에 그렇다. 수주 당대는 물론 그 후에도 아동문예에 대한 관심을 이토록 표한 글은 찾기 어렵다.

73 <글 쓰는 벗에게 고하노라>,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 책, 277쪽.

“조선 아동은 불행하다. 외국아동은 그림책으로, 이야기책으로, 노래로, 시로, 어린 심계(心界)는 가을 시내의 부어(?魚:붕어)같이 살이 오르나 우리 아동에게야 변변한 그림책 하나 있느냐? 읽혀주고 읽으라 할(아니 할만한) 이야기책 한 권이 있느냐? 그리고 시나 노래면 무엇 있고? 슬픈 일이다! 못 먹여 불쌍하며 헐벗겨 애처루라.

그림 대신에 귀퉁이 이야기 대신에 편찬 한마디. 시나 노래 대신엔 그 무엇? 욱, 악담이라고나 할는지! 여하간 가없는 것은 조선의 아동이다.”⁷⁴⁾

수주는 이 가없는 조선의 아동들에게 들려주고 읽혀줄 아동문예를 제창한다. 수주는 동요작가인 윤석중(尹石重)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의 작품 중, <잃어버린 댕기>⁷⁵⁾를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으며 “상(想)이 곱고 말이 정(精)”⁷⁶⁾하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수주는 우리말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아동어를 정화⁷⁶⁾하고자까지 하였다. 심지어는 집에서 조차 아이들이 쓰는 말을 단속하였다.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문수가 “말치, 반 죽는다, 근사하다, 1등 먹었다, 까먹다 등의 말을 하거나 ‘녕’ · ‘영’의 구별, ‘어’ · ‘으’의 구별, 짧은 ‘정’과 긴 ‘정’의 구별을 못하면 야단이 대단”⁷⁷⁾하였다고 한다. 그의 글이 정확한 낱말을 구사에 힘쓰는 실생활에서도 알 수 있다.

74. <제정(提提) 아동문예>,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위의책, 189쪽.

75. <잃어버린 댕기>는 동시집 <잃어버린 댕기>(계수나무회, 1933)에 있는 동요로 “물 깃다 잃어버린 댕기 어디가 찾나 이쁜아 이쁜아 네 댕기 있는데 난 안다누-”로 시작한다.

76. <아동어 정화(淨化) 제의>,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91-192쪽.

77. 구지룡 엮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38쪽.(이 글은 이아령 편, 《새 자료조사를 통한한국작가 전기연구》 상, 동화출판공사, 1975, 177~193쪽을 재수록한 것이다.)

5. 갈^渴한 수주 글 독법^{讀法}

(1) 영양괘각^{羚羊掛角}

《세설신어》에 전하는 <설야방대(雪夜訪戴)>란 글이 있다. 왕휘지(王徽之)의 이야기인데, 풍류가 뛰어난 호주가(好酒家)로서 아마도 수주의 성품과 지근거리일 듯하다. 그 왕휘지가 일찍이 산음(山陰)이란 곳에 살 때였다. 밤에 큰 눈이 내렸다. 왕휘지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젖뜨리고, 술 한 잔을 먹었다. 사방은 눈빛으로 희디희니 갑자기 마음이란 녀석 같 피를 못 잡고, 여기에 낙양의 종이 값깨나 끌어 올렸다는 <초은시>를 읊으니, 문득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안도(戴安道)가 생각났다. 왕휘지는 즉시 조그마한 배에 몸을 싣고 노를 저어 대안도를 찾아 간다. 밤을 지새워 노를 저어가니 친구 대안도의 문 앞이란다. 그런데 왕휘지는 그만 배를 되돌려버렸다.

왜 그 친구를 보지 않고 되돌아 왔을까?

누가 그 까닭을 물으니, 왕휘지 가로되, “내가 본디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다네. 어찌 꼭 안도를 보아야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다’. 그 흥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다.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뜻이 적어진다. 왕휘지는 이를 알고 글을 그쳤으니, 저 이의 정신적 풍모는 독자 역량에 따라 뭉뚱이 달라진다.

다시 흥을 보자. 저 흥의 경지가 ‘영양괘각(羚羊掛角)’⁷⁸이다. ‘영양이 뿔을 걸다’라는 뜻이다. 영양은 앞으로 꼬부라져 있는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허공에 매달려 잠을 잔다. 이 때문에 영양의 발자국만 추적한 사냥꾼은 영양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양이 ‘뿔’이고, 발자국이 ‘말’이다. 영양의 발자국인 말을 따라갔는데, 영양이 훌쩍 뛰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 버렸다. 말이 끊겼다.

독자는 영양의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 즉 끊긴 말 속에서 뜻을 찾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공중의 소리요, 물 속의 달이요, 거울 속에 비친 상과 같아서 분명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뜻이다.

수주의 글이 그러하다. 갈한 문인인 수주는 문장 또한 갈하였기에 자신의 속내를 갈한 붓질로 터치해 놓았다. 독자라면 마땅히 화지를 스치고 지나간 엷은 붓 자국을 훑을 줄 아는 마음이 선손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왕휘지의 저 ‘흥’, ‘글의 뜻’을 알 수 있다.

수주의 글이 대부분 영양괘각으로 읽어야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글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아는 <논개>는 《조선의 마음》(1924, 평문관)에서는 <논개>였으나 《조선명작선》(삼중당서점, 1943)에는 <그 마음 흘러라>로 개제하였다. 일제 말, 논개의 국기에 대한 장렬한 죽음을 다룬 이 시의 제

78. 이 용어는 선가에서 나온 것으로 설봉선사(雪峰禪師)가 《전등록》(傳燈錄)에다 적바림한 말이다.

목을 바꾼 것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였다. 논개의 단심(丹心)을 기린 시라는 것을 모르고 볼 때와는 사뭇 다르다. <논개>를 <그 마음 흘러라>로 제목에 대한 변죽을 써 넣은 수주의 심정이 이 시의 사복임을 아는 이 몇이나 되었을까?

수주는 그래서 글을 보려면 “말 밖에 떠도는 송고한 암시! 이것들이 작품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이 것만.”⁷⁹⁾이라고 글의 표피만 이해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의 글을 남겼다.

글을 대하는 수주의 태도는 참으로 갈하였다. 제자인 영운(嶺雲) 모운숙의 《빛나는지역(地域)》(조선창문사, 1933)⁸⁰⁾을 읽고 ‘죽어도 살아도 이 터에서 살으소서’는 두 ㄷ뎡이이기에 ‘죽어도 살아도 이 터에서 떠나지 마소서’가 맞고 ‘피로 새긴 당신의 얼굴을’과 ‘시퍼런 창대에 진실한 띠를 띠고’는 너무 어려워 알 수가 없고, ‘일만 화살이 공중에 뛰놀듯이’는 화살이 뛰놀 수 없기에 잘못이라고 정확히 지적한다. 또 ‘조선의 새벽 자손’과 ‘휘넓은 창공 위에 무덤을 밟고 싶네’ 등은 피해야 할 표현이라며 다음과 같이 글을 이었다.

“이것은 결코 잔다란 취모역자(吹毛覓疵)가 아니다. 동서고금의 대시인의 작품 중에는 ‘어둔 말’, ‘희미한 표현’이 허다히 발견되지만 우리 문단에는 시인이고 소설가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너무나 용어에 대한 근신성(謹愼性)이 멀어(蔑如)하여 늘 불쾌를 느끼는 판이니 아니할 수 없는 고언이다. 말은 그르쳐서 써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부퍼서도 안 된다. 꺾

79. <싱클레어 루이스>,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역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54쪽.

80. 이광수는 서문에서 모운숙을 “불 꺼진 조선의 제단에 횃불을 켜놓으려는 시인”이라고 주례사적 비평으로 상찬(賞讚)하였다. 과잉된 언어로 추켜세운 이광수나 모운숙은 후일 친일의 글을 쓴다.

을 수 있는 대로 깎고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며 고를 수 있는 대로 골라서 말 밖에 방사(放射)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다.”⁸⁾

수주는 ‘어둔 말’ 과 ‘희미한 표현’ 을 싫어하였다. 문장은 간결해야하고 뜻은 ‘말 밖에 방사(放射)되는 그 무엇’, 즉 문장 밖으로 뜻이 나와야 한다는 말한다. 수주의 이 말은 ‘언불진의(言不盡意)’, 즉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제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쓴다한들 자기 속내를 어찌 말이나 글로 표현하겠는가. 그래 우리는 제 기심을 치며 “아이고, 답답해라.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는가?

말은 다하였으나 뜻은 아직 다하지 않았네’ 라는 ‘사진의부진(辭盡意不盡)’ 이나, ‘글 밖에 뜻이 있다’ 는 언외지의(言外之意), 그리고 심행수묵(尋行數墨)이라 하여, ‘문자 밖의 참뜻을 찾아라’ 하는 주자의 말, 모두 ‘언불진의’ 와 통성명을 하고 지내는 용어들로 수주가 강조하는 언어인식이다.

일제 말, ‘어둔 말’ 과 ‘희미한 표현’, ‘근신성이 멀어’ 하거나 부픈 글을 쓴 사람들은 친일의 길을 걷고 만다. 수주에게 근신성이 모자란다고 지적 받은 모윤숙은 결국 뜻을 굽혀 주요한, 김동환, 서정주 등과 함께 친일의 길을 숙명인양 받아들였다. 마음의 ‘근신성’ 없이 재주로써 말만 부픈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수주의 경계를 새길 만하다. 일제 말, 수주와 모윤숙의 시를 나란히 적어본다.

8) 〈영운(嶺雲)의 시집을 읽고〉,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혜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186쪽.

미상 微想

수주

검붉은 그 움은 싹싹기도 하더니
운나는 그꽃은 썬내도 풍기더니
꿈같은 그꽃은 어수선도 하더니

좌우로 뻗어난 그가진 새도가(都家)냥
온갖청 가진가락 못새 울부짓되
적은색 큰재존체 종(鍾)같이 달리더니

하로밤 찬서리에 이것저것 간곳없이
뼈뿐인 마른가지 바람따라 중얼대네
마음속 깊이깊이 마른가지 중얼대네

-《문장》3월호 제2집 1939.3

이 시는 1939년에 지어진 시다. 3월, 모든 봄의 물상이 “하로밤 찬서리에 이것저것 간곳없”이 스러지는 광경을 그린 시이다. ‘흐릿한 생각’이란 제목처럼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시이다. 하지만 수주는 결코 주저앉지는 않는다. ‘뼈뿐인 마른가지’ 만 남았지만 흐드는 바람을 따라 무어라 중얼거린다. ‘마음 깊이 마른 가지’ 는 중얼거린다. 그 ‘중얼대네’ 속에 들어 있는 수주의 마음을 쇠잔한 조국에게 ‘힘을 내자’ 는 애타는 중얼거림으로 읽은 들 무리는 없다. 이 해 수주는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일

경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 시는 해방 후 유정, 이봉래 편, 《한국시인전집》(학우사, 1955)에서 제명이 〈전변(轉變:형세나 국면 따위가 달라짐)〉으로 바뀌었다. 일제 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 〈전변〉이 수주가 생각했던 원래의 제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봄의 물상 전변은 조선의 실상 전변을, 계절의 전변에서 조선의 전변을 기다리는 시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비슷한 시기 모운숙의 시이다.

지원병에게

모운숙

눈부신 산모퉁이

밝은 숲속

힘찬 기운 떠오른 하늘 밑으로

가을 떨기를 헤치며 들어갔노라

기슴을 후리고 지나가는 억센 발자국

몸과 몸의 뜨거운 움직임들

칼 빛은 태양아래 번개를 아로삭여

힘과 열의 동산 안에 내 맘은 뛰눕니다

눈은 하늘을 쏘고 그 기슴은 탄환을 물리쳐

대동양의 큰 이상 두 팔 안에 꼭 품고

달리어 큰숨 뽑는 정의의 용사
그대들은 이 땅의 광명입니다

대화혼(大和魂) 억센 앞날 영겁으로 빛내일
그대들 이 나라의 앞잡이 길손
피와 살 아낌없이 내어바칠
반도의 남아
희망의 화관입니다

가난한 이 몸이 무엇을 바치리까?
황홀한 창검이나 금은의 장식도
그대 앞에 디립없이 그쳐 지냅니다
오로지 끓는 피 한 목음을 축여 보태웁니다

지난날 이 눈가에 기뜨렸던 어둠을
내 오늘 그대들의 우렁찬 외침 앞에
다—말게 씻고 새 계절 뵈웁니다
다—말게 씻고 새 노래 부릅니다.

이 시는 1941년 《삼천리》1월호에 실렸다. '반도의 남아' 인 조선 청년들이여, 대동아 전쟁에 나가 '대화혼(大和魂·일본인의 혼)' 을 빛내라는 시이다. 이런 시들이, 글들이 불나방처럼 '대화혼' 으로 뛰어들던 시절이다. 수주의 시에서, 글에서, 읽어야 할 것은 영양이 훌쩍 뛰어 나뭇가지에 걸어버린 '뽕' 이다. 바로 '뽕' 이다.

(2) 미자권징(美刺勸懲)

미자권징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하고, 미운 것은 밉다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글을 써야한다는 뜻이다. 바로 조선후기를 글로 써 살아 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말이다.

그는 글을 쓰려는 자, 소박하고 깨끗한, 진실한 마음으로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마음이 바로 담백한 마음이다. 이 담백한 마음으로 보았기에 다산은 “천하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天下腐爛已久)”라고 시대를 토벌하였다. 그래 다산의 시들은 조선후기, 막대먹은 세상의 방부서(防腐書)가 될 수 있었다. 다산은 당대의 곤욕스런 현실에 발 개고 나앉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글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해 잔뜩 뼈물고 쓴 것들이었다.

이런 다산의 글쓰기 인식이 있었기에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不傷時憤俗非詩也).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하고, 미운 것은 밉다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려는 뜻이 있지 않다면 시가 아니다(非有美刺勸懲之義非詩也)”라고 시의 정의를 내렸다.

수주의 글에서 담백한 마음은 바로 ‘조선의 마음’ 이었다. 평생 동안 그는 이 마음으로 글을 써냈다. 그것은 이미 문인으로서 문학청년이던 시절부터 일관된 마음가짐이었다. 물론 해방 후에도 수주는 “문예가는 문예라는 고루(孤壘:외로운 터)를 굳게 지킬 비장한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⁸²⁾라고 하였다. 수주가 일체의 정치성향이나 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82. <문예가가 실제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변영로 지음, 민중헌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 상문영위원회, 2009, 289쪽.

글만을 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축복〉이란 시에 수주는 이러한 인식을 일찍이 드러내었다.

축복 祝福

—
오 발가벗은 무산자(無產者)여—
문의(文意) 알 수 없는 난독(難讀)의 페이지여—
'기쁨과 행복'의 Omega!
'고통과 오뇌(懊惱)'의 Alpha! 자(字)!

—
'진리의 글자'를 피와 땀의 잉크 찍어서
'영원의 흰 벽(壁)에 또렷또렷이 써라,
그리하여 그 끝 획과 같이 죽어라!83)

1922년 8.3. 둘째 아들⁸⁴⁾ 낳은 날에 쓴 시이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벌가벗은 무산자인 아들, 그 아들을 '작은 영웅'이라 부르며 축복을 담은 시이다. 문투는 다소 격정적이지만, 진리와 글과 함께 생사를 하였으면 하면 간절함을 담고 있다.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빚댄 작가로서의 다짐이다. 비록 아들을 축복하여 쓴 글이나 글 쓰는 이로서 자신의 의지를 '끝 획과 같이 죽어라!'

83 〈축복〉,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 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59쪽.

84 수주의 차남인 성수(聖壽)이다. 첫 부인(이영순)과 사이에서 낳은 성수는 5세 때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어령은 《새 자료조사를 통한한국작가전기연구》 상, 동화출판공사, 1975에서 1923년 생이라고 하였다. (이 글을 재수록한 구자룡 엮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27쪽 참조)

라고 자신에게 건네는 정언명령(定言命令)임을 알 수 있다.

수주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기에 글 쓰는 이로서 현실 안주를 외면하고 사회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적바림하였고 이마저 안 되면 대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6. 나가며

처음 원고 청탁을 받고 망설였다. 고전이 전공인 내가 수주를 제대로 읽어낸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꺼림칙한 것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수주의 술 세계야 내 일찍이 《명정사십년》을 통하여 읽었다지만 수주가 한국의 내로라하는 문인이라고는 교과서에도 문학사에서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그의 글을 읽으며 참 많은 곳에다 밑줄을 그어 놓았다. 그는 글 쓰는 이로서의 전범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다.

글은 글대로요, 나는 나대로인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의 글쟁이들이 설레발치는 세상이다. 《중용장구》 제 20장에는 학문의 다섯 가지 방법이 보인다. 첫 번째로 박학(博學), 널리 배운다. 두 번째가 심문(審問), 자세히 묻는다. 세 번째가 신사(慎思), 신중하게 생각한다. 네 번째가 명변(明辯), 명백하게 분별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독행(篤行), 진실

한 마음으로 성실히 행동함이다.

수주의 삶과 글이 저러하였다. 저러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갈(渴)'이다. 이 늘 모자라는 갈한 마음가짐이 수주의 문학을 고전에서 현대를 잇대었다. 한국의 현대문학사 기술에 수주 변영로의 진폭(振幅)을 넉넉히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주는 1961년 봄, 3월 14일 하오 9시 40분. 서울 종로구 신교동 51의 2 자택에서 갈(渴)한 문인으로서 갈한 삶을 마쳤다. 그는 지금 그가 출생치 않은 고향 부천 오정면 고강리 향리 선산에 아버지 형들과 함께 영면하고 있다.

기재(奇才)의 문인 수주께서 사신 마지막 해에 태어난 천학비재인 내가 이 글을 썼다. 면구스럽다에 외람스럽다를 덧붙여도 모자랄 판이다. 수주 선생의 어법을 빌자면 “그런데 말이야, 간 선생! 수주에 대해 끄적거렸는데, 자네 나에 대해 뭘 좀 알아 썼는가!”라는 일갈을 듣지나 않을는지.

끝으로 그의 시비에 새겨진 <논개>로 이 글을 휘감 삼는다. <논개>는 수주의 대표작이요, 한국 시사(詩史)의 우듬지에 위치한다. 줄필로 줄렬한 데데한 문구를 꿰고 앉았기 보다는 차라리 약(略)하는 것이 예의인성 싶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남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웠던 그 아미(娥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石榴)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34.3.14.
《잃어버린 땀기》, 계수나무회, 1933.
《문장》3월호 제2집, 1939.3.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김병익, 《한국 문단사》, 일지사, 1973.
변영로 지음, 민중환 엮음, 《(주해) 수주 수상록》,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2009.
민중환 엮음, 《수주 변영로 시 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변천수,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허드슨 강으로 흘렀네》, 콤란출판사, 2006. 참조.
구자룡 엮음, 《변영로 연구》, 산과들, 2011.
간호윤,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조율, 2012.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朝鮮의 마음

변영로

【편집자 밝힘】

수주 변영로의 첫 시집 《조선의 마음》 영인본을 수록한다. 원본은 부록으로 산문을 수록하였으나 여기서는 시 부분만 영인하였다. 《조선의 마음》은 1924년 '평문관'에서 발행되었다.

영인본은 출판 당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철(右綴, 오른쪽부터 내려쓰기)로 인쇄되어 부득이 이 방식에 따라 편집한다.

뒤에서부터 읽어야 하는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大正十三年八月十九日 印刷
大正十三年八月廿二日 發行

定價五拾錢

高陽郡延壽面澮川里延壽專門學校

著者 邊 永 瑞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者 魯 基 禎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安國洞一五〇番地

發行所 平 文 館

不許複製

돌 속 애도

그대 사모하는 나의 마음

그대는 비우시서라

五人

돌속에도

돌속에도 풀잎나

구름속에도 집잇나

썩々한 말갓치 가리우는 그무엇잇서

그대의 속마음 아을길 바이업서라

아 설어타 그대와 나 한덜에 풀갓치

어려서보리 갓치 켜진만은

돌속에도

五七

오 날개여

五六

오 날개여

오, 날개여, 김부채갓치 피고서

강가로 나라가자, 넘세신 강가르 —

요흔 水草 쌘갓치 혼플니우는。

오, 날개여, 김부채갓치 피고서

산으로 나라가자, 넘세신 산으로 —

푸른안개 술갓치 풀(谷)에 넘치우는。

차라리 달업는 밤이 드면

드러내일듯 가리우는 저달은

어이하야 이밤에 또 밝노

차라리 달업는 밤이 드면

창에 기댄채 새는턱이나 바라볼것을

차라리 달업는 밤이 드면

五五

봄 날에
물니는것이라고는
질바람 쐬.

五四

봄
날
에

아득하게 보이는 것 잊서

눈부비며 보렷드니

보이는 것이 라고는

더 안개 쌓.

그윽하게 들나는 것 잊서

깨기우려 드르렷드니

봄
날
에

五三

오날개여

오날개여

五二

오날개여——

쉬임업시 나르는 날개여——

새럭연 銀날개、

낮연 金날개、

밤연 소리(響)날개여

남계신곳으로 나르는 날개여。

쉬임업시 나르는 날개여。

못노이는 마음

위례론가 저우에

계실리치 업것마는

계신곳 모를님이시라

행혀 몰나

세찬바람 불썬마다

만 못노이 합니다。

못노이는 마음

五一

二月해수밭

二月햇수밭

五〇

간얼보게 간얼보게 퍼지는 二月햇빛은

어느 선 세상에서 나리는 그늘갓흔데

오는 봄의 머나 치마자락 씨는 소래는

가리는 「찬손님」의 묵어운 싹 씨는 소래인가

보라 빛 金빛의 알본김으로 가리워져라

그리하여 아련꽃한 追憶만이

꿈개 그윽하게 살게 하여라!

追憶만이

四九

追憶만이

四八

우리에게 쓰일새, 우리는 움치려진다
——
해빛에 내치여진 울땀이 모양을로

그림으로 幻像을 더分明히보려고

우리는 눈을 꼭재감는것이 아니냐?

夕暮의 燦然한 光景가운데서는

우리는 程度하게 고개를 숙이지안느냐?

아, 모든 「現實」은 永遠히 <

追憶만이

모든 「現實」은 永遠히

아이엠펜(腰)의 그늘로 가리워져라

그라하여 이슬가른 追憶만이

그와 슬픈 光榮가운대서 昏絶케 하여라。

生이란 그속하고 먼 기억과 기억과의 連鎖인것분。

그라하여 「理論」과 「事實」의 회분이

追憶만이

四七

오나의명혼의旗여

四六

오, 나의 명혼의 旗여, 깃것, 맘껏 펼녕거려라,
오, 죽지안는 情熱의 旗여, 나의 명혼의 旗여!

오, 나의 명혼의 旗여

펼날지어라, 오, 펼날지어라,

나의 명혼의 旗여, 펼날지어라 ——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영원히 조바승하는 나의 旗여!

비마준 바들이 너의 아름다움이 안이되,

從容히 달닌 基督의 受難이 너의 運命이 안이되.

오 나의 명혼의 旗여

四五

하늘만 보아라

간사스런 작은사람들이

낮선곳에서 너의발자취 어지럽게할나。

다만 「피순」이 젓가리 호르는

멀고 길고 푸른하늘만 보아라

四四

하늘만보아라

벗이여, 바다를 내다보지마라라——

맑아비손 어업은 섣겨닐데

「속음으로 씌어는 노래」부른다。

다만 「백산」이 정가적 호로는

멀고 깊고 푸른하늘만 보아라。

벗이여, 승속을 기웃대지마라라

하늘만보아라

가을하늘뒀해서
뽕도 거지도 바다도 산도,
흐흐, 남이산의...

四二

가을하늘밧해서서

인생나재 놀고 김흔하늘,

어이업시도 새파란 가을하늘!

쏟씩한 당신의 天幕이르소이다

오오, 님이시에!

쏟씩하재 넓은하늘! 당신의 天幕!

만유는 다 당신의 軍隊이르소이다——

가을하늘밧해서서

四一

낮에 오시기 싫다면

오소서 오소서

꿈에나마 오소서 —

물결 서로는 달빛가리

물결 서로는 달빛가리

오서서 벗업는 나의 꿈을

태우드시 비치소서

四〇

낮에 오시기 꺼리시면

낮에 오시기 꺼리시면

꿈에나마 오소서

꿈에 썩지도 안오시면

「꿈까지도 버리시나」하고

나는 야속하여 하립니다

계신곳 모를안악네시여

낮에 오시기 꺼리시면

천애하는 벗이여

초생달빛가리 얽은우슬을

반드시 한번 우스러거든

가연는 바다우에 햇빛가든

얽은 우슬을 우서라

三八

천에하는 벗이여!

왜 그대지도 선을하는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선을을?

기억코 선을을 하려거든

바람에 휩쓸리는 삼림가리

선을 하여라。

천에하는 벗이여!

왜 비웃는것가리 웃는가——

천에하는 벗이여

三七

천애하는 벗이여

三六

천애하는 벗이여

천애하는 벗이여!

왜 잔소리를 하는가——

령혼을 가납케하는 잔소리를!

기억코 잔소리를 하려거든

자갯을 우를 흐르는 시내물가터

잔소리를 하여라。

푸르든 희망도 하에 지게 하며

검든 피음도 하에 지게 한다

어느덧 나도 눈이 되어 하얀 눈이 되어

괴기한 曲線을 大空에 거리우며 나리는

동무축에 휩싸이어 내려간다——

급고 아름다움으로 근심과 죽음이 생기는

「色形」과 「形態」의 世界를 덮으려。

아름다움은 「폭페이」를 나리일뿐

애쓰 애쓰 火山의 재가 터!

雪上逍遙

三五

雪上逍遙

三四

雪上逍遙

꿈재 비인 마음으로

눈위를 거르면 눈위를 거르면

하얀 눈은 눈으로 드러오고

머릿속으로 기억들이 가고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와서

붉은 사랑도 하에 지게 하고

누르든 건정도 하에 지게 하고

放浪의 노래

바다의 계신 그대를

더울토 차자 단연세라

그래 더울인가 하교가보니

그대는 그곳에도 안계서라

放浪의 노래

三三三

氣分轉換

색여라, 가슴 깊히 색여라——

「울음은 낮게 달니운 구름으로서,

웃음은 남재 개인하늘로서。」

라는 세 곡도물!

氣分轉換

동무야, 나의 사랑하는 동무야,

이제라, 끝제 이제라——

「슬픔은 푸른 김혼 바다로서,

깃불은 여운 시내물로서。」

하는 옛노래를。

동무야, 나의 사랑하는 동무야,

氣分轉換

님이시여

三〇

님이시여,

왜 새삼스러히 우심닛가?

당신의 깃발을 내가 아는데요.

님이시여,

왜 어대르가 시렵닛가?

변치안는 당신임을 내가 믿는데요!

님이시여

님이시여

왜 나를 보고 외면을 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요!

님이시여,

왜 당신의 눈이 웃으십니까?

당신의 설음을 내가 아는데요.

님이시여

二九

그「마음」을「하라」!
論 介

二八

그 「마음」의 「학」의 「학」。

호 「학」은 「학」은 「학」

기 「학」은 「학」은 「학」

그 「학」의 「학」은 「학」

어 「학」의 「학」은 「학」

우 「학」의 「학」은 「학」

그 「학」의 「학」은 「학」

학 「학」의 「학」은 「학」

論 介

二七

論 介

그 마음 혼너라。

아릿답든 그娥眉

삼계 홀들너우며

그石榴속가든 입설

「죽음」을 입맛추었네!

아, 감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論 介

기록한 분로는

종교보다도 깊고

볼보는 情렬은

사당보다도 강하다

아, 감낭콩 싹보다도 더 푸른

그물결우에

양귀비싹보다도 더 푸른

論 介

二五

오, 솟는 해

오, 솟는 해

오, 솟는 해, 피지는 해, 기우는 해

하늘길것는 너의 거름 색 르고도 느리다。

해야 무려보자, 너의 거름 재임은

한복판(中天)에 계옵신님 만나 뵈림인가?

해야, 무려보자, 너의 거름 느낌은

만나자 티별하기 마음이 묵어위선가?

二四

사 랑 은

사랑은 겁쟁은 가슴으로서

부드러운님의 가슴에 전녀매여진

일념 ~ 혼들니는 실어니

사랑아 목숨가리지 안켜든

그 혼들니는 실은허지기전

저편언덕 전녀가자

사 랑 은

1111

님아
세력빛 회미하니
갈길 마저 가자

님

아

111

님
아

님아

지는 해빛 붉으니

갈길 빨니 것자

님아

눈설 달빛 푸르니

갈길 좀더 가자

님
아

一一一

한

혹시그때뫼에보듯거든

길인헛다차저은줄야소

110

눈 (眼)

아릿다운 그대

그대의 눈썹은 실버를가져

엮어나 실이 나뭇기는저

나의 갈길 일렷세라

길일흔나, 길일흔나,

돌로뿔뿔히매이다가

눈

一九

봄
비

一八

이제는젖빛구름도꽃의입김도자취입교

다만비듬이발독만불키는銀실가든봄비만나

소래도입시근심가리나리노나!

아, 안을사람기두르는나의마음

나 죽하고, 그속하재부르는소래잇서,

나아가보니, 아, 나아가보니 —

아터 — 口 뜻이나는, 지난날의回想가리
설니는, 피지안는꽃의업김만이

그의향귀로운자탕안에자지러치노나!

아, 땀남업서얍흔나의가슴!

나 죽하고, 그속하재부르는소래잇서,

나아가보니, 아, 나아가보니 —

봄 비

一七

봄
비

一六

봄
비

나 즉하고, 그속하재부르는소래잇서,

나아가보니, 아, 나아가보니—

조름잔독실은못한것밧구름만아

무척이나갓분듯이, 한업시게으르제

푸른하날우를거닌다。

아, 일흔것업시서음한나의따움!

오, 그대! 나의靈魂의 벗인 그대!

우리가 그리우는「그때」가 어떤가.

「우리世紀의 하늘」이 어떤가

그때는 그대와 내가

부끄러워 눈을 피하지 않을 것이지요.

두리쉬 몸을 숨치리 드립지 않았겠지요.

오, 그대! 언제나 그 때가 올 것인가?

그때가 언제나 올 것인가

一五

그때가 언제 나올 것인가

一四

「사랑」과 「믿음」의 불꽃이
밝은 「말」을 사루어

그대와 내사이에

말입서 서로 아파뚱코,

채침입서 서로 붓습고,

음유입서 서로 씨안을

그때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때가 언제냐 읊네가

그대와 내사이에

모든가 리슬 업서지요,

붉은해빛가운때

웃으르가 띄우지 아니한

맑아버스 맨몸으로

일할때와 일할을대 할

그때가 언제냐 읊네가

그때가 언제냐 읊네가

111

날이새입니다

111

자릿하제도 산산한 세력이슬이 나리는 이곳으로요.

「솔골」은 옛것이요, 「깃봄」은 기려세름입니다.

울음을 멈추고 이리와서 「맑은큰날」의 해마지하세요.

날이새입니다, 동이 고요히트입니다.

고흔새벽빛이 「세계의깃봄」가 더 울녕거립니다.

날이 새입니다

날이 새입니다, 동이 고요히 드입니다.

고혼 새벽빛이 「세계의啓示」가래 흥을냅니다。

벗이여, 당신이 마애는 어제 밤의憂愁가 새여 있습니다.

거심초래한 두눈추리에는 그저도 눈물이 적습니다。

벗이여,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아리오십시오——

날이 새입니다

—

벗풀이여

이대선지 타팔소래 나나—

벗풀이여, 너기엔「나감」생。

10

하늘빛이 몸에 배이고

편곳이 손에 잡힐 듯하니—

벗들이여, 여겨안 「것을」 쌀。

얼빛처럼 보았는지,

괴랄이 나르려니—

꽃들이여, 오, 오, 오, 오 「모든」 쌀。

부실한 권이 드렸는지,

벗들이여

九

벗들이여

벗들이여

八

구름인다음에야.

혈마 하늘보다 더 오래가랴—

벗들이여, 외국의엔「빛음」살。

온천구름그릇가리 쟁여저고,

푸른하늘(眼)가리 로이니—

벗들이여, 외국의엔「바람」(希望)살。

다시 못의술 그대의 고향을
사라지는 옛살보다도 회미하여라

상시에 못의술을

七

새시에 못되옵님을

생시에 못되옵님을

六

새시에 못되옵님을 꿈에나 빌가하여
꿈가는 푸른고개 넘기는 넘었스나
꿈조차 혼들니우고 혼들니여
그립든그대 갖가울뚝 머러라

아, 밋그림지안은곳에 밋그러져
그대와 나 사이엔 만리가 격했서라

길에서 그대 비슷한이 보진만은
아니 실을알고 눈감고 정길로 가옵네다

—
꽃
—

피리지도실학하을

五

파람이도 바람이도

四

파람 그제 난 떠안은 바람이로
그대와 나의 어딘은 흐리워져
얼얼에 서로 손목 쥐었습네다

(三)

그러나 바람이 우리를 시키하였는가
바람은 난호어 불지 아니하였스런만
찌꺼이는 옷가터 우리는 갈넷(길)습네다

이제껏의 그리움이 환호리유편

답답할애 이내가슴 러집내다

(二)

철안나 부스럼은 옛날엔

그대와 나 한동산에 노타지요

그때는 햇빛도 더 진렀습내다

어젠가 우리들이 감가에 흘려

나르른것은 흰새엿것만은

모래우 거담자는 붉었습내다

버리지도살라하을

三

버리지도 실라하을

二

버리지도 실라하을

(一)

버리지도 실라하을 이몸이

불연못 그대생각 어인일가

그리운마음 자랑스럼습내다

초入불밖교 마음어둔 이밤의

장선 이대계신지 알길업셔

서대선에

「조선마음」을 어대가차즐가?

「조선마음」을 어대가차즐가?

줄속을 헛볼가, 바다밧을 뒤져볼가?

썩썩한 비들가지름을 헛치볼가?

아득한 하늘가나 바라다볼가?

아, 「조선마음」을 어대가서 차져볼가?

「조선마음」은 지향할수업는마음, 실존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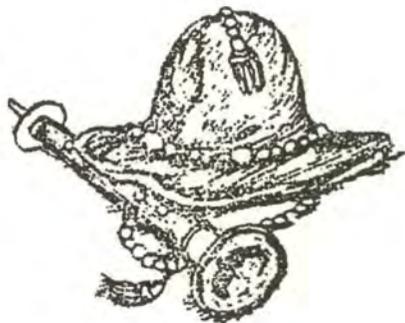
서대선에

1

여 백

詩 集
음마의鮮朝

作 魯 榮 卞



1 9 2 4

平 文 館



이상혁

변호사. 전 서울법대 동창회장



이병렬

문학박사. 전주교대 초빙교수



간호윤

문학박사. 인하대·서울교대 강사

변영만은 민족의식이 투철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법률을 포기할까 하다가도 억압 받는 민족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수난 속에서도 이처럼 재능 있는 법률가가 현존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변영만은 그의 초탈한 문인상(文人像)의 법률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변영만' 본문(이상혁) 중에서

근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회자되고 있는 때에 변영태의 근면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침탈 야욕이 드러난 현재, 외무장관으로서 변영태가 보여준 단호한 의지는 다시 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 '변영태' 본문(이병렬) 중에서

수주는 고달픈 심장을 멈출 때까지 '크나큰 명상'을 찾아 헤맸음을 알 수 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수주의 '크나큰 명상'은 수주가 청년시절부터 그토록 꿈에서 찾던 '붉은 그 꽃'이다. '붉은 그 꽃'은 바로 '님'이었다. 수주는 평생 부재(不在)하는 '붉은 그 꽃'을 꿈속에서 찾아 헤맨 갈(渴)한 시인이었다.

- '변영로' 본문(간호운) 중에서



ISBN 89-90918-90-1 03810

책값 12,000원